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자유의 색

이민자들의 이야기

(The Colors of Freedom: Immigrant stories . 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英科

李仁福

2011年 2月

자유의 색

이민자들 이야기

(The Colors of Freedom: Immigrant Stories . 翻譯論文)

指導教授 金元寶

李仁福

이 論文을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1年 2月

李仁福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

委 員 _____ ㉠

委 員 _____ ㉠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11年 2月

The Colors of Freedom

Immigrant Stories

In-Bok Lee

(Supervised by Professor Won-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2011.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more multi-cultural societies become, the more important different viewpoints toward multi-cultural societies get. This book provides a good opportunity to have a glimpse of different peoples' points of view, especially teenagers' varied perspectives, on the United States which is one of the most typical multi-cultural societies in the world.

This book makes peoples' immigration experiences real for readers not only through the voices of descendents of past various immigrants like slaves or slave owners, European craftsmen, Irish farmers, and many others, but also through direct experiences of teenage immigrants in high school. Newly arrived teenage immigrants introduce diverse customs of their native lands and compare their lives there with those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hey recount traditions of their native countries, and present short stories, poems, recipes, and artwork. This book also provides interviews with teenagers born in America about their family history.

This book will help teachers and students know more about their multi-cultural environments, which will lead them to understand more about different cultures and thoughts of different peoples. This book is also helpful for parents and children because it will broaden their views on America comprising of various immigrants and their descendents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and help them know how to live a harmonious life one another.

I always believe that one of the best ways of making our place better is to change myself before anything else.

제1장
세계여행

제2장
자유와 색
도움을 준 사람들의 가족사진

제3장
태초의 이야기
메이플라워 조상에서 1900년대 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세계
1부 서경 180도 ~ 40도

제4장
남북 아메리카와 캐리비안 국가들 이야기
요리법: 소파이필라 만들기
에세이: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
깊이 들여다보기

가이아나
엘 사바도로
자메이카
도미니카 공화국

제5장
멕시코 이야기
요리법: 남부 텍사스식 파지타스 만들기

에세이: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

깊이 들여다보기

종교와 신앙

전통 멕시코 민간요법

퀸세아네라

2부 서경 40도~0도~동경 60도

제6장

동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이야기

요리법: 카사바 빵과 녹말 만들기

에세이: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

깊이 들여다보기

이라크

알바니아

에티오피아

부룬디

3부 동경 60도~180도

제7장

아시아와 아대륙 이야기

요리법: 돼지 갈비 만들기

에세이: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

깊이 들여다보기

한국

몽족

인도

중국

제8장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이야기

깊이 들여다보기

메노미족

제9장

오늘날의 이민: 학생 활동

계곡에서 온 소식

이민 조사 뒷이야기

달콤한 유산: 모리스 중학교에서 보내온 요리법

쿠키 두 봉지 만들기

고구마파이 속 만들기

퍼지바 만들기

바나나 푸딩 만들기

모리스 중학교의 지역 및 국가 이민 조사

설문조사결과

시민권 테스트

청답

시민권 질문과 대답

교사 가이드: 모의 이민

For more Information

감사의 글

챗봇 보드는 지금 어디 있을까?

세계 여행 1

책을 쓰는 것은 모험을 떠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될지, 또한 그것들이 서로가 어떻게 엮어질지는 여행의 목적지에 이르러봐야 안다.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일 년 전 3월 4일, 뉴욕 시

나는 뉴욕 항을 지나가는 배를 타고 스테이튼 아일랜드 모리스 중학교 일학년 신문반 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중이다. 32명의 학생들과 에르미니아 클로디오 선생님은 내가 쓰는 책을 위한 조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의논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들은 내 책의 주제인 우리 미국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민 경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그 날 그들을 만나게 되면, 나의 주된 목적, 가령, 가장 최근에 이민 온 사람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지금은 미국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들,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조상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리고 근래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는지도 알고 싶다.

나는 시선을 돌려 멀리 자유의 여신상과 엘리스 아일랜드를 보았다. 1886년 이후부터 자유의 여신은 그 유명한 햇불을 들고 “당신의 지치고, 처량한.... 내가 황금문 옆에서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라는 환영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이 지구상의 많은 이민자들이 그녀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다.

엘리스 아일랜드도 오랫동안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892년부터 1954년까지 이 섬은 주로 서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오늘날 미국인의 40%는 이 곳 해변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딘 친척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다.

20세기 초 이민의 절정기에는 희망에 부푼 이민자들 무려 5천여 명이 그들의 운

명을 결정하는 관리팀들로부터 꼬치꼬치 캐묻는 질문과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어떤 생각으로 미국이민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어떤 이들은 입국을 거절당하고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그 장소에 가보면 그들의 가슴 아픈 울음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다.

1990년에는 그 때의 주요 건물들이 다시 개방되었는데 이번에는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 그 안으로 걸어 들어 가보면 우리는 어느 새 수 세대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색 바랜 옷, 배포와 엄청나게 큰 여행용 가방 더미, 지금의 후손들이 기증을 한 과거 친척들의 유품들이 있다. 만일 그 때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고자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미국인은 어떤 사람들로 채워져 있을지 정말 궁금해진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민자들은 이러한 과거의 다인종이 뒤섞인 이민에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새 배는 부두에 닿고 나는 여행의 1단계인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모리스 중학교로 출발한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하도록 하겠다.

2단계, 3단계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나는 교사 아카데미의 페트리샤 파워와 그녀의 중1반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들은 모두 텍사스-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쪽으로 약간 들어온, 차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인접한 마을인 에든버러(Edinburg), 파(Pharr)와 산후안(San Juan) 출신들이다. 그래서 이민자 문제는 그들이 늘 접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도 이 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메일을 통해서, 나는 학생들이 이민과 조상에 대해 각자 자유롭게 생각해보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지켜보자는 선생님의 제안에 동의했다. 곧 답장 메일이 왔다.

날짜: 3월5일 수요일, 오후 6:27

보낸 사람: 페트리샤 파워

제목: 프로젝트 승인(교사 아카데미)

받는 사람: 잼 보드

안녕하세요, 자넷

교장 선생님께서 문화 인식 프로젝트를 승낙하셨습니다.

학생들의 참여는 부모가 동의한 지원자들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워싱턴 시애틀 해안과 떨어져 있는 배션 아일랜드 고등학교 3학년생 할베 도허티 우드와 연락을 취했다. 미국에는 백 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학교들이 있지만 그녀가 다니는 학교는 그와 정반대였다. 오로지 영어만 사용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학생들의 가족은 유럽에서 이주한 2세대들이었다.

할베는 나에게 학교 신문반이 실시했던 학생회 조직 내부의 인종 다양성 결여에 대한 설문조사에 관해 말했다. 그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종적으로 고립됨으로써 자신들이 미래에 교류해야 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또한, 미국의 연구(American Studies)에 대한 과제로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라는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것에 대해서도 말했다. 나는 그 에세이들도 보고 싶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몇 달 동안, 나는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녔다. “여러분의 뿌리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나는 학생들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었다. 아이티나 푸에르토리코, 트리니다드 섬에서 온 학생들은 나를 그들의 삶 속으로 초청해 해주어서 하루는 마치 내가 이 섬 저 섬으로 여행을 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또 어떤 날은 마치 내가 구소련이나 아시아, 남미 또는 아프리카에 혼자 떨어진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나는, 최근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미국의 작은 마을로도 가게 되었다. 그리고 머지않아, 나는 거의 1,000개의 미니 자서전과 아주 상세한 실제적 삶의 단편들을 모을 수 있었다.

짧은 설명을 더해가면서, 나는 일대일 인터뷰를 실시했다. 첫 번째는 남미 국가 가이아나에서 온 여학생과 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학생 개개인들에게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의 이름과 몇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바꿀 것이라

고 알려주었다.

나와 독자인 당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다르며 얼마나 같은지, 그리고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고 싶다. 우리는 이 소녀가 말하는 모국에서의 일상에 대한 묘사로 시작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끝을 맺었다. 그녀는 방을 나가기 전, 제일 친한 가이아나 친구의 이름이라면서 자신을 샤즈나라고 불러 달라고 했다. 나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는 내가 항상 묻는 질문을 했다. “다른 질문이 있으면 전화로 물어봐도 되니?”

“물론이죠,” 4천명이 다니는 학교의 봄비는 복도로 사라지며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는 인구가 고작 4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다보며 다시 내게로 와서 말했다. “나는 단지 한 사람에 불과해요, 우리나라를 보는 한 쌍의 눈일 뿐이에요. 가이아나 사람들은 다 달라요. 독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세요.”

소녀의 말이 옳다.

어떻게 내가 단지 한 개인을 보고서 한 문화 전체를 정확히 담아내고 표현 할 수 있겠는가? 실례로, 멀리 떨어진 농경사회의 생활은 조밀하고 불규칙한 도심사회의 생활과 점점 달라져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같은 문화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천지 차이라는 사실이 거기에 더해져야만 한다.

아메리칸 모자이크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첫 부분에 나온다. 다음에는 그들이 태어난 국가와 그 나라의 전통과 종교 의식들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개개인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그러면서 당신은 또한 이민자가 경험하는 현실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광범위한 한 문화의 조각들을 발견하는데 있어서는 텍사스에 있는 교사 아카데미의 페트리샤 파위가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이 그 방법을 보여주었다. 5월 말경 학생들의 문화 인식 프로젝트의 조사결과가 담긴 50개 이상의 상자들이 도착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날짜: 5월 30일 10:18PM

보낸 사람: 잰보드

제목: 숨도 못 쉴 정도

받는 사람: 파워

나는 각각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내 남편이자 만화가인 스탠에게 귀찮을 정도로 말을 걸었어요. "와 이거 좀 들어봐, 저거 좀 봐." 침대의 시각에서 인종주의, 눈을 못 떼게 하는 시, 영적인 믿음과 미신, 민간요법. 나는 마치 아메리카 모자이크를 만드는 조각들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넷

문화 축제

나는, 그들이 어떻게 이 주제에 접근하기로 했는지 알아보기도 하고 그들이 모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스테이트 아일랜드 모리스 중학교로 다시 돌아갔다. 에르미니아 클로디오 선생님이 교실을 문화축제의 장으로 바꾸어 놓고 있었다.

여러 개의 긴 테이블 위에는 학생들의 폴더가 있었고, 각 폴더에는 학생의 사진과 자기소개 및 최근 이민자와의 인터뷰 내용이 간단하게 담겨 있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중 몇몇은 심지어 맛있는 요리법과 아주 존경을 받았던 친척의 기념품과 1800년대 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정교한 가게도 정리해두고 있었다.

학년학생들이 모두 함께 이민에 대한 설문 조사를 만들고 다른 학생들과 부모님, 이웃들로 하여금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나는 다른 학교에도 보내려고 메모를 해두었다. 특히 워싱턴 배션 아일랜드에 있는 학교에도 꼭 보낼 것이다.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과 목숨을 건 사람들

늦은 가을, 나는 오늘날의 이민자들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몇 가지 패턴이 나타났다. 한 가족의 삶이 일단 따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며, 부모가 먼저 이민을 오고, 그 후 10년 정도 후에 자식들이 따라와서 온 가족들이 삶을 다시 합치게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개학 첫날 학교로 가는데, 학교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곳이지만 어쩌면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이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 지, 무엇

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아이들은 대개 그들의 언어도 모른다. 그런 아이들은 미국 태생의 아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놀림거리가 된다. 새로 이민을 온 이런 아이들은 문화 충격에 빠지게 되고, 이미 그들의 몸에 배어 있어서 이제는 잊을 수가 없게 된 과거의 영향력 속에서도, 그런 과거의 삶을 미국에서의 미래의 삶과 잘 결합시켜 보기로 결심을 하게 된다.

위험을 감수하고 오는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오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국경을 넘어온다. 어떤 이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 가난과 폭력에서 헤어 나지 못하는 악몽으로 바뀌고 만다. 또 다른 이들은 성공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영위해 가느냐에 상관없이 믿음의 가치, 가족의 가치, 인내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나의 조상들도 이 나라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정체불명자들(know-nothings)

우리 부모님의 가족은 양쪽 모두 약 150년 전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왔다. 그들이 온 목적? 오늘날 들어오는 이민자들과 다를 바 없었다. 기근과 전쟁을 피해서 소문으로만 들어 알고 있던 나라에 와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 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1848년 경 위스콘신에 정착했고, 그 시기에 위스콘신은 하나의 주로서 연방에 소속되었다.

나는 오래 전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정체불명자들의 당'이라고 불리던 이 정당은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을까봐 우려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더 제한적인 반이민법으로 대처했다.

우리 조상들은 그 당시의 그런 부정적인 태도에 격분을 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주변 시골 개간지를 개척하느라 정신이 없었을까? 나는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처음부터 여기에 살았던 토착 아메리카 원주민들과도 만나 보게 되었을까? 모르긴 해도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후손보다는 훨씬 더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런 이민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이 마지막 사항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메노미니 족의 전 족장이었던 존 텔러에게 전화를 했다. 메노미니 족 대부분은 아직도 위스콘신에 살고 있다. 그는 부족의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부족 보호 학교의 한 중

학생과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웹사이트

12월에서 3월까지. 가장 어려운 부분. 책 만들기.

나의 작업장은 실생활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 개인 인터뷰들, 문화 인식 프로젝트들, 설문조사들, 처음부터 줄곧 나를 도와주었던 학생들의 스냅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150페이지 책 안에 담아 넣기에는 자료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웹 사이트를 구상했다.

무엇이든 스캔을 하고, 여기에 기고할 미국전역의 학생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기서는 인종 음악과 문화적 전통에 대한 설명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꾸민다. 수많은 국기들이 휘날리면서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색인 빨간색, 하얀색과 파란색으로 녹아들어가는 모습들과 함께.

하지만 나는 다시 현실을 감안해서,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책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다양한 모음집

당신이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차라리 이것을 다양한 기사 모음집, 기념품이거나 가족 앨범 등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재미와 놀라움, 당신의 삶과 가족, 경험들과 연결되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잠깐 잠깐씩 읽어보도록 하라.

실례로 당신은, 메이플라워호나 노예선을 타고 여기로 왔던 수 세대 전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당시 조상들에 대해 학생들이 써 놓은 짧은 이야기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당신은 캐리비안 섬나라들에서 온 십대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다. 그 부분이 당신이 독서를 시작할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당신은 '깊이 들여다보기(Longer Look)'부분이나 부룬디와 한국과 같은 먼 나라의 삶에 대한 구술역사 부분으로 건너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당신이 읽고 있는 글은 내가 들었던 말 그대로라는 것이다. 그 글들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글들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에 대한 그들의 의견과 그

들 동료들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 곳곳에는 세계 여러 지역의 요리법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 요리법에는 한 세대가 즐겨먹던 가족 음식 재료들을 다음 세대와 나누는 즐거움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한 학생은, 이런 세상에!, 할머니가 비밀 재료들은 고의로 빼놓았을 수도 있다고 털어냈다. 만일 이 요리법들을 똑같이 시도해 볼 생각이라면 이런 점을 알아 두라.)

마지막 장은 대화식이다. 이민 설문조사를 작성하라. 시민권자 신청자용 질문지를 보고 오늘날 이민자들이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는 신분이 되기 전에 응답해야 하는 질문들에 대해 대답해보라. 그런 다음, 이런 넓은 배경적 지식과 더불어 오늘날의 이민에 대한 더욱 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미래에 이민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토론해보도록 하라.

두 가지 알림사항

1. 이 책에 도움을 준 학생들 대부분이 익명을 원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짜 신원은 가짜 성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가끔씩 성과 이름을 그대로 밝힌 것도 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이름이 공개되고 자신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려져도 된다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경우이다.
2. 당신의 이름이나 생각이 책에 실린 것을 보는 것은 아주 신나는 일이지만 가끔은 당혹감을 주기도 한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내 얼어버리기도 한다. 기억하라, 여기 쓰인 글들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지금보다 두 살 더 어렸을 때의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란 사실을. 또한 지면 제약으로 인해서 나는 가급적 이야기를 줄여야만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가 지닌 힘이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의 색

도움을 준 사람들의 가족사진 2

자, ‘김치’하세요(Say Cheese)

지금 세상은 디지털 하이테크 시대지만 학교를 방문할 때 나는 아날로그 기술을 사용한다. 일회용 카메라가 내 여러 도구 가운데 하나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써 내려갈 때 스냅사진을 찍는다. 여기에 그 사진들이 있다. 그리고 에르미니아 클로디오와 페트리샤 파워가 찍은 학급 사진과 자원한 학생들 사진이 몇 장 더 있다. 이것들은 학교에서 같이 보낸 시간이나, 퀸세아네라(a quinceanera)에 초대 받았을 때 또는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에서 찍은 사진이다.



태초의 이야기

1900년대 초 메이플라워 조상들의 이야기 3

여러 민족들의 국가

1565 스페인 군인들과 성직자들이 후에 미국의 플로리다 성 어거스틴이 될 곳에 첫 성공적인 유럽 전초지를 세우다.

1607 영국에서 온 거주민들이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영구 식민지를 세우다.

1614 네덜란드에서 온 거주민들이 뉴욕 알바니 근처에 첫 주요 식민지를 세우다.

1619 아프리카에서 고용 계약을 맺은 노예들이 처음으로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도착하다.

1620 순례자들이 메사추세츠 플리머스 식민지에 메이플라워를 상륙하다.

그 후 150년 동안 영국 카톨릭 교도들, 브라질의 유대인 망명자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청교도의 위그노 교도들이 자발적으로 이 해안으로 들어왔다. 이들과 함께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미래의 주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여기에 강제로 끌려왔다.

제한이 많았던 이민법으로 인해서 20세기 중반까지 자발적으로 미국에 이민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끊임없이 밀려든 다양한 인종의 최초 이민자들로부터 현재 이민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한 번 살펴보자.

짧은 이야기들

아비가일 카펜터

텍사스, 교사 아카데미

우리 가족의 가계도를 조사하는 동안, 이모할머니 밀은 1698년 돌아가신 조상, 윌리엄 카펜터의 마지막 유언을 발견했다. 그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왔고 플

리머스 식민지에 정착을 했다. 그와 가족들은 그 후에 그가 일생을 마친 메사추세츠 로흐봇으로 이사를 갔다.

그 당시에는 재산과 분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다. 심지어 책이나 옷, 양모와 설탕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도 꼼꼼히 적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어느 문화에서나 아주 소중한 부분이다. 이것은, 윌리엄 카펜터가 사랑하는 아내와 여섯 명의 아들, 그리고 손자들과 두 명의 딸에게 나눠주었던 재산을 기록한 것에서 발췌한 것이다. 딸들 중 한 명은 내 이름 아비가일과 같다.

"In the name of God Amen, I William Carpenter, Sr. of Rehoboth, being in perfect memory at present, blessed be God, do make my last will and Testament....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르호봇의 아버지, 나 윌리엄 카펜터는 현재 건강한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지막 유서를 쓰노라....

(4) I give to my son William the young grey mare, or two yearling colts, and five pounds in sugar or wampum, and my (passett) coate, and one suit of apparel....

(4) 나는 아들 윌리엄에게 회색의 어린 당나귀나 한 살 된 수망아지 두 마리, 5 파운드어치 설탕이나 조가비 구슬, 그리고 내 코트와 한 벌의 옷을 준다....

(5) I give unto him my Latin books, my Greek grammar, and Hebrew grammar, and my Greek Lexicon, and I give to him 10 (or 5) pounds of cotton wool; and to his son John, twenty shillings to be paid to him a year after my decease....

(5) 나는 그에게 내 라틴어 책들과, 그리스어 문법책, 그리스어 사전을 준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정제솜 십 파운드 또는 오 파운드를 준다. 그리고 그의 아들 존에게는 내가 죽고 일 년 뒤에 20실링을 준다....

(9) I give to my daughter Hannah one yearling heifer, also I give Hannah her Bible, the practice of piety and the volume of prayer, and one ewe at the island, and twenty pounds of cotton, and six pounds of wool...

(9) 나는 딸 한나에게 일 년 된 암소를 주고 또한 성경책과 경건 연습서, 기도책과 아일랜드의 양양을 준다. 그리고 면 20파운드와 모직 육 파운드를 준다....

(11) I give to my daughter Abigail, one young mare, a three-year-old bay mare, and if the mare should be dead at Spring, she shall have fifteen pounds in her stead, within one year after my decease....

(11) 나는 딸 아비가일에게 어린 암말 한 마리와 삼년 된 적색 암말을 준다. 암말이 봄에 죽게 되면, 대신에 내가 죽은 후에 15 파운드를 준다....

(14) I give to my wife the other half of the land I now live upon, her lifetime, and the use of my household stuff, carts, and plows, if she marry not....

(14) 나는 아내에게 아내의 일생동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의 반을 주고, 재혼하지 않는다면, 내 집의 물건과 마차와 쟁기들을 사용할 권리를 준다...

철자와 대문자, 구두법은 유서 원본 그대로 적었다.

크리스토퍼

1600년대 후반에 어머니의 친척들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신세계로 넘어왔다. 그들은 지금의 북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정착을 했다. 아버지의 증조부는 그때 넘어온 가족 중에 처음으로 이곳에 도착을 한 사람이었다. 증조부는 상인선에 탔다가 뉴욕 하버도착 직후 상인선 옆쪽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리신 분이다. 그때가 세기말 이었다. 그는 뉴욕 북부에서 농사를 하고 미국 서북부에서 정착을 하고 시실리 팔레르모에서 온 이민 여성과 결혼했다. 시실리 팔레르모는 이탈리아에 있는 지역이다.

트레이시 스윙턴 베일리

언어학 교사

소카스티 고등학교, 사우스 캐롤라이나 머틀 비치

나의 뿌리

노예, 조상의 일부는 노예였다.

잡혀오고, 매매되었다.

어떤 이들은 군인. 대부분 군인이었다.

땅을 위해서 싸웠다.

그것이 그들의 삶이자 유산.

왕, 여왕, 약초 장수, 성직자,

의사, 십자군 전사, 미용사, 가수.

내 조상은 전 지구를 덮으며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다

나는 조상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을 불러 본 적도 없다.

전설은 묻혀있다.

잊어버린 시간 속으로 사라지고

의식 속에 깊이 파고드는 공허를 남긴다.

폐기

성 할아버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농장일 밖에 없었던 아일랜드에서 왔다. 그는 대가족 속에서 자랐고 6학년 까지 교육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희망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스물 살에 여기로 넘어왔다. 그는 평생 화물 기차를 운전했고 그 일을 좋아했다. 할머니의 친척들은 독일에서 왔다

외할아버지는 동부 유럽에서 왔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군 의료 부대에 있을 때, 할머니를 만나서 결혼했다. 할머니는 프랑스로 캐나다인이었고 거의 캐나다에서 살았다.

미셸 파울하버

텍사스 교사 아카데미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다. 증조할머니(1887-1981)는 아홉 살 때, 요리하고 가사 일을 하도록 부잣집에 맡겨졌다. 1904년 증조할아버지(1883-1973)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배를 타고 13일 후에 뉴욕 항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화물 기차를 타고 뉴욕 멕시코까지 여행을 했고, 그 후에 고기포장 공장과 농장에서 일을 하려고 동부로 돌아왔다. 1917년 할아버지는 식육점과 소시지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데이미언

나는 아프리카계 미국 남자이고 브룩클린에서 나고 자랐다. 어머니는 할렘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났다. 우리 증조할아버지와 증조할머니는 남부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노예였으며 강제로 끌려왔다. 증조할머니 두 분 모두 어린 소녀였을 때 강간을 당하고 매를 맞았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아프다.

나에게는 19살이며 지금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누이가 있다. 나는 참 행복하다. 최고이며 나의 미래를 도와주시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다.

에이미 벅크너

언어학 교사

조지아 스넬빌리, 부록워드 초등학교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망명자의 신분으로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왔다.(할아버지는 술집에서 싸우다 고향을 떠났다.) 그는 고향에 아주 소중한 사람, 여자 친구를 남겨두고 떠났다. 여자 친구의 아버지는 그렇게 된 걸 좋아했다.

2년 후에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주선했다. 결혼 전날, 증조할아버지는 미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같이 달아났고 1900년대 초에 여기로 이민을 왔다.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매튜

외할아버지는 영국인의 생활을 했다. 그들은 영국 음식을 먹었고, 차를 마시고, 서로가 그 방식을 지켰다. 친할아버지는 미국에서 태어난 첫 세대였다. 그들은 집에서 언제나 폴란드 말을 했지만 폴란드 태생 부모에게서 “미국인”이 되는 교육을 받았다.

데이지

우리 할아버지는 미국인의 성공 신화다. 그는 9살 때 홀어머니와 두 명의 누이와 프랑스에서 이 나라로 넘어왔다. 그는 병을 앓고는 절름발이가 되었다. 엘리스 아일랜드에서는 의사에게서 거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여기에 와서, 할아버지는 학교에 갔고, 영어를 배웠고, 결혼을 했으며, 우리 아버지까지 모두 세 자녀를 낳았다. 할아버지는 옷 장사를 시작했고 이 좋은 나라에 살게 된 것을 감사했다.

마리레나 갈루치

뉴욕, 모리스 중학교

나는 100% 이탈리아 사람이다. 할머니는 많은 추억들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그녀는 대공황이 일어나 1935년 잘 알려진 해안선인 렉스를 통해 미국에 도착했던 것을 기억하셨다. 할머니가 내 나이였을 때는 1939~40년 이었다. 그녀는 줄넘기를 하고 집 근처에서 엄마를 도왔던 일을 기억하신다. 또 어머니를 도와 털실을 등글게 감곤 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는 ‘아름다운 몽상가(Beautiful dreamer)’과 ‘나의 파란 천국(My blue heaven)’이다. 좋아하는 가수는 Bing 크로스비(Bing Crosby). 좋아하는 배우는 클락 게이블(Clark Gable)이다.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할머니가 중학교 3학년이었을 때, 교장선생님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가 말했다.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에 가담하고 있어.” 중학교 2, 3학년의 대부분의 소년들이 군대로 징발되고 입대했다.

할머니는 경영과 상업 수업을 받았다. 그리고 이탈리아어 밖에 모르는 학생들의 입대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도왔다. 그래서 할머니는 지금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1949년 할머니는 대학에서 보험 수업을 받는 유일한 여학생이었다. 그녀는

스태이튼 아일랜드에서 보험사로 개인 사업을 하는 몇 안 되는 여성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세계

제1부

서경 180도~40도

남북 아메리카와 캐리비언 국가 이야기 4

공동의 결속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 할 때, 많은 학생들이 그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이 이야기들의 세부 내용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이건 사람들이 공동의 결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 줄 것이다.

짧은 이야기

마리솔

나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길고 아름다운 나라, 칠레에서 왔다. 나는 우리 동네와 수도 산티아고의 북적이는 거리를 기억한다. 나는 그 나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기 오는 것을 반대했던 기억이 난다. 엄마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지금은 여기서 2년째 살고 있고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든다. 나는 미래에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상상을 한다. 물론 결혼하고 싶고, 남자 아기도 낳고 싶고,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고 싶다. 나는 게다가 여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내가 가진 모든 사랑을 나눌 착하고, 잘 생긴 남편이 있으면 좋겠다.

페니

나는 아홉 살 때 콜롬비아로 왔다. 지금은 열일곱 살이다. 콜롬비아는 남자다움을 강조하는 나라다. 진정한 남자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은 내가 이런 아주 행복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나는 선생님들에게 둘도 없는 최고의 학생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자주 술을 드신다. 술을 마시면 형들과 누나를 피가 나도록 때리고 욕이란 욕은 다한다. 지금은 모두 결혼하고 나만 남았다.

이제 아버지는 집에 오면 엄마를 때린다. 주말 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나는 어떻게 하기가 두려워서 웅크리고 침대에 눕는다. 아버지는 우리가 자기만을 의지하길 바라신다. 나는 직장을 얻으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앤소니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즈음 서부 인도에서 왔다. 지금 조부모님들은 우리와 함께 이사를 왔다. 몬세랏 캐리비언 섬에 있는 집이 화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나의 삶은 멈춰있다. 요리하고 빨래하고 개인생활이 전혀 없다. 우리 집에 오면 기침 연고와 발 냄새 같은 것이 날 것이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파엘

외할머니는 세 살 때부터 나를 기르셨다.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할머니의 가족과 유산을 아버지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어머니의 가족은 1960년대에 쿠바에서 왔다. 그들은 자유의 전사로 알려진 쿠바에서 넘어온 세 개의 큰 이주자들 중 하나였다. 그들은 국가 지도자, 카스트로(Castro)에 대항했다.

사라

나는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났다. 언제나 미국에 오는 꿈을 꿴다. 그리고 5월 6일 그 꿈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보다 나는 완전한 가족이 없어서 슬펐다. 아버지는 내가 두 살 때 어머니와 나를 떠났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미국으로 먼저 간 것이다. 10년 후에 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났다.

나의 행복은 학교이다. 집에 가면 나는 외롭다. 내 머릿속은 친구들 생각뿐이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란 남편이다. 나는 학교를 졸업해서 나와 가족의 자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카리나

우리가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으로 온 이유는 우리 조국의 정치가 불안하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토박이이거나 그곳을 방문 했던 사람이라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중의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작은 나라의 해변과 황혼, 과일 나무, 문화는 정말 멋지다.

그 곳에는 여기처럼 도시와 시골이 있다. 엘살바도르 토박이는 인디언이다.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과 같다. 그 때 그 나라를 기독교화하고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스페인 정복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엘살바도르 원주민들과 결혼하기도 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피부색이 스페인 사람처럼 하얗기도 하고 몰라토(흑백혼혈아)처럼 더 검기도 하다.

텔리아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십대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오셨다. 나의 자매들과 오빠와 나는 여기서 태어났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더 좋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나는 동정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으며, 정신을 집중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시인이며 아마도 작가가 될 것이다. 나는 학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대학은 갈 것이다.

제시 브리온즈

텍사스, 교사 아카데미

텍사스주, 히달고 카운티의 도나, 나의 고향은 원래 1834년 5월 19일 멕시코 타마울리파스 주(州)가 리노 카바조스에게 수여한 영토에 있다. 카바조스 가(家)는 최소 20년 동안 그 땅에 살았고, 그 자손이 20세기 까지 그 곳에서 계속 살았다.

처음으로 알려진 영미계 정착자는 존 웨버였다. 그는 과거에 노예였던 아내 실비아와 함께 1839년 이 곳에 정착했다. 웨버 부부는 다른 인종 끼리 결혼한다는 박해를 피해 이곳으로 왔다.

토마스 제퍼슨 호스와 함께 북부 주에서 온 몇 개의 가정이 이 지역에 정착했다. 그는 1900년에 로어 리오 그랜드 벨리에 도착했고, 땅을 사고 스물 한 살 된 이혼한 딸 도나에게 그 땅의 일부를 주었다.

알렉산드리아 아길라

뉴욕 모리스 중학교

나는 열 세 살이다. 내 취미는 그림그리기와 발레하기이다. 종교는 몰몬교이다. 나는 교회 가지는 않지만 모든 몰몬경을 읽는다.

나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부모님은 칠레 태생이다. 나는 7 남매 중에 막내다. 우리는 모두 어렸을 적에 칠레에 갔었다. 아직도 그 때를 기억한다. 여행, 음식 그들의 풍습, 돌이 많던 길. 부모님은 그 나라 문화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나도 언젠가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요리법

소파이피아 만들기

알렉산드리아 아길라

뉴욕, 모리스 중학교

재료:

밀가루 5파운드

베이킹 파우더 1 ts

호박 한개 반 (싱싱한 호박을 작게 깎둑썰기 한다.)

라드나 쇼트닝 1/4파운드

소금 약간

옥수수 기름

만드는 법:

평평한 상 위에 밀가루를 붓는다. 베이킹 파우더와 라드를 넣는다. 다듬은 호박을 냄비에 넣고 끓인 후 얼마 동안 식힌다. 식힌 호박을 밀가루를 혼합한 것에 넣고 손에 달라붙지 않을 때까지 상 위에서 잘 반죽한다. 반죽을 밀방망이로 납작하게 민다. 둥근 모양의 컵으로 분을 뜬다. 요리할 때 부풀지 않도록 각 분을 포크로 세 번씩 찢어준다. 프라이팬에 옥수수기름을 붓고 둥근 분이 바삭해질 때까지 튀긴다. 종이 위에 놓고 기름이 빠지게 하고 툭툭 두드려 마르게 한다. 차, 커피 또는 코코아와 함께 낸다.

에세이: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

더렉

워싱턴, 바손 섬, 바손섬 고등학교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누구이든,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는 것은 평범한 것이며 미국적인 것이다. 나는 미국인을 묘사할 내가 아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좋다. 그 말은 곧 나에게 한 사람을 그저 선택해서 외국인에게 “미국인”이라고 보여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의미와도 같다.

현대의 미국인들은 체형과 배경 특히 성격에 있어 아주 다양한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성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깊이 들여다보기

가이아나에서 온 15살짜리 소녀 샤즈나와의 인터뷰

가이아나는 남아메리카의 북부 해안에 있으며, 그 대륙에서 유일하게 영어만을 사용한다.

상상해보세요. 코코넛으로 돌아가는 삶 말이에요. 고향 사람 대부분이 코코넛 열매를 따서 코코넛 기름을 만드는 일자리를 찾아요. 어떤 사람들은 벼를 심어 돈벌이를 하기도 하지요.

아버지는 코코넛을 따어요.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서 특수 칼을 가지고 열매를 따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옥신거리는 몸으로 집에 온다고 말했어요.

형은 아버지가 정부에 불만을 털어냈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아버지에게 문제가 됐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관련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아버지가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감옥에 가게 되었지요. 그것 때문에 나는 무서웠어요. 아버지는 풀려났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나는 몇 살 안 된 어린 아이였지요. 우리 집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집안에 있었던 일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말하는 법이 없어요. 몇 세대 전에, 심지어 백 년 전에도 언제 우리 조상들이 인도 동부와 아시아에 살았었고 그 다음에 언제 가이아나로 왔는지 몰라요. 많은 동부 인도사람들이 이렇게 이동 했어요. 우리 마을을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동물 돌보기

우리 부모님은 아들 여섯과 나까지 아이가 일곱이에요. 가끔 남동생들이 나에게 물어봐요. “샤즈나, 어른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싫으면 어떻게 해야 해?”

“그냥 참아” 예전에는 이것이 나의 최선의 대답이었어요.

가이아나에서 우리는 공립학교에 다녔어요. 그러나 여전히 교복을 입어야 했죠. 여학생은 긴 파란색 치마에 하얀 셔츠, 남학생은 파란 색 바지에 흰 셔츠를 집어넣고 입었어요.

나와 동생들은 질긴 천으로 책가방을 만들고 흰 비닐 식탁보로 안감을 땀죠. 학교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방에 책과 신발을 넣어요. 교장 선생님이 문을 잠그려고 학교 정문 앞에서 서 계시곤 했어요. 종종 내가 지각할 때는 교장 선생님께 동물을 먼저 돌보다 보니 늦었다고 말했어요.

“나도 그랬는데 나는 제 시간에 왔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걸레로 발을 닦고는 신을 신고 학교로 들어갔어요. 교실은 칠판으로 학급을 나눈 큰 방이었어요. 우리는 나무 의자 위에 나란히 앉았어요.

여자는 세탁기

사내아이들은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요. 그냥 놀기만 해요. 나는 그게 불만이에요. 여자아이들은 부담이 두 배거든요.

나는 집안일, 청소, 설거지, 빨래하는 것을, 그것도 손으로, 도와야 했어요. 그 말이 딱 맞아요. 여자는 세탁기라는 말. 여자는 요리도 해요. 우리 마을은 진흙으로 난로를 만들지요. 난로를 가열하려면 먼저 나무로 불을 지펴야 해요. 그 때 몸에 느껴지는 열기란 정말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엄마는 여덟 살 때까지 나를 기르셨고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아빠를 도우려고 떠났어요. 그 후로는 이모가 나를 돌봐주셨죠. 나는 이모와 사촌들, 동생들과 같이 살았어요.

나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집에 전화도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서 전화가 있는 집은 하나도 없었죠. 우리는 전화기가 있는 곳까지 가곤 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아마도 몇 달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전화하고 오면 나는 아빠사진을 보며 울곤 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죠. 엄마가 미국으로 갔을 때도, 엄마사진을 보며 울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열두 살 때, 이모가 말했어요. “샤즈나, 좋은 소식이 있어, 이제 아빠 엄마를 만나러 너랑 동생들 미국으로 간단다.” 나는 너무 좋은 나머지 부모님 사진을 보지 않았는데도 눈물이 났어요. 그 때, 나 혼자 생각 했죠. ‘나는 아빠를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엄마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어떻게 알아보지?’

이모가 말했어요. “너희들 짐 다 해서 가방 두 개를 싸야 하니까, 좋아하는 것 하나씩만 가져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가져 갈 것과 놓고 갈 것을 고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나는 노란색 옷과 흰 색 옷으로 결정을 했고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썼어요.

사자

나는 예전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옮겨갔어요. 내 미래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나요. 엄마와 아빠가 공항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남자가 내 아빠라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 때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 딸 많이도 컸구나.”

엄마가 말했어요. “가서 아빠 안아봐.”

그 때 온 가족이 부둥켜안고 울었어요.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부모님은 새로운 집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거기는 5층짜리 건물에 있는 아파트였죠. 고향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위층과 아래층으로 된 2층 건물이었어요.

나는 들어가서 집에 있는 것들을 뻘히 쳐다봤어요. 텔레비전이 있었어요. 그 물건이 텔레비전이라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텔레비전이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고향마을에는 텔레비전이 없었거든요. 평상시 전기공급도 되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마동안 전기를 쓸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수도꼭지에서 물도 나와요. 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어요.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 말이에요.

부모님은 우리가 바로 학교를 다니길 바라셨어요. 어느 월요일, 우리가 여기 온지 4일째 되던 날, 나는 학교에 갔어요. 엄마는 신호등이 있는 길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보여주고는 학교 정문에서 잘 가라고 손을 흔들어주었어요. 나는 혼자 교실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나를 보며 웃고 손가락질 했어요. 우리 문화에서 사자는 중요해요. 나는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생각하고는 내가 더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시간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도 여기와 고향 섬 사이에 다른 점들을 발견하고는 놀라요. 여기서는 매일 학교에 가야했어요. 고향에서 사람들의 삶은 자연의 일부예요. 나는 새가 우는 것, 바람이 위로 부는 것, 보름달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어떤 때는 물이 넘쳐서 바닷물이 흠길을 덮어요. 몇 주 동안 길을 건널 수 없고 그래서 학교 수업도 없어요.

나는 미국에서 익숙해져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과거의 그림자

내가 여기로 처음 와서 2년 후, ‘짤!’하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가이아나에서 온 인도 소년 발라즈를 만난 거예요. 그는 오빠의 친구예요.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우리는 서로 알게 되었어요.

우리문화와 우리 집에서는, 데이트가 허락되지 않아요. 그 아이에게 관심 갖지 말라는 소리나 들을 거예요. 부모님은 모르시지만 지금 그 아이를 몰래 만나고 있어요. 나와 결혼하고 싶어 해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화내지만 앓는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부모님을 속였어요.

나는 발라즈를 일주일에 세 번 만나요. 보통 학교를 마치면 그가 밖에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같이 먹으러 가고 얘기를 나눕니다. 내가 말했죠. “왜 인도도 부모님들은 이렇게 엄할까?”

그가 말했어요. “고향에서 그렇게 자랐잖아. 부모님들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현재를 살고 있어.”

그 때 집에 갈 시간이 되었어요. 4시가 통금시간 이에요. 직장에서 엄마가 전화를 해서 물어요. “샤즈나, 어디냐? 왜 늦는 거니?” 나는 이것저것 둘러대요.

아버지는 나와 결혼할 사람을 알아본다고 말했어요. 내가 말했죠. “그건 아빠가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만일 아무하고나 결혼하거나 그런 식으로 너를 망치면, 우리 집에서 아주 내쫓을 줄 알아. 네 큰 오빠도 중매로 결혼했다. 너도 중매로 결혼해야 해.”

고향에서는 여자가 열넷 이나 열다섯이 되면 결혼을 해요. 나는 지금 열다섯이고 결혼할 나이가 됐어요.

미국에서 너를 망치는 구나

밤마다 나는 잠을 설쳐요. 자동차 경적소리, 차와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면 나는 어떤 부모가 될까 생각해요. 너무 엄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만만하지도 않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아침에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요. 아홉 식구 모두가 욕실을 쓰려고 하기 때문이죠. 규칙이란 건 없어요. 나는 학교 가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학교로 들어갈 때 경비 아저씨들에게 얘기하고 내 사물함으로 가요.

거기가 아버지 몰래 화장을 하는 곳이에요. 사물함 안에는 거울이 있어요. 나는 윤이 나는 립스틱을 바르고 아이라이너를 해요. 가끔씩 검정이나 녹색 매니큐어를

바르죠. (집에 갈 때는 모두 지워요.)

나의 삶은 내가 어렸을 때 보다 더 복잡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친구 부모님들보다 더 엄하세요. 전화를 받거나 걸 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옷을 입지도 못해요.

“존경심이 없어!” 부모님은 말씀하세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내가 대답해요.

“우리가 미국에서 너를 망치는구나.”

옳다고 믿는 것을 따라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두 문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지만 내 마음에 충실하게 사는 것 말예요.

완벽한 미래

나는 미국의 다른 곳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요. 이 동네를 벗어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딘가에 나를 위한 일자리가 있다는 걸 믿어요.

지금으로부터 십 년 후에, 내 집을 갖고 발라즈와 살고 싶어요. 내 곁에 있는 결혼하고픈 그 남자. 나는 변호사나 그런 분야에 있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어요. 나의 미래가 아주 완벽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들여다보기

엘살바도르에서 온 40세 여성, 후아나에 대한 에세이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의 태평양 해안에 있으며,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접해 있다.

글쓴이 페티 귀자

텍사스, 교사 아카데미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미국에 간다. 보통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가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맛보기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한다.

후아나, 남편 그리고 두 아이는 전쟁 때문에 엘살바도르를 떠났다. 거기에는 매일 살인이 행해졌다. 군대가 사람들의 집을 습격하고 현 정부에 대항하는 게릴라나 혁

명주의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잡아 총살했다.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후아나는 심지어 이웃들이 살해당하는 것도 보았다. 가족의 목숨은 물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 끝에, 그들은 불법으로 미국에 도망갔다. 그 여정의 첫 단계로 그들은 배로 멕시코만을 건너야 했다. 배들은 작았고 사람들로 미어졌다. 배에 자리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영하의 물속에서 배 옆에 매달려가야 했다. 후아나와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후아나 가족 아무도 수영을 할 줄 몰랐다. 후아나의 열 살과 열 두 살 난 두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한 번은 멕시코에서 후아나와 남편은 트럭과 배로 이동을 했다. 이들은 나룻배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넜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 후아나는 오빠와 그 가족이 사는 버지니아로 가기 위해 화물 기차를 타려고 했다. 그러나 이민귀화국의 국경 수비대가 그 곳에 너무 빨리 도착해 있었다. 도망치는 동안, 후아나와 남편은 헤어지게 되었다. 후아나의 발은 부르트고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녀는 빈혈과 영양결핍에 시달렸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었다.

그녀는 텍사스 베이뷰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전쟁 중인 나라에서 왔다. 그래서 다시 돌아간다면 죽거나 정치범으로 수감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보호시설에 신청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 졌고 여기에 남을 수 있었다.

후아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녀는 자유를 얻기 위해 그 가족이 어떤 고통스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비통해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남편을 찾지 못했다.

깊이 들여다보기

오마르와의 인터뷰

자메이카에서 온 17세 학생

산이 많은 카리브 섬나라 자메이카는 쿠바 남쪽과 아이티 동쪽에 있다.

나는 슬픈 시나 짧은 글 쓰기를 좋아한다. 요전 날 나는 조상이었을 것 같은 사람을 지어냈다. 그리고 이름을 마르다라고 했다.

그녀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사형 선고

어느 밤, 불에 놀라 잠이 깬 마사는 피하려고 했다, 그러나 갑자기 자신이 다른 부족 사람들과 목이 밧줄로 엮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찬 배로 끌려가서 사슬에 묶였다, 배 안은 산소가 희박하고 배설물 냄새가 난다,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는다,

육지에 이르자, 마사는 너무도 친절한 주인에게 경매로 팔린다, 강간, 충격, 칼의 복수, 주인의 죽음, 마르다는 붙잡혀 형을 선고받는다, 사형선고였다.

이것은 노예 속박에 대한 이야기다.

실제 삶에서도 우리 고조할머니는 아프리카에서 왔다. 어느 지역인지는 모른다. 고조할아버지는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자메이카 섬에서 미래를 설계했다.

기회의 땅

나는 17년 전에 킹스톤 시에서 태어났다. 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내가 다섯 살이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며 아버지 사진 한 장도 없다.

나는 일곱 살 때까지 어머니와 살았다. 그때 어머니는 나와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왔다. 나는 어머니의 아버지 형제인 백부와 백모에게 맡겨졌다.

그 블록에 사는 모든 친구들이 나와 같은 상황이었다. 다이앤의 어머니는 해외로 갔다. 그래서 대학을 나온 후 일을 하고 있는 언니와 살았다. 샬린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샬린을 뒷바라지 하려고 미국으로 갔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캐리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영국으로 갔다. 나처럼, 캐리의 이모가 그녀를 기르기로 되었었다.

우리 모두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다. 일을 할 수 있는 곳.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 같다. 한 여자 아이가 말했다, “미국에서 혹시나 실패하면, 그냥 아이를 가져서 복지혜택을 받으며 살 거야.”

나는 어린 아이였고 엄마가 그리웠다. 이모는 불행한 여자였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 불평을 했다. 우리가 살던 곳은 작았다. 내 방은 반으로 나누어진 방이었는데 식당과 욕실 복도의 일부였다. 한 밤 중이면 언제나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걸어 다니다 내 잠을 깨우곤 했다.

계다가, 침실로 가려면 나는 이모의 방을 거쳐 가야 했다. 이모는 말하곤 했다. “오마르,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오마르, 집 안에 흠을 다 묻혀 놔구나.” 백모와 백부는 자기 자식들을 더 감싸고돌았다. 어린 동생은 나를 놀리고 형들은 나를 때렸다. 나는 어떤 때는 복수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문제를 일으켰다고 욕을 먹었다. 내가 여덟 살인가 아홉 살이었을 때,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개들이 구석에다 나를 밀었어요. 제발 나 좀 데려가줘요.”

나는 엄마가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했다는 걸 안다. 그러나 여전히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나를 돌볼 수 없었다.

삶을 꾸리는 방법: 스파키

나는 나만의 삶을 꾸렸다. 어느 날 아침 버스 정류장으로 너무 이른 시간에 걸어갔던 기억이 난다. 한 남자가 나를 보고는 칼로 위협하고 점심 먹을 돈을 빼앗았다. 또 한 번은 집으로 오고 있는데, 아이 네 명이 내 시계를 빼앗아 갔다. 나는 다짐했다. ‘이런 일들을 혼자 이겨내야 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나에게는 어떤 영웅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했다. 내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면, 나는 더 잘 해내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르는 물고기와 같은 경우다. 나는 여가 시간에 물고기를 기르기로 했다. 나는 고기 하나 하나에 대한 기록파일을 만들었다. 만일 물고기 한 마리가 아프면 나는 아픈 고기를 기록해 놓고 치료를 위해 내가 한 일을 적었다.

어떤 번식기에는 내가 가진 물고기가 5000마리 이상이였다. 나는 새끼들을 많이 애완동물 가게에 가져가 펌프나 물고기 먹이와 교환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전자리 상어, 복슬복슬한 큰 꼬리를 가진 수컷이었다. 나는 스파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스파키가 헤엄쳐가는 곳에는 다른 물고기들도 따라갔다.

리차드와 아스트란

집에 있을 때나 거리에서 나는 자메이카 사투리를 썼다. 학교에서는 영어를 써야 했다. 나는 내 친구들, 리차드와 아스트란을 찾곤 했다. 우리는 아침을 같이 먹었다. 나는 코코아와 약키 살피쉬가 들어간 빵을 먹는다. 여기서는 대구 자반이라고 부르는 것 같다. 어떤 날은 나는 죽을 먹거나 아니면 찬 시리얼과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리차드는 우리 반에서 두 번째로 똑똑한 아이였다. 그는 멋지고 인기가 있었다. 그는 섬의 다른 지역에서 왔다. 킹스톤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일찍 일어나야 했다. 다섯 시에 집을 출발하고, 거기서 킹스톤까지 버스를 타고 다시 다른 버스로 갈아탔다. 아스트란은 머리가 제일 좋은 아이였다. 그는 탁월한 학생이었다. 나는 일곱 번째 썸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공부에서 경쟁을 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스포츠에서 더 그런 것 같아 보였다. 우리는 미식축구는 하지 않았다. 축구와 농구를 했다. 나는 두 개를 다 했다.

학교는 세 개의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미술, 비즈니스, 과학. 중학교 3학년을 시작하면 모든 과정을 다한다. 15과목이다. 매일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다. 그리고 다른 과목을 다른 날에 듣는다. 늘 있는 과목은 두 개 뿐인데 수학과 영어이다.

월요일마다 우리는 예배가 있었다. 전교생이 강당으로 갔다. 그것은 영국 성공회 예배였다. 감독교회와 같은 것이다. 학교는 공립학교이다. 그러나 자메이카에서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한다면 학교에서 기도해도 괜찮다.

종종 나는 엄마와 다시 같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엄마는 전화를 할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를 위해 거기 함께 있던 때가 무엇보다 가장 그립구나. 내가 학교를 마치면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완전한 충격

나는 고향으로 돌아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며 지난 여름에 미국에 왔다. 엄마는 시민권을 막 받은 때였다. 8월 말, 어느 밤에, 엄마가 말했다, “오마르, 너는 자메이카로 돌아가지 않아.”

그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을 했다. ‘이건 꿈이야.’

나는 10년 후를 위해 계획한 일들이 있었다. 친구들과 졸업을 하고 싶거나 그런 일들 이었다. 다음날 엄마에게 말했다. “왜 오기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에야 그 생각을 했어. 하지만, 네 마음을 이해해. 일주일 정도는 고향에 다녀와도 돼.”

학교가 끝나고 나서야 나는 겨우 친한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내가 살던 거리로 내려갔다. 다이앤, 샬린, 캐리. 캐리는 내가 엄마와 살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고 하니까 울었다. “여기, 스파키를 받아줘,” 내가 말했다. 혹시나 그녀가 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까하는 하는 마음이었다. 나는 나머지 물고기들을 애완동물 가게로 가져갔다. 나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

내가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나를 인종과 상관없이 선발하는 ‘우량 고등학교’에 넣으려고 했다. 엄마가 말했다. “사람들이 거기가 자메이카 소년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교라고 말하더구나. 가장 가까운 학교에다 너를 넣어 줄 거야.”

“거기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학교예요,” 내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배정된 학교에 다녔다. 학교를 처음 가던 날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뭘 물어보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었다. 다른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쓰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랑으로 감싸진

나는 친구들이 그리웠다. 나는 전화료가 200달러가 될 때까지 친구들과 통화를 했다. 나는 무엇이든 다 얘기했다. 축제가 하나 있었다. 아프리카 말로 존카누(johnkanoo)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옷을 잘 차려입고 거리로 나가 춤을 추며 어린 아이들을 놀래 킨다. 한번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놀래서 도망가던 일을 생각하며 같이 웃었다.

수상을 뽑는 선거가 진행 중이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 친구는 선거가 아무 탈 없이 진행이 되었다고 했다. 나는 두 나라 사이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재보려고 했다. 자메이카에서 내가 유일하게 관심을 받았을 때는 아팠을 때였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안아주는 것은 없었다. 여기 미국에는 새 아빠를 비롯해서 좋은 가족이 있다. 아빠는 더 바랄 것 없이 좋은 사람이

다. ‘하지만 친구가 없잖아.’ 나는 혼자 생각을 했다.

그럼에도 나는 지난 시간들 속에 늘 엄마를 그리워했었다. 엄마는 나를 사랑으로 감싸신다. 여기에 부드럽게 놀려대는 엄마가 있다. 나는 엄마와 엄마가 해 놓은 일들이 자랑스럽다. 엄마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한다.

모래 위의 발자국

나는 여기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다. 나는 숙제를 안 하는데 왜 또 기회가 주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메이카에서 숙제를 안 한다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모욕이다. 그건 그렇고, 여기에서 나는 수학의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내가 전에 가졌던 장래 희망인 해양 생물학자가 아니다. 나는 학교에서 잘해내고 있다.

나는 내 방이 있다.

나는 내 방문을 닫을 수 있다.

나는 사생활이 있다.

나는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내 음악과 내 랩, 대안음악, 칼립소, 레게, 소카, 락앤롤을 들을 수 있다.

벽면 하나에는 줄리어스 어빙(Julius Irving)의 포스터가 있다. 다른 벽면에 두 개의 포스터가 더 있다. 하나는 아프리카 포스터로 ‘지식은 미래다’라고 쓰여 있다. 두 번째는 모래 위의 발자국에 대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한 여자가 예수님과 해변을 걷는 꿈을 꾸었다. 그녀는 모래 위에 난 그녀의 발자국과 예수의 발자국을 보았다. 그 후에 그녀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단지 한 쌍의 발자국만을 보게 되었다. 그녀가 하나님께 왜 한 쌍의 발자국 밖에 없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했다. “그건 네가 힘들어 할 때에 예수가 너를 업고 가서 그런 거야.”

지금 다시 한 번 내 삶의 모래 위에는 두 쌍의 발자국이 있다.

깊이 들여다보기

토로와 알렌과의 인터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15세 소년들

도미니카 공화국은 카리브 해의 국가로 아이티와 히스파니올라 섬을 공유하고 있다.

토로:

나는 도미니카 사람이에요.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태어났어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백인 중에는 처음으로 이 섬에 왔었어요. 그때가 1492년이죠.

알렌:

그 당시에는 원주민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콜럼버스는 거의 모든 원주민을 죽였어요. 그 후로 더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올 때 아프리카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과 스페인 사람들이 결혼해서 나와 같은 인종이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 점을 알아두셨으면 해요.

나의 화신

토로:

미국에 오기 전에,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 남동생과 살았어요. 동생은 열네 살, 나보다 한 살 어려요. 우리는 싸울 때도 있지만 친하게 지낼 때도 있어요.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워요. 우리 할아버지는 특히 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여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이발소에 머리를 하러 오는 판사를 대하는 것과 똑같이 거리 구석에 있는 술주정뱅이 노인을 대해요. 친절함으로 대하죠.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아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

요. 분노에 휩싸일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반대였어요.

할아버지는 정원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나는 할아버지를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같이 잡초도 뽑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시곤 했어요. “교육은 중요하단다.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해야 해. 노는 건 그 사이에 조금만 해라.”

우리는 평평한 지붕에 베란다와 방이 많은 집에 살았어요. 매일 잠자리를 만들고 할머니를 도와야 했지요. 할머니는 가족과 종교에 헌신적인 분이예요. 우리는 카톨릭 신자예요. 할머니는 말씀하시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단다. 토로, 아무도 네 머리에 총을 대고 위협하지는 않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할머니 말씀은 듣지만 늘 귀담아 듣지는 않았어요.

알렌:

나는 카톨릭 신자예요. 하지만 심령술도 믿어요. 도미니카 정부는 그 종교를 좋아하지 않지만 나는 내 옆에 언제나 나를 보호하는 영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수도산토도밍고에 살았어요. 집에는 형 두 명과 자매 한 명이 같이 살았죠.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말했어요. “너희들과 가족 뒷바라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뉴욕으로 가야 해. 돈을 많이 모으면, 데려갈게.” 나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어요. 엄마는 돈을 보냈어요. 하지만 전과 같지 않았어요. 형이 대신 집안 규칙들을 정했거든요. 나는 형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멀리 자전거를 타고 나가곤 했어요.

가끔씩 내가 늘 외로웠었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래도 내 자신에게 얘기하죠, “내 삶은 완전하지 않아, 맞아, 누구의 삶이 완전하겠어?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해, 그게 중요한 거야.”

남자가 보스

토로: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대장이에요.

알렌:

그리고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같이 살 수 있어요.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고 남자는 일하고 가족에게 돈을 벌어서 주잖아요.

토로:

하지만 남자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들은 반쪽짜리 남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족을 떠나지요. 나도 친아빠의 이름만 알아요. 하지만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알렌:

아빠는 엄마를 여러 번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보지도 못한 이복자매가 여섯이고 이복형제가 여덟이에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있지요. 가족들은 산토도밍고와 뉴욕시티를 왔다 갔다 했어요. 내 자신에게 말했죠.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토로:

엄마는 아마도 2주에 한 번은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우고 싶어요,” 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에게 친구 라몬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친구는 두 집 건너에서 할아버지와 살았어요. 그는 언제나 사람을 압도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라몬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다녔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토로, 그 친구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그러기도 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내가 사고 친다고 말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내 손자 갖고 뭐라고 하지 마시오. 착한 아이라 잘 이겨낼거요.” 할아버지는 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실망시키면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난 할아버지에게서 용서를 배우고 싶어요. 그게 어려운거잖아요.

우리 엄마 그러나 낯선 사람

토로:

올해 도미니카 독립기념일 2월 27일,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말했죠, “토로, 너와 형의 서류와 여권을 준비하는 중이야.”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진짜 함

께 지내는 시간이었어요. 엄마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낮은 사람이기도 해요.

엄마는 삶에 허덕이고 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많은 일을 하지요. 엄마는 거리에서 꽃도 팔았었고 사탕수수도 팔았어요. 다른 사람 아이들을 돌보는 일도 했었어요.

알렌:

엄마는 5년 간 일했고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복지혜택으로 생활을 그럭저럭 꾸려나갔어요. 지금은 다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뉴저지에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해요. 우리는 이 일에 감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기 까지 시간이 많이 들지만 그 일을 해요. 엄마는 혹시나 공장 문이 닫혀 섬으로 옮겨갈까봐 걱정해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옮기게 되면 그곳에선 사람들이 돈을 얼마 못 받고 일을 하거든요.

워싱턴 하이츠

토로:

알렌과 나는 학교에서 만났어요. 우리 둘 다 밥, 콩, 닭고기를 좋아해요. 전통 음식이죠. 그리고 삶은 초록 플란테인과 계란 후라이, 베이컨, 햄도 좋아해요. 플란테인은 바나나랑 비슷해요.

알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워싱턴 하이츠라는 뉴욕시티 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여기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우리는 어느 가게에 가든지 스페인어를 쓸 수 있어요. 나는 방과 후나 주말이면 할인점에서 일해요. 돈을 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집에 온 청구서들을 지불하는 걸 도와드려야 하거든요.

토로:

엄마는 마약과 깡패들을 두려워해요. 어떤 아이가 하루 밤에 50달러와 대마초 사분의 일 봉지를 받고 한 남자를 운전해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아이는 버거킹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대요. 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매일 밤 싸움으로 끝나

잖아. 어떻게 사람이 코앞에서 죽는 걸 보면서 감당해낼래?”

그가 말했어요. “구역질나는 소파에서 잠을 자기 전에, 나는 빨리 돈을 벌고 싶어. 그리고 여자 친구는 내가 사주는 물건들을 문제 삼지 않거든.”

나는 예전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집 지붕 위에서 등을 대고 앉아 있는 꿈을 꾸요. 라디오와 맥주 한 병이 있다면 가지고 가서 나 자신을 위한 파티를 하죠.

알렌:

나무에서 망고와 오렌지, 레몬 같은 과일을 어떻게 잘 따는지 기억하나요?

토로:

한 번은 지붕 위에서 마실 레몬에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냥 설탕만 사면 됐거든요.

알렌:

미국의 제일 좋은 점은 살아가는 데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엄마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는 늘 세상이 지금과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거나 우리나라에서 통역사가 되고 싶어요.

토로:

나는 고등학교를 마치면 파일럿이 되고 싶어요. 뉴욕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언제나 할 일들이 있지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요.

멕시코 이야기 5

문화의 풍요로움

이민자가 두고 가는 문화의 풍요로움을 한 사람의 목소리로 표현할 수는 없다. 이번 장에서 텍사스, 에든버러의 교사 아카데미의 1학년 학생들이 기록한 사실들과 느낌들이 나와 있다. 그들은 단지 미국 국경의 이편에 살고 있으며 이웃한 나라 멕시코에 대한 그들의 유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멕시코 사람들은 미국의 가장 많은 이민인구를 이루고 있다.

짧은 이야기

에리카 야네스 메디나와 에이 제이 빌라리얼

에이 제이 빌라리얼 그림

교사 아카데미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도, 지금은 멕시코라고 알고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았었다. 톨텍과 마야처럼 진보된 문명이 새로운 왕조, 아즈텍이 지배하여 그 땅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력을 넓히던 1300년대까지 번영했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

1521년, 아즈텍 왕조를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부족들이 합세하면서 헤르난도 코르테는 그 강력한 왕조와 싸워서 이겼다. 그 이후로 이 나라는 혼합과 두 문화 -- 인도인과 스페인인- 간에 늘 쉽지만은 않았던 결혼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루스 곤잘레스

교사 아카데미

그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루스와 헤르미나 곤잘레스가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오면서부터 이다. 그러면서 가족이 만들어졌다. 그들의 큰 딸은 돌리아이다. 돌리아는 그녀의 인생의 전부인 알프레도 프레디라는 외아들을 가진 어린 여자였다.

곤잘레스 가족과 프레디 마저도 이주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미국 라틴아메리카

계인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식량을 얻기 위해 땅을 경작했다. 텍사스의 에든버러
고등학교에서, 프레디는 축구실력으로 유명해졌다. 그는 언제나 열심히 일했고, 목
표를 많이 세우고 그것들을 이루어냈다. 1965년에 졸업한 후에 그는 미 해병대에
입대를 했고 베트남으로 파병 되었다. 그는 두 번째로 베트남에 다시 갔는데 베트
남 사람들을 돕고 싶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 때가 바로 그가 소대에서 사람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때였다. 일 년 후에 프레디는 명예 훈장을 수여받았다. 1996
년 미국은 군함 하나를 미국해군 곤잘레스라고 이름 짓고 취역시켰다. 그는 영웅이
다. 비록 가족의 뿌리는 멕시코 문화에서 나왔지만 그는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
쳤다. 프레디는 나의 친척이었다.

트윌라 조세피나 스플레인 차베스

교사 아카데미

우리 아버지는 미국 백인이고 어머니는 멕시코인이다. 아버지는 위싱턴 주에서 오
셨고 독일과 아일랜드 혈통을 가지고 있다. 어머니는 멕시코 할리스코에서 오셨고
아즈텍과 스페인 혈통을 갖고 있다. 나는 멕시코의 중심인 과나후아토에서 태어났
고 내 이름에 할머니 두 분의 이름이 있다. 나는 금발 머리에 푸른 눈과 하얀 피부
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의 외모는 어머니와 비슷하다. 누구나 내가 혼혈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안과 밖을 뒤집어 놓은 오레오 과자라고나 할까!

내가 네 살 쯤 되었을 때, 아빠가 상선에서 일하게 되어서 우리는 텍사스 샌베니
토로 이사 왔다. 그곳은 아주 작은 마을로 낮에는 고요했지만 밤에는 얘기가 다르
다. 일종의 아수라장이 되었다.

샌베니토에는 스페인어 통용지역이 많이 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큰 지역인
라팔마에 살고 있다. 처음에 나는 외모 때문에 거기서 사는 것이 힘들었다. 몇몇 사
람들이 백인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단 나를 알게 되면 그 사람들의 태
도는 바뀌었다.

여기서 골칫거리는 범죄조직이다. 한 스페인어 통용지역은 다른 지역과 반다나
스카프 색깔로 구분한다. 그리고 한 지역에 속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다. 한 지역에서 자라면 거기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곳에서 착실히 보낸다.
아직도 라팔마에서는 콜롬비아의 전통 음악 소리와 타코 자딘 식당의 아침메뉴 타

코스의 구미를 당기는 향에 잠을 깬다. 사람들은 차대를 낮춘 차를 몰고 다니고 파티를 즐기며 가족과 친구가 긴밀하게 얽혀있다.

오마르 몬탈보

교사 아카데미

나는 연재만화를 그렸다. ‘레이노자에서 탈출’. 주연은 할아버지의 부모님과 ‘판초 빌라(Pancho Villa)’이다. 판초 빌라는 조부모님의 귀중품을 훔쳤던 유명한 노상강도였다. 조부모님들은 안전을 위해 텍사스로 이사 가야 했다. 여기 해피엔딩이 있다.

-만화그림

롤란도 로드리게스

교사 아카데미

아버지는 멕시코의 허름한 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멕시코의 병원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신다. “우리 어릴 때는 요즘 아이들같이 풍족하지 않았지.”

결국 아빠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미국으로 왔다. 그는 자동차를 고치는 기계공 일을 했다. 엄마는 가정부 일을 했다. 운이 좋으면 5달러를 벌었다.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한다. “우리 둘 다 이 길이 힘들었고 돈도 많이 들었어. 그리고 우린 라틴 아메리카계의 피를 가진 것이 기쁘다. 하지만 아들아, 네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아주 자랑스럽다.”

리카르도 라미레즈

교사 아카데미

나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텍사스 파(Pharr)에 산다. 우리 외가의 친척들 대부분이 멕시코에 살고 있다. 내 동갑내기 15살짜리 사촌 한 명이 최근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나는 멕시코의 시골에 있는 학교생활은 어떤지 알아보려고 내 사촌을 인터뷰 했다. 우리 둘 다 1994년에는 6학년이었다. 우리가 사는 두 집 사이의 거리는 100마

일도 안 되지만 우리의 다른 점은 두 사람 사이에 바다가 놓인 것처럼 정말 크다.

사촌은 아침 다섯 시면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일어나서 옷을 입고 아침 허드렛 일을 한다. 돼지와 닭, 양에게 먹이를 준다. 그리고 나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고 그 날 하루 쓸 것을 통에 채운다. 그 다음에 숙제를 끝내고 교복을 입는다. 그리고는 아침을 먹고 걸어서 학교에 간다.

학교는 아침 8시에 시작한다. 사촌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손톱과 귀, 머리 검사를 한다. 선생님이 이나 더러운 이물질이 발견하면,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 보내고 학생들은 깨끗이 한 후에야 돌아올 수 있다.

그 검사를 받으면 학생들은 국가를 부르기 위해 서 있고 선생님은 출석을 부른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여자아이들은 정원을 손질하러 가고 남자아이들은 학교 뒤에 있는 텃밭에 간다. 그 곳에서 작물을 기르곤 한다. 이 일이 끝나면 학생들은 손을 씻고 교실로 간다.

교실은 아이들로 꽉 차 있지만 에어컨은 없다. 무더운 날이면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은 밖에서 한다. 화장실은 학교 뒤에 있다. 중앙에 구멍을 낸 나무 판들을 깔아 놓았다. 나무 판들 밑으로 쓰레기를 모아둔 땅에 깊은 구덩이가 있다. 그 구덩이가 쓰레기로 가득 차게 되면 구덩이를 덮고 나무 판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

오전 수업이 정오에 끝나고 학생들은 점심을 먹으로 집으로 간다. 이 때 선생님은 아이들을 몇 명 불러 뒤에 남아 교실을 정리하라고 한다. 청소부는 없다. 한 시가 되면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오고 다시 검사를 받는다. 수업은 4시까지 한다.

학교수업이 끝나면 사촌은 집에 와서 다시 가족들에게 먹이를 준다. 그리고 집 청소도 한다. 그런 다음에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하고 목욕을 한다. 8시가 되면 잠을 자고 다음 날 일어나 같은 일상을 시작한다.

요리법

로버트 위즈너

교사 아카데미

텍사스 남부와 캔자스 시까지 소몰이길을 따라 긴 소 떼를 모는 동안 카우보이들은 바비큐를 먹었다.

소몰이대장은 주로 스테이크를 먹고 멕시코인들은 파히타(양념한 고기)를 먹는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소몰이 대장은 파히타의 맛을 보고는 스테이크보다 파히타를 더 즐겨먹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파히타 요리법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졌다. 파히타는 야외 파티의 주 메뉴이다. 우리 가족 요리법의 하나는 이모가 전수해 주었는데 ‘판치타 키타닐라 아파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텍사스 남부식 파히타 만드는 법

양념장

간장 1컵
AI 고기용 소스 작은 병 1개
2 오운스 식육연화제 1 병
레몬 후추 1ts
8 오운스 마요네즈 1병
겨자 1ts
레몬즙 1/2 ts
타바스코 소스 몇 방울(선택)

재료들을 큰 그릇에 넣는다. 마요네즈가 녹고 재료들이 잘 섞일 때까지 젓는다.

고기 준비

도마에 고기를 놓고 잘 드는 칼로 지방 부분을 모두 제거한다. 고기를 잘게 썰거나 아니면 두께 1인치, 길이 8~9인치로 결을 따라 수평으로 얇게 썬다. 얇게 썬 조각을 양념장에 넣는다. 손으로 잘 섞는다. 그리고 뚜껑을 덮어 냉장고에 2~3시간 정도 둔다.

불 조절

숯이 회색빛으로 붉게 타오를 때 까지 태운다. 남미산 메스키트 숯은 훈제의 맛을

낸다. 온도는 화씨 350도를 유지한다.

요리하기

파히타를 석쇠에 놓고 표면이 희게 되도록 익힌다. 파히타는 한 번만 뒤집는다. 고기가 갈색 빛을 띠면 내놓는다. 얇게 썬 양파를 석쇠에 두면 향을 더한다.

고기를 따뜻한 토틸라--밀가루나 옥수수 반죽으로 구운 부침개--위에 얹는다. 상추, 토마토, 채 썬 양파에 아보카도 소스 한 숟가락을 놓아 타코--토틸라에 고기와 야채를 넣은 썸--이 된다. 핀토콩과 스페인산 쌀밥과 함께 낸다.

에세이: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

아렐리아 몬탈노

교사 아카데미

나는 미국인이다. 처음에 나는 내가 가진 라틴아메리카계 유산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주 당당했다. 우리 부모님은 어머니는 칠레, 아버지는 페루,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오셨다. 형은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났다. 막내 동생과 나는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서 태어났다. 나는 정확히 십 이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

나는 부모님들이 부끄러웠다. 그 분들은 영어도 잘 몰랐고 그래서 내가 통역을 해야 했다. 나는 통역하는 것이 정말 싫었고 부모님이 불만스럽기도 했다. 나는 가끔 스페인어를 모른다고 했고 내가 스페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창피하기까지 했다.

그때 부모님은 우리가 리오그란데 계곡에 있는 텍사스 산호세로 이사 간다고 했다. 나는 화가 났다.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많은 학생들이 스페인어를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사람들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지?’ 이 계곡에서 산 지 3년이 흐른 지금, 나는 스페인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아니 최소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부모님과 의사소통을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부모님을 도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멕시코 친구들과 멕시코계 미국인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고 그런 흥미로운 배경을 가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가진 유산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포크 로 리코(FOLKLORICO)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진 이야기들은 또한 문화의 한 부분이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이 가르친 것은 대개 포크 로 리코라는 전래 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우리 가족의 두 개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종교와 신앙

후안 디에고와 과달루페의 성모 마리아

제니 가이아자르도

교사 아카데미

스페인이 멕시코를 정복했을 때, 스페인 성직자들은 원주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생각 했다. 1500년대 중반, 그들은 겸손한 인도 소년 후안 디에고에게 세례를 주었다.

후안 디에고는 그 마을에서 나무를 파는 나이 든 삼촌과 살았다. 어느 날 삼촌이 병에 걸렸고 후안에게 신앙고백을 하고 장례식을 할 수 있도록 대주교를 모셔오라고 했다. 디에고가 푸에블로 족에게 가는 길에, 과달루페 성모 마리아가 테페약 산 기슭에서 그의 앞에 나타났다.

“아들아, 어디 가느냐?”

“삼촌이 대주교를 모셔 오라고 했어요.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라, 아들아. 너의 삼촌이 이미 다 나왔다.”

후안 디에고는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삼촌이 다 나왔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그날 오후 후안 디에고가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 성모 마리아가 같은 산기슭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성모 마리아의 임재와 평안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

“아들아, 나의 소원은 이곳에 사원을 짓는 것이다. 푸에블로족의 교회로 가서 나의 소원을 말하라.”

후안 디에고는 성모 마리아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대주교에게로 서둘러서 대주교에게 갔다. 그러나 망신스럽게도 그를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가 왔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했다.

그는 그 산으로 되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는 세 번째로 마리아를 만났다. 후안 디에고는 있었던 일들을 슬퍼하며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하느님의 어머니이고 그녀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후안에게 산기슭으로 가서 장미 몇 송이를 가져오라고 했다.

“부인이여, 이 시기에 장미를 찾기란 불가능합니다.”

“아들아,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가능하다.”

후안 디에고는 그가 찾던 장미를 찾았다. 장미를 보여주자 성모는 장미를 대주교에게 가져가라고 했다. 그는 귀한 천에 장미를 싸고 푸에블로 족에게 가져갔다. 대주교와 다른 성직자들 앞에 섰을 때 그는 그 천을 열지 않았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마리아의 모습이 그 천에 나타나 있었다. 사람들은 그 천과 떨어진 장미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한 기적을 보여 주신 것에 감사기도를 했다.

오늘날 건축된 사원은 과달루페 성모 성당(Basilica de Nuestra Senora de Guadalupe)로 알려졌다. 이것은 멕시코 공화국의 수도에 있는 테페악 산기슭에 있다. 각 마을마다 수호성인이 있다. 그러나 이곳이 가장 유명하며 인도인 동정녀 마리아로 멕시코 전체의 어머니 알려졌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달리라 바스케즈

교사 아카데미

옛날에 마리아라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다. 소녀는 어머니와 여동생 두 명과 마을에 살았다. 그 마을은 너무 작아서 서로가 다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마리아의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을 찾기 위해 가족을 떠났다. 5년이 지나도록 아버지는 소식이 없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어머니가 딸들을 길렀다. 그러나 딸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형편이 못되었다. 아이들은 몇 개 안되는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매일 밤 마리아는 자기만의 인형을 갖는 꿈을 꾸곤 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인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게다가 앞으로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아침에 학교로 가는 길에 소녀는 시장을 지나치곤 했다. 거기서 소녀는 파는 인형과 옥수수로 만든 아주 비싼 커널인형을 바라보곤 했다. 인형들은 예쁘고 비쌌다.

어느 날 친구 후아니타가 지나가고 있을 때, 마리아는 예쁜 인형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안녕, 마리아. 우리 같이 놀자.”

“후아니타, 지금 놀고 싶지 않아.”

“아니 왜?”

“내 인형이 없거든.”

“마리아, 내꺼 빌려주잖아.”

“알아, 후아니타, 하지만 나는 내 인형을 갖고 싶어. 시장에 파는 그런 인형 말이야.”

“그럼, 나 갈래. 내일 보자.”

후아니타가 가버리자 마리아는 슬펐다. 그날 밤, 잠잘 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인형을 갖고 말거야!’

다음 날, 마리아와 후아니타는 함께 학교로 갔다. 그들이 시장을 지나가고 있을 때, 마리아는 후아니타에게 커널인형을 보여주었다.

“나 곧 저거랑 똑같은 인형이 생길거야.”

“어떻게?”

“나도 몰라, 하지만 꼭 생길거야.”

그날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마리아는 몰래 빠져나와 시장으로 갔다. 갑자기 그녀는 목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도둑질은 나쁜 일이며 그래서 도둑질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엄마가 말하던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도 도둑질이 나쁜 일인지는 알아, 하지만 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를 거야.’

마리아는 살금살금 가게 창문으로 다가가서는 문을 열었다. 그녀가 막 들어가려고 하자 뭔가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보았다. 고양이였다. 마리아는 깊게 한 숨을 내쉬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커닐인형을 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정오, 마을 전체에 도둑 소식이 퍼졌다. 그 소식을 들은 후아니타가 마리아의 집으로 왔다.

“마리아, 마리아, 너 그 인형 훔친 거 아니지, 그렇지?”

“무슨 인형?” 마리아가 물었다. “그럼 아니지!”하며 한 소리를 더했다.

“글쎄, 어젯밤 누군가 가게에서 커닐인형을 훔쳐갔데, 그것도 완전히 옥수수 알갱이로만 만든 거 말이야. 그건 팔지도 않는 거래.”

“아마 그냥 잃어버린 거겠지.”

“마리아, 주인이 그러는데 창문들을 닫았었는데 돌아가 보니 하나가 열려 있었대.”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왜 창문은 닫지 않았대?”

“마리아! 여기서는 다들 아는 사람들이야.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잖아!”

“그 사람들 도둑에게 어떻게 할까?”

“나도 몰라.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더 듣지 못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큰일 났어.”

후아니타가 집으로 간 후, 마리아는 두려워졌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인형을 숨겨야 한다는 것은 알았다. 가족이 다 잠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뒷마당으로 나가 인형을 묻었다. 인형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리아는

안심이 되었다.

겨울이 오고 비가 많이 내렸다. 봄이 오자 커닐인형은 옥수수 밭에서 인형모양을 하고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곧 마을 전체가 누가 인형을 훔쳤는지 알게 되었다. 그녀가 처했을 상황을 생각해보라.

자, 독자 여러분, 마리아처럼 도둑질을 절대 해선 안돼요. 여러분이 읽은 것을 기억 하세요.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죽은 자의 날

조 앤 페레즈

교사 학교

멕시코 사람들에게 죽음은 원주민의 전통에 뿌리를 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기억되고 존경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일 년에 한 번 11월 1일과 2일, 우리는 거룩한 날, 즉 죽은 자의 날을 기념한다. 이 축제는 스페인 정복 시대 이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믹스퀵 마을에서 유래한다. 믹스퀵은 ‘죽음’ 또는 ‘구름과 가깝다’라는 뜻이다.

그 날은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기념행사와 음악, 음식으로 이어진다. 가족들은 사탕과 꽃 같은 선물을 고인들에게 바치기 위해 묘지로 간다. 밀가루와 약간의 양념을 넣어 만든 죽은 사람의 빵이라는 것을 고인이 먹도록 무덤에 둔다.

가족들은 죽고 없는 친척을 위해서 사당을 세운다. 거기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다. 가령, 아끼던 소지품들, 좋아하는 노래, 종종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이나 정장들이다. 가족들과 찍은 고인의 사진들이 고인의 장신구와 함께 전시된다. 죽음과 빠는 떠나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되살리는 무대의 인물처럼 보인다.

그 날은 종소리를 더 많이 울리며, 기쁨과 사랑과 단란함 속에 끝을 맺는다. 이것이 바로 삶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 보다 더 숭고한 목표가 없다는 미국 라틴아메리카계 사람들의 믿음이다. 그리고 특히 이 이틀 동안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 죽음과 삶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다.

멕시코 전통 민간요법

멜리사 갈변

교사 아카데미

멕시코 가정에서 민간요법은 숙취해소를 위해 내장 스프를 먹는 것에서 치료 목적으로 약초 쓰는 것까지 혼한 일이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이 가지고 와서 구전으로 전해졌다.

거미줄

이것은 벤 상처의 피를 즉시 멈추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 거미줄을 구해서 작은 공 모양을 만들어 상처 위에 놓는다. 몇 초 안에 상처가 훨씬 나아질 것이다.

두려움 치료

이 방법은 두려움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침대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눕는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몸 위로 이불을 덮는다. 그리고 그들은 빗자루를 가지고 기도 하면서 당신의 몸을 쓸어내리는 흉내를 낸다. 빗자루를 당신의 머리 위에 놓고 다시 기도를 한다. 그리고 난 후 이불을 치우고 당신에게 물 세 모금을 마시게 한다. 그리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한다. 이것을 3일 연속으로 한다. 그러면 당신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알로에 베라

이것은 화상을 치료하는데 좋다. 먼저 알로에 베라 화분에 가서 알로에 하나를 떼어낸다. 그리고 알로에를 화상 부위에 얹는다. 이것은 물집이 생기지 않게 해 준다. 종기가 나지 않도록 알로에 베라를 네모 모양으로 자르고 거즈 형질 위에 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하룻밤 동안 종기 위에 얹어 놓는다. 이것이 종기의 이물질들을 빨아들이고 없앨 것이다.

올빼미는 치료자의 상징이다. 그림 에이미 오스틴(Amy Austin)

15세 성인식(퀸세아네라)

성대한 축하 행사

교사아카데미의 많은 학생들이 15살이 되는 소녀를 축하하는 퀸세아네라 전통문화에 대해서 썼다. 다음은 그 내용들을 발췌한 것이다.

멜리사 모레노

교사 아카데미

오랜 멕시코 전통에서 소녀는 이 날을 맞이하기 전에 여자아이는 화장을 하면 안 되며, 다리의 털을 깎거나 교제의 의미로 이성과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큰 축하 행사이기 때문에 최소 2천 달러에서 5천 달러정도의 비용이 든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다. 그 사람들은 대개 대부와 대모라고 부른다. 소녀는 그 날 하루 종일 여자 일곱 명, 남자 일곱 명으로 구성된 친구 열네 명과 함께 다닌다. 이것은 그녀의 일생(15살)의 각 해를 상징하는 것이다. (소녀는 열다섯 번째다.)

퀸세아네라에는 성당미사와 댄스파티가 있다. 여기서 사람들은 테자노, 우아광고, 컴비아스, 큐브라디타스, 폴카 및 여러 종류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 처음 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한 시간 동안 길거리의 악사들이 와서 퀸세아네라를 맞는 소녀에게 세레나데를 불러준다. 이 때 사람들은 소녀와 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를 해준다. 이것이 끝나면, 사람들은 다시 춤을 추기 시작한다.

일단 파티가 끝나면 모든 사람이 어린 숙녀의 집으로 가서 춤을 추고 음식을 먹으면서 게임도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더 보낸다.

코리나 콘트레라스

교사 아카데미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의 퀸세아네라를 전통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와 왜 감사

하는지에 대해 말했다.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도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오빠에 대해서 얘기했다.

소녀들은 모두 퀴세아네라에서 뭔가를 배운다. 나는 부모님께 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돈 낭비라고 생각한다. 내가 퀴세아네라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했다.

어머니와 나는 퀴세아네라로 인해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 이것을 하기 전에는, 내가 유일하게 말을 할 때는 엄마가 말을 걸어올 때였다. 한번도 엄마에게 학교나 친구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엄마는 내가 문제들을 털어놔서 좋아하신다.

여기에 나의 지출 내역이 있다.

교회 빌리기 40달러

교회 생화 장식 325달러

교회 화분 40달러

파티 장소 1,300달러

(나는 빌라리얼 컨벤션 센터에서 했다.)

파티 장소 꽃 250~1,000달러

초대장 200~500달러

(500백장을 만들어서 다 썼다)

여자친구들과 남자친구들을 위한 춤 강사 노래 두 곡에 150달러

케이크 400~700달러

(그 날 케이크로 1,500명이 먹음)

파티 음식

소 한 마리 당 200달러

(구운 고기 대접, 아버지가 소 두 마리를 잡음)

쌀, 콩, 소스 등 65달러

편치 음료 40달러

케이크용 민트, 땅콩 70달러

메이라 오르티즈

교사 아카데미

퀸세아네라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수고스럽긴 해도 재미있다. 소녀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필요한 것들을 목록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그 목록 중에 하나가 파티 하는 날 소녀가 가서 감사와 미사를 드리는 성당이다. 또한 방석 하나가 필요하다. 방석은 무릎을 꿇 때 편안하다.

소녀는 나머지 축하행사를 할 장소가 필요한데 카지노나 다른 집을 빌린다. 분홍 드레스와 분홍 왕관, 분홍 부케, 분홍 신발 그리고 장신구를 사야한다. 다른 준비물로는 자동차(장식된 것), 초대장, 전문 사진 그리고 멋진 순간들을 담은 캠코더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기는데 다양한 음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적으로는 맥주, 와인, 콜라만 대접한다. 전통적으로 퀸세아네라에서 사람들은 작은 술잔을 쓰지만 퀸세아네라 소녀는 큰 술잔에 남자친구와 축배를 한다. 그리고 음악과 깜짝 선물은 모든 사람들이 긴장감을 지속하기 위해 없어서 안 될 중요한 것이다.

일단 하루의 모든 행사가 끝나면, 퀸세아네라를 맞은 소녀는 잠을 자러 가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삶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잠에서 깬다.

나는 퀸세아네라를 했던 학생들에게 왜 그것을 했으며 그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다. 그들의 대답이다.

1. 퀸세아네라는 끝났는데 나는 가끔 부모님이 돈으로 대신 줬더라면 더 나왔겠다고 생각한다. 그 날은 정말 좋았지만 퀸세아네라로 인해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네사 사엔즈

2. 엄마는 내가 이 파티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나는 우리 집에서 외동딸이었다. 이것은 여기 텍사스와 멕시코에서 행해지는 오래된 전통이다.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이다.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준비되라. 이것은 소녀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바네사 로드리고

3. 엄마는 퀴세아네라를 하지 못해서 나는 하길 바라셨다. 결코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희생할 준비를 하라. 신경질 내지 마라. 수고가 그날 밤이면 생애의 최고의 날로 보상받고, 그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 루이자 라모스

당신이 보고 있는 아래의 이름을 가진 소녀들이 역시 이 행사에 대해서 적었다.

말렌 살리나

에이미 네즈

유니스 구즈

제시카 가르시아

레슬리 디 모레노

데니스 쿠르즈

리셋 바네사 가르시아

샌디 멘테즈

나탈리 마리 로소야

줄리 로페즈

다이아나 페냐

앨리 가르시아

알레한드라 만다

2부

서경 40도~0도~동경60도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이야기 6

두 마음

강한 유대감을 가진 이민자 사회 속에 사는 십대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두 문화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유지하겠는가? 이런 상황은 동시에 생모와 입양모 사이에서 자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생모와 입양모 모두는 아이의 사랑과 마음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이 십대들이 매일 매일 부딪히는 딜레마이다.

짧은 이야기

매니

부모님은 키프로스 섬에서 태어나셨고 1979년 미국으로 오셨다. 우리 가족과 나는 그리스계 키프로스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가진 민족적 배경에 대해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7년 동안 그리스 학교에 다녔다. 그리고 매해 여름이면 두 달 정도 키프로스로 간다. 나는 그리스어를 읽고 쓸 수 있다.

그리스 사람과 터키 사람 사이에 인종차별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나는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을 많이 목격했다. 나는 최근 유럽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두 민족 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책으로 쓸 수 있지만 오늘 도서관에서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 오늘 내게 주어진 지면도 작다.

토마스

나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왔다. 열두 살 때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지금은 열일곱 살이고 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과 살고 있다.

여동생은 여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미국 문화에 대한 경험이 훨씬 많다. 부모님은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분들은 여기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나는 미국 사람처럼 살고 싶지만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은 슬프다. 부모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오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지금은 부모님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상 속에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신다.

마이클

우리 부모님은 폴란드에서 왔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미국으로 오셨다. 아버지는 특별한 목적 없이 오셨다. 나는 아무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 이런 상황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어려워진다. 아버지는 내게 학교 공부를 그만두고 직장을 구해 돈을 벌라고 하신다. 고향에 있는 친척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어머니는 내가 학교 공부를 마치기를 바라신다. 나는 어머니가 겪는 고통을 알고 있다. 가끔씩 어머니는 미국에 아예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고 하신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게 상처를 줘도 어머니는 행복해하신다.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미란다 압둘라

텍사스 교사 아카데미

우리 가족의 이름은 레바논에서 유래되었다. 압둘라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다. 미란다는 ‘아주 존경할 만한’이라는 뜻이다. 증조부모님들은 그들이 살았던 마을 사람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오셨다. 관습을 따라, 그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표시로 큰 아들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미시건 디트로이트에 정착을 했다. 거기에서 증조할머니는 여관을 하시고

자식 네 명을 길렀다. 남편인 나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친구들은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일을 했다. 그 후에 증조할머니는 지금의 증조할아버지이자 남편의 친구였던 압둘라와 재혼했다. 그들은 북 다코타 로스에 있는 정부가 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양 사육을 시작했고, 모두 아홉 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 사촌들은 대부분 노르웨이 사람들이다. 나만 유일하게 증조할머니와 증조할아버지처럼 레바논 사람같이 생겼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하다.

레너드

나는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서 왔다. 이 나라는 아프리카 서부해안에 있다. 우리 가족은 펠레족 출신이다. 이 부족은 주로 봉 카운티에 산다. 우리 가족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했다. 라이베리아가 과거 미국 노예들이 세운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시에나

엄마는 알바니아에 있을 때 과학자였다. 여기서 아이 돌보는 일을 한다. 아버지는 알바니아에서 경제학자였다. 여기서는 관리인이다.

러시아 이민자와의 인터뷰

캐서린 크리스틴 코그네타

(이탈리계-아일랜드계-폴란드계-루터파 천주교 신자)

뉴욕 모리스 중학교

나는 1994년 12월 러시아를 떠났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나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나를 러시아 학생과 러시아 교사로 구성된 반에 배정해주었다. 학생들은 러시아말만 했다. 나는 영어를 배울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가난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대우도 나쁘다. 사람들이 사야 할 것은 많은데 직장에서는 돈을 충분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비

싸다. 예를 들면 청바지는 100달러, 운동화 200달러, 빵 한 덩어리 5달러이다. 여기서는 사람이나 음식의 무게를 달 때 온스나 파운드가 아닌 킬로그램을 쓴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닭과 밥이다. 가끔씩 파슬리를 사용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러시아에서 주택문제는 다르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단지 전기요금과 연료비 같은 것만 내면 된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든다.

범죄문제는 심각하다. 경찰은 집 밖에서 일어난 사건만 처리한다. 경찰은 누가 학대를 당해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러시아에 있을 때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했다. 여기로 이사 왔을 때, 가족들은 나를 계속 못살게 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경찰들이 조치를 취한다. 나는 지금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과 함께 보육원에 산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가족을 사랑한다. 가족과 같이 살고 싶다. 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화가 난다.

무사

나는 보스니아 사라예보에서 왔다. 전에 사라예보는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었다. 여기 미국에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유대인이다. 사라예보에서도 그랬다. 그 여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처럼 회초리로 학생들을 때리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 남자 선생님은 내게 웃옷을 벗으라고 했고 가시가 달린 채찍을 가지고 와서는 내 등을 세 번 때렸다. 사라예보에서 살 때, 전쟁 중이어서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삼촌과 나는 숲으로 사냥을 하러 갔다. 사슴을 죽이기도 했다. 가끔씩 나는 사냥하다 죽는 게 아닌가 걱정했었다.

남아프리카 이민자와의 인터뷰

잭키 페르킨 (아프리카계 미국인, 서부 인도인, 카프카스인)

뉴욕, 모리스 중학교

나는 13년 전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고국을 떠났다.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고 아버지는 망명 중이었다. 그 때 남아공 정부는 백인보다 흑인에게 훨씬 더 가혹했다. 경찰들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그만한 처벌을 받을 일이 아닌데도 흑인을 총으로 쏘아 죽일 수 있었다.

내가 두 살 밖에 안됐을 때 부모님은 형과 나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다. 삼촌들과 이모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대부분의 사촌을 남겨두고 왔다. 우리 가족은 영어를 한다. 모두 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그러나 집에서는 줄루 말을 쓴다. 줄루는 우리 부족의 이름이기도 하다.

보야

청소년 미디어 전문가

뉴욕 주, 뉴욕 시

당신에게 노동비자가 없고, **취업불가**라고 적힌 사회보장카드를 가진 어린 외국 학생이라고 상상해보라. 게다가 무척 배가 고프는 상황이다.

보통 건물이 겨우 4층인 가나에서 와서 어느 저녁에 뉴욕 시에 떨어졌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공항에서 마중 나올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 당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자동응답기의 녹음뿐이다. “삐 소리가 나면....”

요리법

카사바 빵과 녹말 만들기

내 이름은 리차드다. 나는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나라 콩고에서 왔다.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다섯 아이를 남기고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다.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셨다. 이것은 내가 카사바 빵을 만드는 방법이다. 카사바는 감자와 두꺼운 뿌리 사이에 교차하는 부분이다.

카사바 하나를 준비해 껍질을 벗기고 강판에 간다. 그리고 행주 같은 천에 넣어 즙을 짜낸다. (즙은 하룻밤 동안 두면 다음 날 아침에 녹말이 된다. 옷에도 사용할 수 있다.) 즙을 짜낸 카사바의 남겨진 부분을 그릇에 담는다. 소금을 약간 뿌려 손으로 젓는다.

냄비나 납작한 쇠판을 준비한다. 이 중 사용할 용기 하나를 가열한다. 카사바를 등

근 모양을 그리며 용기에 넣는다. 두께는 1/6인치를 정도로 한다. 구멍이 보이면 채워 넣는다.

용기의 열로 빵이 만들어진다. 한쪽 면이 갈색을 띠면(약 3~4분 소요) 다른 면이 위로 오게 뒤집는다. 다 구워지면 먹는다.

에세이: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

섬머

배선 아일랜드 고등학교

워싱턴 배선 아일랜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신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믿음이다.

콜튼

배선 아일랜드 고등학교

사람들은 ‘진정한’ 미국인이 된다는 것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나는 미국인이 된다는 것이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 베트남인인 것처럼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거만하거나 독선적으로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나는 진정한 미국인이 된다는 이런 태도가 주로 냉전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는 공산주의에 대해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진정한 미국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미국은 자랑스러운 점이 많은 나라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처럼 부끄러운 점도 많은 나라이다.

미국 사람이란 미국에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미국 사람이다. 세상에는 미국과 같이 자유를 주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게다가 어떤 나라는 미국보다 더 좋은 보건

정책을 가지고 있다. 미국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다.

깊이 들여다보기

베사마와의 인터뷰

이라크에서 온 열일곱 살 소녀

이라크는 중동국가로 터키와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나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태어났다. 곧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 우리졸업 앨범을 보고 싶은가? 내가 친구들에게 쓴 글이 있다.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친구들의 답장이다. ‘내 뽀뽀 번호야. 빨리 연락해.’

사막폭풍

나는 미국에 온 지 삼년이 되었다. 사람들과 대화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이곳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여기서 ‘사막폭풍’이라고 부르는 걸프전쟁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전에서 본 것을 기억한다. 폭탄이 떨어지는 것은 이들에게는 마치 컴퓨터 게임과 같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라크사람들이 미치고 야비하며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이라크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편견을 가진 것도 아니야. 늘 총을 끼고 있지도, 항상 싸우지도 않아. 그래 인정할 건 하지, 가끔씩 성미가 불같기도 하지. 하지만 그것과 걸프전쟁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미국이 쿠웨이트를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전쟁에 개입했다고 믿는다. 바로 기름 생산에 대한 통제권 때문이었다.

역사쓰기

걸프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아버지는 기술자였다. 그리고 동시에 여행을 하며 물건도 팔았다. 우리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는 대학 졸업자였다.

그 당시에 우리는 단독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내가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미국이 처음이다. 처음에는 아파트가 불편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라크에서 살 때는 버릇없는 여동생과 방을 같이 썼다. 그래도 그건 큰 방이었다. 여동생은 동물 인형들을 가지고 놀고, 어린 남동생은 그 인형들을 찢으려고 하고, 나는 공부에 집중하려고 애를 썼다. 각 지역 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었다.

나는 아침 일찍 학교로 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서로 숙제를 비교하기도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 보기도 했다. 우리는 화장을 하거나 매니큐어를 바를 수 없었고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어서도 안 되었다. 학교에는 여학생뿐이었다. 선생님들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믿지 못했다.

5학년 때 우리는 제2외국어를 시작했다. 나는 영어를 배웠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 러시아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와 같은 제3외국어를 배운다. 나는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지리수업도 있었다. 그 시간은 마치 세상의 모든 산을 외워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역사는 최악의 과목이었다. 전쟁의 이름들과 일어난 날짜들을 외워야 하는데 특히 이슬람 역사에서 일어난 것들을 꼭 외워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의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혹시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아주 유명한 장소 바벨론 근처에 사는 친척이 있다. 우리는 큰 모슬렘 명절인 ‘이드 무바라크(Eid Mubarak)을 지내러 친척 집에 갈 때면 그 유적지를 지나가곤 한다.

걸프전쟁 이후로 모든 것이 변했다. 일자리가 없었다. 식량은 비쌌다. 약은 구할 수 없었다. 남자들이 어떻게 하루 끼니를 때우고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궁리를 하며 거리에 나와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삶이 더 어려워질 뿐이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방으로 불러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여기를 떠나야해.” 한 달 반 후에 우리는 고국을 떠났다.

이슬람 방식

우리가 살던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처음에 우리는 이라크 옆에 있는 나라, 요르단으로 갔다. 6개월 동안 우리는 늘 울면서 지냈다. 아는 사람은 없었고 아빠는 우리와 함께 미국으로 갈 돈을 벌기 위해 나가고 없었다. 우리는 모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들은 나를 도와주었고 나를 믿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했고 존경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잠자리 가기 전에 키스를 해주셨다. 엄마가 말했다. “우리는 같이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희망을 버리지 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슬람 방식으로 옷을 입었다. 여자들은 머리를 가렸다. 그들은 땅바닥까지 닿는 차도르라는 긴 치마를 입었다. 진짜 전통 복장을 한 여성들인 경우에는 머리도, 코도, 입도 보이지 않고 눈만 보인다.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방해가 안 되게 얼굴 위로 베일을 계속 들고 있어야 했다.

요르단에 있을 때, 처음에는 엄마와 여동생과 나는 자주 여기 미국처럼 편안한 옷을 입었다. 그런데 낯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소리 질렀다. “코란에 여자들은 남자들이 보지 못하게 몸을 가리라고 쓰여 있어!” 그 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옷을 입기 시작했다.

마침내 18개월 후에 모든 법적 서류가 갖춰졌다. 우리는 얼마의 돈을 모은 상태였다. 우리는 여행의 마지막 자리를 떠날 수 있었다.

처벌

우리 문화에서는 남자는 데이트를 할 수 있지만 여자는 할 수 없다. 나는 진짜 키스, 특별한 의미로 입술에 하는 키스를 해본 적이 없다.

여기 미국에서 나는 남자, 여자 친구들과 같이 다닌다. 나는 여자 친구보다 남자 친구가 더 많다. 하지만 그냥 친구일 뿐이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출신이 다양하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아라비아에서 왔다. 두 번째로 친한 친구는 쿠바계 중국인이다.

미국으로 왔을 때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고향에는 이라크 사람들만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는 전쟁 전에 2년 동안 일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집트사람이나 수단사람이 더러 있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십대들이 누리는 자유 역시 나에게서는 충격적이었다. 이라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과 다니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문제가 생긴다. 만일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결혼을 했다 해도, 당신은 종교적인 가치관을 존중해야한다.

결혼을 하지도 않고 임신을 한 경우에, 당신은 죽게 된다. 그것이 처벌이다. 법정 은 판단할 때에 종교의 가치를 따른다. 그 당시에 나는 우리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웠다.

폭탄 말고 말로

내가 이라크에 살았더라면 나는 의대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부도 해야 한다. 여기 미국과 똑같다. 그러나 올해 나는 법 수업을 받았다. 아주 재밌었다. 우리는 함무라비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다. 4천 년 전에 그는 법전을 썼다. 그 책에는 강자는 약자를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다. 그는 오늘날의 이라크라는 지역에 살았었다.

수업을 받으면서 내가 가진 권리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전에는 성희롱이 뭔지 몰랐다. “이봐, 그건 법을 어기는 거야. 절대로 하지마. 만일 당신이 어긴다면, 나는 싸우는 법을 알고 있지. 폭탄 말고 말로 말이야. 이것이 내 무기라고.” 지금 나는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깊이 들여다보기

덜리와의 인터뷰

알바니아에서 온 열두 살의 소년

알바니아는 아드리아 해에 있는 유럽 국가로 그리스,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코소보)와 국경을 접해 있다.

우리 아버지는 용기의 사나이다. 그는 알바니아 사람이다.

그는 17살 때 마케도니아에 살았다. 그 당시에는 그곳이 유고슬라비아라는 국가

의 일부였다. 지금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일 년 전, 사람들은 그가 알바니아인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넣으려고 했다. 아버지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고국을 떠나야 했다.

처음에 그는 이탈리아로 갔다. 이탈리아정부는 아버지가 거기에서 살 수 없다고 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로 건너갔다. 2년 동안 그는 난민 수용소에서 살았다. 거기는 다른 나라에서 온, 집 없는 난민들을 위한 곳이었다. 아버지는 거기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도 역시 코소보에서 온 알바니아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미국으로 가려고 신청을 했다. 그게 10년 전 일이다. 미국에서 거부를 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와 미래를 원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너를 임신한 엄마를 오스트리아에 남겨뒀다. 엄마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나는 독일로 갔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의 계획은 언제나 같았다. 미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그 방법을 찾아냈다. 독일에서 멕시코로 가는 비자를 얻는다. 그리고 멕시코로 날아가서 몇 주를 체류한다. 그리고 불법으로 텍사스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돈을 주고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다.

“정말 무서웠지.” 아빠가 말씀 하셨다.

아버지는 돈을 얼마나 들까, 미국 이민 경찰에게 잡히지는 않을까 늘 걱정을 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 그러나 애들아 그 고생을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해서 다행이야. 사람같이 못 살 바에야 미국 감옥에서 사는 게 더 나았지. 그만한 돈을 준 것도 아깝지 않았다.”

아버지는 3개월 동안 텍사스에 있는 삼촌 집에서 살았다. 하루는 삼촌이 아빠에게 말했다, “뉴욕시로 가봐. 거기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거야.” 그래서 아버지는 삼촌 말대로 그렇게 했다.

아버지는 알바니아어, 터키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유고슬라비아어를 했지만 영어는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다. 그는 낙심이 되었다. 거리에 노숙자들이 보였다. 노숙자가 되는 게 두렵고 싫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꿈이었다.

결국 그는 그릇 닦는 일을 구했다. 하루 열 시간 동안 아주 뜨거운 물에서 그릇을 씻었다. 마치 손이 익어버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일

했다.

그 다음은 택시 운전, 건물에서 석면을 꺼내는 일, 바닥 청소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이런 일들 보다 더 어려웠던 일은 엄마와 나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일이었다. 그 때 나는 아기였다. 엄마와 나는 우선 독일로 갔다가 멕시코로 갔다. 우리도 불법으로 국경을 몰래 넘어야 했다. 엄마는 이 이야기를 되풀이 하신다. “딜리아, 너는 숨이 넘어갈 때 까지 울고 또 울었어. 멕시코 사람들이 너를 어디론가 데려가 버렸지.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이야.” 그 사람들은 나 없이 엄마 혼자만 국경을 넘게 했다. 엄마는 그것 때문에 울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만났고 그들은 다시는 나를 못 만날까봐 두려웠다. 그들은 그 걱정으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 후에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아는 이야기 전부이다.

그린카드

지금 나에게는 여동생 둘이 있다. 동생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되었다. 하지만 나와 엄마, 아빠는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신분증명서가 없다. 우리는 영주권이 없다.

아빠는 말씀하신다. “불법으로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세금도 내고 이 나라 법도 지킨다고. 변호사에게 갔었지. 합법적으로 살게 해 주겠다고 5천 달러를 가져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을 믿어라. 그러나 너무 믿지는 말아라.”

알라에게 감사

나는 이슬람 신자이다. 우리 종교는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구슬 한 꿩미를 가지고 기도한다. 기도를 하면 기분이 더 좋아진다.

지금은 라마단 기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이 기간에 금식을 한다.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진후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평생 금기사항이다. 사람들은 30일 동안 허기진 나날을 보낸다.

부룩클린에서 중학교에 다닐 때, 점심을 먹지 않는 학생 무리가 있었는데 우리는

도서관에서 함께 금식을 했다.

어떤 때는 배가 아프다.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 주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한다. 엄마는 빵을 꺼내 넓게 펴고 시금치나 고기, 페타 치즈를 빵 위에 놓는다. 그리고 맛있게 익을 때까지 오븐에 넣고 굽는다.

라마단 기간이면 우리는 이슬람 사원에 간다. 그리고 기도를 더 많이 한다. 우리는 알라와 선지자 모하메드에게 감사드린다. 여자와 남자는 분리된다. 사원이 이층 건물이면 여자는 위층, 남자는 아래층을 쓴다. 사원이 단층 건물이면 벽이나 휘장으로 방을 나눈다. 나누지 않으면 유익할 것이 없다.

그 달의 마지막 날은, 큰 축제가 있다.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라고 부른다. 그 날은 음식과 과자를 많이 먹는다. 기도를 하고 돈도 받는다. 내 나이의 어린이는 왕자가 되는 느낌이다. 아주 재밌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크리스마스도 기념한다. 아빠는 말한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 미국 문화와 분리될 수는 없지.”

이 위대한 나라를 존경해라.

엄마는 알바니아와 코소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나는 세르비아에서 온 사람들이 코소보로 왔다고 생각한다. “총을 모두 내려놔,” 세르비아인들이 말했다.

그때 세르비아인들은 전쟁을 시작했고 코소보는 대항할 어떤 무기도 없었다. 그들은 칼과 돌로 싸웠다.

사람들이 죽었고 친구들이 죽었다.

세르비아 사람들은 마을들을 불태웠다. 나는 엄마와 아빠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코소보’와 ‘문제’라는 단어를 들었다. 나는 알바니아 말을 잘 못한다. 부모님은 말씀하신다, “집에서는 알바니아 말을 해야 한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은 내가 알바니아인들이 인구가 적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기 바라신다. 알바니아는 자유가 전혀 없지만 미국은 자유의 나라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교에 간다. 우리는 이 위대한 나라, 미국을 존경해야 한다. 나는 존경한다. 정말 그렇다.

깊이 들여다보기

할리마와의 인터뷰

에티오피아에서 온 16세 소녀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 국가로 수단과 케냐, 소말리아, 지부티, 에리트레아로 둘러싸여 있다.

나는 미국에 영원히 살려고 온 것은 아니었다. 언니를 만나러 잠시 온 것이었다. 우리는 함께 뉴욕시티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과 워싱턴 디 씨의 국회 의사당을 구경했다. 언니가 의학 박사 공부를 막 끝냈을 때였다.

그것이 2년 전 일이다. 여기 오자마자 나는 고국 에티오피아 정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 형제들과 삼촌은 정부가 싫어하는 기관의 주요 인사였다.

정부는 우리 가족의 재산권을 정지시키기 시작했다. 형제들과 삼촌은 그 나라를 떠날 수 없었다. 언니가 말했다, “할리마, 너, 나, 우리 둘 다 정부가 바뀌기 전까지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러면 언제 갈 수 있는데?” 내가 물었다.

“그게 언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 언젠가는 되겠지.”

나는 집에 편지를 쓴다. 그러나 보낸 편지의 반 정도만 통과된다. 대개는 가는 사이에 사라진다.

시바 여왕

나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이 두렵고 불편하다. 이것은 내가 우리나라에서 느끼던 것과는 다른 두려움이다. 우리는 아디스아바바에 살았다. 그곳은 수도이고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인구가 이백만 명 이상 되지 않을 까 싶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북동부에 있으며 독립 국가이다. 주요 언어는 암하라 말이다. 미국에는 우리나라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한 학생이 말했다, “거기가 그 비도 오지 않고 사람들이 굶어죽는 나라야?”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 가끔씩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죽기 마련이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시바여왕의 나라다. 역사에서는 그 여왕이 한때 우리를 다스렸다고 한다. 마지막 황제는 하일레 셀라시에였다. 우리 아버지는 그 정부 때 고위관료였다.

내가 태어나기 전, 파업과 폭력이 있었다. 그 때 하일레 셀라시에가 사망했다.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떤 면에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버지의 살아생전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형제가 많았고 그 중에 나는 막내였다.

집에는 하인들이 있었고 어머니를 도와 나를 보살폈다. 그들은 언니 둘과 오빠 셋이 자랄 때도 그랬다. 그들은 집안일과 음식을 만드는 일도 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전통음식이다. 우리는 손으로 전통음식을 먹는다.

어머니는 우리 모두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를 바라셨다. 나는 우리가족과 우리나라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끝없는 싸움

우리나라에는 기독교인이 많다. 우리도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슬람교도가 더 많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인종 집단들과 다른 씨족들 때문에 문제를 겪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갖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부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에티오피아의 한 지역인 에리트레아는 전쟁을 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모를 전쟁을 계속해 나갔다.

그 전쟁의 일부는 반체제적인 성격을 띠었다. 우리는 그 전쟁이 최소한 2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에리트레아는 1993년에 독립이 되었다. 그들이 독립은 다른 인종 집단들이 독립하도록 부추겼다.

어딜 가도 싸움이 끊임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떨어져 나간 몸들

내가 거기에 있을 때, 삶은 뒤죽박죽이었다. 그것은 공포의 하나로 마치 다리 없이

도망가는 것과 같았다. 경찰력도 없었다. 누구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었다. 그런 사람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아무도 “그건 위법이요.”라고 할 수 없었다. 총과 폭탄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졌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내가 과연 안전할지 알 수 없었다. 학교 가기 전에 엄마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할 때면 엄마가 저녁에도 여기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지난주에도 그들은 시장과 식당에 폭탄을 터트렸다. 그들이 알고 있는 장소는 일반인들로 붐비는 곳이었다.

나중에 보면 폭탄에 떨어져 나간 몸들이 있었다. 여기에는 아기의 발, 저기에는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있었다. 어딜 가도 피, 밝은 빛마저 감도는 피가 있었다. 아무도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내가 거기 살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 이런 종류의 전쟁은 모든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지금 어머니는 영국에 살고 계신다. 언니 한 명이 어머니와 살고 있다. 미국에 사는 가족이 더 많지만 가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다 같이 모일 수가 없다.

우리 가족이 보고 싶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다. 그 산들도 가고 싶다. 어떤 산들은 높이가 만 피트나 된다. 그레이트 리프트 벨리, 블루 나일강, 도시의 떠들썩한 소리들이 그렇다. 나는 꿈을 꾸다. 그것은 가족이 에티오피아에 돌아가 함께 사는 꿈을 꾸다.

그러나 나는 진실과 살고 있다. 나는 이곳에 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안다.

깊이 들여다보기

피에르와의 인터뷰

부룬디에서 온 14세 소년

부룬디는 중앙아프리카 국가로 르완다, 콩고 킨샤사, 탄자니아로 둘러싸여 있다.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텔레비전에 나온 흑인을 볼 때, 우리와 같은 흑인들은 더럽고, 옷을 입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아프리카가 진짜 어떤 나라인가 말해주고 싶다.

“아프리카는 많은 나라가 있는 대륙입니다. 나는 부룬디에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부룬디는 내 심장에도 있다. 그곳은 높은 산들과 강들, 덩불, 탕가니카 호수가 있어서 아름답다.

아홉 살 때까지 나는 가족들과 부줌부라에서 살았다. 부모님은 서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다. 어머니는 아름다운 배우였다. 아버지는 보라색 돌과 나무 조각들을 파는 상인이었다. 그는 아프리카 서해안에 있는 가봉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여러 다른 26개국을 여행하셨다. 그는 파키스탄과 타이완까지 갔다 왔다. 우리는 거의 일 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할 때도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책가방 같은 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곤 했다. 어머니에게는 옷과 신발, 허리띠들을 보냈다. 어머니는 여성 사업가가 되었고 독립해 있었다. 어머니는 제일 친한 친구와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다.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줄 선물을 한 짐 가득 가지고 왔다. 나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다고 내가 가장 노릇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외할아버지와 삼촌들 그리고 형제처럼 가까운 조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집에서 같이 자랐다.

다 괜찮았다. 그러나 나는 외아들이어서 가끔씩 외롭기도 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대개가 독자라고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든 희망을 건다.

코에는 코

피그미족이라고 부르는 트와족의 일부가 부룬디에 산다. 그러나 그 수가 많지는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투족과 투치족이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신은 후투족이요 아니면 투치족이요?”

누구나 투치족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후투족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다. 우리는 이상한 후투족 사람들이 집들을 불태운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사람들은 후투족인가 투치족인지 알아보려고 차를 세운다. 그들은 당신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심하면 죽일 수도 있다.

나는 어렸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내 인생과 내 가족뿐이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키룬디

어를 쓴다. 그러나 나의 모국어는 스와힐리어로 일반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나는 우리가 프랑스 학교라고 부르는 곳에 다녔다. 우리는 자유가 있었다. 교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었다. 혹시나 학교에 늦을 것 같으면, 우리는 바지 하나를 더 입었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바지를 껴입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만일 입었으면 그 바지를 내리게 했다. 그래서 늦었을 때는 선생님이 회초리로 학생 엉덩이를 때렸다.

학교가 끝나면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놀았다. 우리는 주로 축구를 했다. 나는 축구를 잘했다. 나는 상대방이 후투족인지 투치족인지 상관이 없었다. 그 다른 점이 뭔지조차 몰랐다.

지금 삼촌들은 말한다, “피에르, 너는 투치족이야.” 다른 점은 코 모양이었다. 코가 크면 후투족이었다.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어머니의 말에 더 관심이 있다. 내 코의 크기가 아니다. 그것은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숨 던지기

미국으로 왔을 때 나는 아홉 살 정도 되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일 년 일찍 이곳에 왔다. 나는 ‘와, 신난다. 다른 나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아빠를 만나러 가는 것이었다.

내가 살았던 부줌부라에는 백인이 없었다. 아빠는 미국에 다른 인종들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보낸 준 양복을 입고 엄마와 비행기 타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부룬디에서 벨기에로 그리고 여기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여덟 시간 하고도 다시 여덟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서 있는 아빠를 볼 수 있었다. 또 내가 신이 낳던 것은 공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였다. 나는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 래피티라는 화장실이나 벽의 멋진 낙서 역시 전에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그가 친구들과 살던 집으로 차를 운전했다. 그 집에 갔을 때 나는 창밖을 보았다. 나는 누가 위층에서 숨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그것은 눈이라고 말했다.

부룬디는 비가 오면 날씨가 추워진다. 하지만 화씨 64도 정도의 추위이다. 나는 눈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많은 스웨터들과 코트, 모자를 착용하는 법을 배웠다. 그 후에 나는 밖으로 나가 놀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한 주 만 기다려라. 그러면 학교에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걸어서 데려다 줄게. 나는 어느 정도 영어를 하잖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처음에 나는 무서웠다. 엄마는 말했다, “세 시에 데리러 올게.”

학교에서 나를 4학년에 넣었다. 나는 혼자 구석에 앉았다. 선생님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나는 3개의 언어를 할 줄 안다. 그러나 영어는 할 줄 모른다. 학교 오기 한 달 전에 엄마는 나에게 다른 철자와 숫자를 가르칠 개인 강사를 구했다. 그러나 그에게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다.

그래도 두 달 안에 나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집에 가면 나는 엄마와 텔레비전을 봤다. 우리는 사전에서 특이한 단어들을 찾곤 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우리는 다른 언어는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루 온 종일 영어로만 말을 하곤 했다.

약

나는 엄마에게 무엇이든지 얘기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설사 내가 누굴 죽인다고 해도 나는 엄마에게 말할 것이다. 아빠? 나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다.

나는 엄마가 아기를 유산을 했을 때 마음이 아팠다. 일 년 후에 엄마는 또 유산을 했고 그 다음에도 유산을 했다. 엄마는 종종 아팠다.

의사가 말했다, “엄마에게 암이 있단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고향 가봉에 친구가 있었다. 그 여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치료사였다. 그녀가 ‘약’을 보냈다. 매듭지어진 조각천 안에 싸인 약 꾸러미였다. 약에서 숲 냄새가 났다.

그 친구가 글을 썼다. ‘아내가 이 약의 힘이 병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을 잠자는 방에 항상 보관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약을 까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그 말대로 했고 여기 의사에게도 갔다. 그러나 아무 것도 소용이 없었다. 엄마는 일주일 동안 혼수상태에 있었다. 나는 엄마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랑해요.” 엄마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 말이 어떻게든 전달되길 바랐다.

엄마는 우리가 미국에 온지 2년 만에 돌아가셨다. 나는 그 때 처음으로 죽은 사

람을 보았다. 나는 조상들이 엄마를 찾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엄마가 혼자 있게 된다는 것이 싫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엄마를 부줌부라에 가서 물어야겠다.”

부룬디에서 엄마가 아기를 업을 때 쓰던 아프리카 천이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빨거나 그 천을 잡곤 했었다. 엄마와 내가 함께 썼던 물건을 찾은 것이다. 나는 엄마를 기억하려고 그것을 내 베게 밑에 두었다.

네 명의 부인

가봉에서 남자들은 부인을 한 명이상 둘 수 있다. 아버지는 말한다. “부인을 두 세 명쯤 둘까 생각한다. 네 명까지 가질 수 있으니 말이다.”

내가 말했다. “그건 옳지 않아요. 부룬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아버지도 알잖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엄마의 가족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다, “피에르, 엄마의 여동생 두 명 중에 누가 더 좋으냐?”

내가 말했다, “나는 이 분이 더 좋아요. 더 성숙해요. 똑똑하고 대학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부룬디로 돌아갔을 때 엄마의 동생과 결혼하러 간다는 것을 몰랐다. 그것이 전통이었다. 어머니는 큰 딸이었다. 큰 딸이 죽으면 그 가족이 해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남편은 아내의 여동생들이나 친척을 아내로 고를 수 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인 나도 새 엄마로 인해 당황하지 않을 거라는 의미도 된다.

아버지는 뉴스를 많이 본다. 아버지가 나가면 나도 뉴스를 본다. 우리는 방이 열 두 개 있는 집에서 산다. 그리고 아버지 친구들 모두 거기에 산다. 나는 외아들이다. 존경의 의미로 아버지의 친구라면 누구든 삼촌이라고 부른다.

삼촌들은 말한다, “여기, 이것 좀 봐, 부룬디 사진이야.” 나는 그들이 전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는다. 그러나 그 사진들을 본 적은 없다.

후투족 사람들이 이웃 투치족을 죽이고 있었다.

투치족 부대가 후투족 마을을 공격하고 있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를 두려워한다. 모두가 탈출을 한다. 죽은 사람의 시체들은 어디에나 볼 수 있다.

“전쟁은 결코 죽는 법이 없어. 다시 전쟁통이 될 거야.” 삼촌들 중 한 명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 두 달 후에 돌아왔다. 그것도 혼자. 아버지는 엄마의 동생과 결혼을 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이모였다. 그러나 그 유혈사태 가운데 그녀의 비자를 받기가 어려웠다. 그녀는 결국 비자를 받았고, 태국으로 갔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그녀는 관리들에게 비자를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비자를 빼앗아버리면 평생 태국에서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나보다. 그래서 비자를 보여주는 양고 오히려 숨기고는 그들에게 비자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했다.

내 꿈에는 살아있는

3년이 흘렀다. 난 지금 열네 살이다. 여기에 친구들도 있다. 이 동네에 몇 명이 있고 내가 살던 곳에도 더러 있다. 내가 미국으로 온 이후에 우리는 네 번 이사를 했다.

나는 부룬디에서 했던 것처럼 축구를 하지 않는다. 나는 농구를 한다. 친구들과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 예를 들면 스포츠라든가, 만화책, 여자이야기이다. 나는 데이트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내가 열다섯이 되어 데이트를 시작했으면 더 좋겠다고 하신다. 그러나 여자 아이들이 나에게 전화를 한다. 어떤 여자아이들은 집에도 놀러온다.

아버지가 놀리듯이 말한다, “언제든지 관계를 갖고 싶으면 내가 집을 나가주마.” 진심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삼촌들에게 나를 가지고 농담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는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다.

집에서는 대부분 스와힐리 말을 한다. 그러나 지금 나는 영어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엄마의 동생, 새엄마는 아직도 미국으로 오지 못하고 태국에 있다.

꿈속에서, 엄마가 살아났다. 우리는 방이 많은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현실에서,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내가 부자가 되면, 저 거리 바로 밑에 집을 사 드릴게요.”

아버지는 말한다. “아니야. 내가 미국에 있는 건 너 때문이야, 네가 학교를 마치면, 너는 스스로 살아가야해. 나는 은퇴해서 가봉으로 갈 거다.”

3 부 경도 60도~ 180도 아시아와 아대륙 이야기 7

숫자들

이민은 통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실과 숫자를 알아야 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민자 수의 최고치를 보유하고 있다. 매년 다양한 연령대의 약 80만 명의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게다가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곳에 들어온다.

전국적으로 18세 이하의 청소년 20퍼센트가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이다. 이 아이들의 수는 1990년 8백만 명에서 가장 최근 기록 연도인 1997년 1,370만 명까지 증가했다. 이들은 그 연령대의 미국 인구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인구 그룹이다.

1. 빌 맥키빈, “이민자들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문제다,” 뉴욕 타임즈 (1998년 3월 9일)
2. 셸리아 더거, “설문조사는 이민자 아이들이 학업에서 최고의 학업 성취율을 보인다” 뉴욕 타임즈(1998년 3월 21일)

짧은 이야기

미셸

아버지는 먼저 중국을 몰래 빠져 나왔다. 우리는 합법적인 이민 서류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촌의 신분증을 사용했다. 나는 다섯 살 때부터 미국을 동경했다. 내가 미국에 도착하던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여기서 처음 한 일은 엄마와 차이나타운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엄마는 바지를 꿰맸다. 그 때 나는 여덟 살이었다. 나는 시키는 것이면 뭐든지 했다. 예를

들면 옷에 있는 실밥을 자르거나 바닥을 쓰는 것이었다. 내 목표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나는 노래와 춤에 관심이 있다. 부모님은 말씀하신다. “둘째 삼촌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어라.”

페르난도

필리핀에서 온 지 7년이 되었다. 나는 영화나 TV를 보면서 생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미국에는 부자 백인들만 있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다. 나는 가끔씩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이 되는 상상을 하곤 했다. 머리를 물들이고 푸른색 콘택트렌즈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유산이 특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 앨범을 보면, 어머니가 엄마 가족의 가계도와 아빠 가족의 가계도를 써 놓은 것이 보인다. 나는 필리핀 사람이지만 중국, 스페인,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에서 온 조상들이 있다.

씨마

나는 일곱 살 때 파키스탄에서 왔다. 지금은 열한 살이다. 우리는 집에서 우르두어를 쓴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르두어를 다 알아 들을 수 있어도 단어들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 전통도 까먹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존

나는 태국 방콕에서 왔다. 그 도시는 멋지지만 오염되고 교통 정체도 심하다. 강 근처에는 디즈니랜드보다 더 좋게 보이는 왕의 궁전이 있다. 궁전의 종교적인 건물에 들어갈 때는 존경의 표시로 신발을 벗어야 한다.

여기서 나는 임신 중인 엄마, 아빠, 그리고 남동생과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엄마가 먹은 것을 다 토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왜 그러는지 알았다.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태어나는 첫 아기 때문에 신이 나 있다. 내 동생은 눈에 가시다. 나는 동생과 한 침대를 쓰는데 동생은 잠버릇이 안 좋아 온 방을 휘젓고 다닌다.

램

나는 베트남에서 태어났다. 세 살 때 홍콩으로 이민을 가서 열 살 때 여기로 왔다.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어머니는 나와 여동생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신다. 나는 여느 십대 아이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술도 안마시고, 수업에 빠지지도 않고, 담배를 피거나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지 않는다.

켈리

중국에 있을 때 나는 가난한 마을에 살았다. 우리 집은 많지는 않지만 닭을 키웠다. 여기서 새끼 고양이를 기르는 것과 비슷하다. 어떤 것들이 내 닭인지 안다. 나의 닭들을 부를 때는 입으로 뽀뽀나 꺽 소리를 낸다.

학교에 가면 우리는 운동을 제일 먼저 했다. 지각하는 날엔 큰일 난다. 수업 중에 말을 하면 우리는 스스로 입을 세계 열 번 때려야 했다. 열한 살이나 열두 살이 되면 일자리를 찾으려고 수업을 빠지기 시작한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다. 여분의 돈이란 것이 없는 것 같았다. 엄마는 귓속말을 하곤 했다. “나는 앉아서 뜨개질 하고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물론 꿈같은 일이었다.

애니

나는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나서 13년 동안 거기서 살았다. 지금은 열다섯 살이다. 여기서 보낸 시간들은 아주 좋았다. 앞으로도 더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다. 문제는 친구가 없다는 점이다. 누군가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엄마에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좀 다르다.

스탠리

아빠는 대만에서 태어났지만 엄마와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아직도 가끔씩 사람들이 말한다, “와, 영어 정말 잘하는데.” 어쨌거나, 고맙게 생각한다. ‘나는 사실 영어 밖에 모르는데.’ 네 살 때 기억이 나의 가장 어릴 적 기억이다. 아버지는 운동장 한 편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집에서 아빠는 말씀하신다, “스탠리, 네가 앞으로 뭐가 될지 생각해봤어. 너는 리더는 아니다. 하지만 미술 솜씨로 뭔가 될 것

같구나.” 엄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아버지는 서른 살이 되어서야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알게 되었다.

메릴 앤소니 세레니오

텍사스, 교사 아카데미

1700개에서 1800년대 마법과 미신이 필리핀 비사얀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특히 평화로운 안티케 섬의 밤에 날아다니는 흡혈귀들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것은 “안티케 섬 흡혈귀의 전설”에 대해서 내가 그린 그림이다.

스잔 즈호우

뉴욕 브룩클린, 이드우드 고등학교

나는 중국 광둥에서 태어나 12년 전에 미국으로 왔다. 시간도 빠르지! 지금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다. 나는 요리하기, 운동하기, 사진찍기 그리고 여행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미국에 사는 것이 좋다. 나는 자유와 사람들, 그리고 가장 살기 좋은 장소인 뉴욕시를 좋아한다. 나는 부모님과 아주 귀여운 세 명의 여동생과 살고 있다. 언젠가 나는 회사를 소유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다.

요리법

돼지 갈비 만드는 법

수잔 즈호우

뉴욕 브룩클린, 이드우드 고등학교

재료:

돼지갈비 1 파운드

소금 1Ts, 생 김정콩

밀가루 1ts

설탕 1/2 ts

간장 1ts

소금 1/2 ts

굴소스 1ts

골파(샐러드/양념용 양파) 1TS 선택

생강 1ts 선택

만드는 방법:

- 1) 고기에 소금을 넣는다.
- 2) 생강과 골파를 작게 썬다.
- 3) 검정콩을 으깨 고기에 넣는다.
- 4) 밀가루, 요리용 와인, 설탕, 간장, 굴소스를 넣는다.
(나는 골파와 생강 넣는 것을 더 좋아한다. 싫으면 안 넣어도 된다.)
- 5) 돼지갈비를 양념에 재어둔다.
- 6) 갈비를 접시에 놓고 15~20분 정도 썬다.

2~3분 정도 식혔다가 맛있게 즐기세요!

에세이: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

마가렛

워싱턴, 배션 아일랜드 고등학교

우리나라는 마을이 아니다. 우리 미국인들은 우리자신을 정치적인 당, 종교, 의견, 경제적 계층 그리고 종교로 구별한다. 우리 문화는 지역사회나 집단행동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다. 우리 대부분이 풍부한 부를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 재난이 일어나고서야 사람들은 과거 자신들의 안락한 부를 서로 나누고자 했다.

TV에서 미국인의 삶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미움과 폭력에 대한

뉴스가 지배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기 때문에 방송인들이 긍정적인 보도하기를 꺼려서 그렇다고 합리화한다. 그 말 자체가 충격적이다. 미국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아주 인간적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사랑에 빠지며, 그리고 가끔씩, 그렇다,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런 고난에 대한 인내가 견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를 만들게 한다.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삶과 나쁜 삶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깊이 들여다보기

18세 한국 남학생 마이클과 그의 학우 17세 한국 여학생 클라라와의 인터뷰,
한국은 반도 국가로, 남한과 북한 두 나라로 나뉘어 있다.

마이클:

지난 수요일 학교 강당에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클라라는 장학금과 상을 많이 받았지요. 나는 겨우 두 개 받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에요. 같은 교회에 다니거든요.

부모님은 웃으셨지만 집에 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클라라 부모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나는 클라라를 시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클라라의 부모님들이 무시하는 눈초리로 나를 봤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클라라는 그 장학금들을 신청했었어요. 내가 다닐 대학은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나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나를 힘 빠지고 화나게 해요. 나는 큰 아들이에요. 한국문화에서는 큰 아들에게 책임이 따오죠. 그분들은 보이는 결과를 원해요.

나는 열여덟 살인데 특히 아버지는 내가 어른처럼 행동하길 바라세요. 지금도 나는 그날 밤 울면서 잠들었다는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다음 날, 나는 선생님께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말씀하셨죠. “마이클, 네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네

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아무 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결국 나는 혼자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전형적인 한국 부모님이야.’

클라라:

내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 1점 차이로 수석이 하는 졸업생 대표를 하지 못했어요. 이 모든 것이 체육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나는 체육이 싫었어요. 지금도 싫어해요. 한 번도 잘 한 적이 없어요.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체육 선생님이 우리 점수를 말해 주었어요. 나에게서 “60점”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그 선생님을 뵈러 갔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성적표가 나왔을 때, 나는 1등이 아니었어요. 나는 슬펐고 미치도록 화가 났어요.

성공에 대한 압박

마이클

부모님이 성공하라고 나에게 주는 압력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어떤 때는 그 압력을 잘 넘기지만 어떤 때는 아니에요. 집에 육상경기 메달을 가져간 적이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었지요. 그러나 한국 문화에서는 교육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국경일에 스승의 날도 있어요.

부모님은 그런 종류의 가치를 가르치세요. 그런 것들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미국에 올 때 내 나이가 겨우 세 살이었어요. 한국 생활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집에서는 한국말을 해요. 나는 부모님께 존경심을 보여요. 조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면 그 분들의 말이 가장 중요했겠지요. 어른이니까 그분들은 제일 존경을 받아요.

나는 선생님과 내게 친절할 사람들을 공경해야 해요. 부모님은 서로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늘 말씀하세요. 내가 뭘 하기 전에는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부모님은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세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면 결과는 안 봐도 뻔해요. 거짓말 해 본 적이 있냐고요? 백번에 한 번쯤,

진실을 말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클라라: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자나 여자만으로 구성된 학교나 학급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한 반에 인원이 50명 정도로 학급도 커요. 교실을 옮겨 다니는 여기와는 달리 학생들은 한 교실에 앉아 있고 선생님들이 움직이지요.

선생님들은 미리 특정한 주제를 숙제로 내주는데 우리는 번갈아 가며 그 주제에 대한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칠판에다 그 질문들을 썼어요. 수학이나 영어, 역사에 대한 질문이지요.

우리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 살았어요. 그리고 한 집에 많은 식구들이 모여 살았죠. 나와 여동생은 한 방을 썼어요. 우리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지요. 밤에 잠잠할 때 가끔씩 우리는 아빠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내가 여섯 살, 동생이 다섯 살 때 미국에 가셨어요. 엄마가 말씀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구나. 이것 말고는 아버지가 우리를 뒷바라지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가지 마라.”

마이클

6학년 때 이후로, **사막폭풍** 이라는 걸프전쟁 그리고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듣고서 군대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내가 전투의 중앙에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커서, 군대 신병 모집관을 찾아 갔었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애야, 군대는 단순히 싸우는 것만이 아닌 그 이상이란단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임대 계약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지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대학 학위를 얻을 수 있어요. 엄마와 아빠를 위해 돈을 모을 수 있고요.”

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밤에 방에서 엄마가 울며 아빠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만일 전쟁이라도 나면, 마이클이 죽을 지도 몰라요.”

교회의 장로님들 역시 내가 군대에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나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교회 청소년 부에 가고 매주 일요일에는 예배를 드리러 가요. 부모님과 교회사람들 모두 내가 군대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교회와 부모님 둘 다 내게는

소중해요.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지면 나는 거기에 순종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가지 마라.” 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싸움을 좋아하는 내가 아닌, 진정한 나는 친절하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소란을 피울 때는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친구들과 있으면 다들 내가 이렇게 하길 기대해요.

나는 상황에 따라 아주 다른 사람이 되요. 그것이 후회가 되요. 카멜레온처럼 살면 안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내 진짜 성격을 보여 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클라라:

10년이 지났어요. 나는 열여섯 살이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모든 서류준비가 끝났어.” 평생을 기다린 것 같았는데 일들이 빨리 진행이 됐어요. 우리는 한 달 안에 고국을 떠나게 되었어요.

친구 한 명이 공항에서 이 귀여운 일기장을 줬어요. 엄마가 바로 재촉하며 말했어요. “일기장에 써 넣어. 시간이 가는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거야.”

그 수많은 날들을 미국을 꿈꿨었지만 나는 미국이 싫었어요. 한국에서는 중학교에 들어가면 영어는 필수예요. 나는 점수는 좋았지만 선생님은 문법이나 어휘를 가르칠 뿐, 회화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말도 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이 내 발음을 듣고 비웃을 까봐 두려웠어요. 아이들이 정말 나를 놀렸어요. 나는 혼자 생각을 했죠. ‘한국에서는 우수한 학생인데 여기서는 바보가 되는구나.’ 결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말을 더 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되고 두려움도 이겨내야 했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면 알려지지 않은 단어들을 사전에서 찾곤 했어요. 그것들을 외우고 나서 숙제를 했어요. 공부 시간이 네 배나 걸렸지만 일단 한 번 배운 것은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어요.

아수라장

마이클:

나는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한국에 펜팔 하는 여자 친구가 있었어요. 중2때 영어 선생님이 펜팔 친구를 연결해 주었어요. 우리는 삶이나 고민 같은 것을 편지에 쓰곤 했어요. 그 친구는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첫 번째 남자 친구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어릴 때 사진을 보내왔어요. 나는 그 사진을 가지고 다녔지요. 정신적인 지지라고나할까. 그 사진을 볼 때면 행복했어요.

나는 한국 여자와 결혼해야 해요. 아빠도 말해요. “최소한 세 살 정도 어린 사람과 결혼해라. 어린 사람은 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도 알잖니. 엄마도 나보다 여섯 살 어리다는 거.” 펜팔 친구와 나는 겨우 나이가 20일 차이가 나요.

나는 다른 인종의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지난달에 엄마에게 말했어요, “학교에서 차메이카 여자아이와 사귀고 싶어요.”

“그러기만 해봐, 가방 싸서 내쫓아 버릴 테니까.”

바로 그 때 아빠가 방안으로 들어왔어요. “뭐 때문에 그래?” 무슨 일 때문인지 알고 싶어 하셨죠. 아버지가 사정을 듣고서는 말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 아이들 중에 누구와 같이 다닌다는 소릴 들으면 그 땀 정말 가만있지 않겠다.”

“그 애는 헌신된 크리스천이고, 소중한 친구예요. 그리고 나보다 두 살 어리다고요.”내가 말했어요.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만나면 싸움이 일어난다. 그 집은 아수라장이 될 거야.” 엄마가 말씀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말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흑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분 다 아니라고 했어요. 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밖에 쓰레기 같은 한국 사람들도 많거든요!’

한국은 은둔자의 왕국으로 유명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서 분리돼 순수함을 유지하길 원해요.

클라라:

미국에 온지 2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때 나는 미국 대학 수능 시험을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참고서를 샀어요. 200장짜리 색인 카드에는 어휘들을 적어서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가지고 다녔어요. 그 동안에 엄마는 시험에서 1600점을 받은 학생들 기사를 계속 가져다 줬어요. 나는 내 점수 1310이 자랑스러웠어요. 엄마는 말씀하셨죠, “1600점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 했다.”

나는 어렸을 때 영화배우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뭐든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꿈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나는 뭐가 되고 싶은지 몰랐어요.

그리고는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족이 합치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내가 기억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는 젊고 건강할 때 한국을 떠났지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 보여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리를 절뚝거리서 정말 놀랐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부터 이랬어. 하지만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야.”

“어떻게 다리를 절게 됐어요?” 내가 물었어요.

“어렸을 때 한국 전쟁으로 어디에나 싸움이었지. 우리는 피난을 갔었는데 다리가 감염된 거야. 면허도 없는 의사가 다리를 고치려고 했었지. 그 때 수술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신경을 자른 거야.”

아버지가 말을 끝내자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결심을 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마이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최근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마케팅 분야에서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마이클, 아직 충분히 조사도 안 해 봤잖니. 더 철저히 검토해보지도 않고 그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래?”

아버지가 바른 말을 하시는 게 싫어요. 사실 내가 조사한 것 보다 더 많이 마케팅을 조사해 봐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그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해봐라, 네가

하는 일을 방해하지 않으나. 인생을 살 때, 네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주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나는 좋은 부모라면 칭찬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우리가 한국에 있었다라면 내 삶이 어땠을까 궁금해져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을까? 우리 가족의 명예를 위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었을까?

클라라:

아빠는 리무진 운전사예요. 나는 졸업반 무도회가 있던 밤에 리무진을 생각했었어요. 아무도 나를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난 혼자 간다거나 친구들과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나는 희망을 잃어버리지만 앓는다면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 자신에게 말했어요.

학년이 끝나갈 즈음, 모든 졸업반 학생들이 성적 증명서를 떼려고 도서관에 왔어요. 내 성적표에는 1등 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강단으로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내 평균 점수를 말하고 내가 했던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관중이 내게 큰 박수를 보냈어요.

갑자기 한국 중학교에서 졸업생 대표가 되고 싶어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났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온 길이 놀라운 여행이었어요.

깊이 들여다보기

팡과의 인터뷰

16세의 몽족 소녀

이 부족은 국토가 없어 자신들의 땅을 요구하고 있는 동남아 민족이다.

기록상의 나의 생일은 7월이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다. 나는 태국의 난민 수용소에서 태어났다. 그 때가 우리 가족이 그 곳에서 지낸 지 2년 정도 되었던 것 같다. 아무도 신경 써서 그런 상황을 기록하지 않았다.

가끔씩 엄마와 아빠는 수용소에 가기 전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 나는 종종 그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님들은 그 때 삶을 “어려워지기 전”이라고 불렀다.

과거는 과거

우리는 몽족이다. 국가가 없는 민족이다. 부모님은 라오스의 산 속 마을에서 살았다. 그들은 농부였고 그들의 부모님들도 농부였다. 나는 그들의 부모님의 부모님도 농부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가 오래된 민족이라고 확신한다. 나는 시간을 세는 방법을 모른다. 어떤 면에서는 이야기꾼들이 우리 역사를 기록했다.

몽족은 알파벳이 없었다. 그래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문자언어도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오래 전은 아니다. 약 50년 정도 되었을까. 그래서 부모님이 읽거나 쓸 줄 모르는 것도 당연하다. 그들은 머리가 아닌 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말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리고 과거에 라오스 국가는 정치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었다. 태국 외에도 주위에 중국의 일부, 캄보디아, 베트남과 같은 다른 나라들이 있었다. 몽족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도와 싸웠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지역은 싸움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상황이 부모님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부모님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몽족사람 모두를 쫓아온다는 소리를 들었다. 몽족은 미국인들을 도운 것을 후회했다. 빨리 피하지 못한 몽족은 죽임을 당했다. 마을에 있었던 우리부모님과 조부모님, 오빠들과 언니들, 다른 사람들이 피난가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메콩 강을 건너서 태국 난민 수용소로 갔다.

나에게는 이것이 내가 알고 있던 삶이었다. 매일 찰싹 찰싹 여자들이 물에서 돌에 빨래를 치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사는 곳 가까이에 개울이 있었다. 낚시를 하는데 허가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개가 있었다. 법이란 건 없는 것 같았다. 태국 정부가 그곳을 다스렸던 것 같다. 나는 모르겠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어떻게 얻었는지도 모르겠다.

수용소 가까이에 작은 땅이 있었다. 부모님은 그 땅을 주라고 요청했고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 그들은 단지 약간의 채소를 얻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용소로 고기가 배달되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잘게 썰어서 가족들에게 나눠주었다. 한 번은 누군가가 너무 많이 가지

려고 하다 우리 모두 받은 고기를 도로 반납해야 했다. 아직도 그 때 일이 기억난다.

보물 라디오

내 삶은 어땠을까? 우리는 집들이 길게 늘어선 곳에서 살았다. 각 집에는 다섯 가족이 살았다. 거기에는 양씨 가족, 방씨 가족, 로어 가족 등이 살았다. 이것들은 그 씨족의 이름이다. 몽족은 18개의 다른 씨족 이름들이 있다.

각 가정의 방 두 개를 썼다. 방 하나는 가족의 침실이었다. 가족 모두 딱딱한 강단에서 같이 잠을 잔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그런 딱딱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었는지 의아하다. 그러나 그때는 괜찮았다. 우리는 그 강단 위에 담요를 몇 장 깔았다.

다른 방은 부엌 겸 거실이었다. 욕실은 밖에 있었다. 모든 가족이 함께 사용했다. 화장실을 쓰려면 가끔씩 아주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숲으로 가서 해결했다.

우리는 자전거, 사탕, 전자제품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러나 라디오는 몇 개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도 없었다. 우리 할머니가 라디오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보물이었다. 우리는 아주 착하게 행동해야 했고 특별한 날이 되면 들을 수 있었다.

부모님은 그곳의 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그들이 살던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태국에서 평평하고 건조한 땅에 살았다. 그들은 전에 살던 얘기를 하고 농사짓던 것, 야생 돼지와 다람쥐, 원숭이 같은 숲속 동물들을 사냥하던 얘기를 했다.

부모님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 우리는 미국에 친척이 있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보냈다. 그러나 결코 많은 돈은 아니었다. 아빠는 이민국이라는 곳에 갔다. 그래서 우리 역시 미국으로 올 수 있었다. 이민국에서는 이민을 가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아빠는 비행기 티켓 값을 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그는 약속을 했다.

이 닭기 교육

우리는 두 번째 수용소로 옮겨졌다. 그 곳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했다. “여기서 우리

는 여러분들에게 미국 생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드립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학교로 보냈다. 나는 여섯 살, 학교 갈 나이였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나는 중이염을 앓았었다. 그때는 잘 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나를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나를 보냈다.

나는 그 때 내가 생각했던 것을 기억한다. ‘세상에,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주로 그들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거나 운동을 하게 했다. 아, 그리고 이를 닦게 했다. 그 때 나는 처음으로 이를 닦아봤다. 나는 이 닦는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욕조가득 물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컵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칫솔과 치약을 주었다. 나는 치약을 넣은 물을 마셨다.

나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랐다.

오빠와 언니는 알파벳을 배우고 있었다. 한 선생님이 미국의 수면시간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낮에 언니, 오빠들을 잠 재웠다. 만일 누군가 움직이거나 말하면, 회초리로 맞았다.

어느 날 그들이 우리의 이름을 불렀다. 마치 순식간에 우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큰 태국 시로 버스를 타고 갔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비행기를 탔다. 나는 구토를 했다. 비행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내가 꿈속에서 상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포장도로와 채소 가게

삼촌이 여기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미네소타로 왔다. 삼촌은 그 아내의 가족들을 따라온 것이다. 그들은 미국 후원자인 교회단체가 있었다. 몽족협회는 우리가 집을 얻도록 해주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법률 서류들을 작성해 주었다. 우리가 의사를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아주는 등 여러 일들을 주선해주었다.

나는 그 도시가 너무 커서 놀랐다. 무섭기까지 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본 것은 생전 처음이었다. 전에는 승용차를 타 본 적이 없다. 냉동식품과, 실내 화장실, 세탁기, 종이집게를 본 적도 없다. 이런 것들로 종이 한 장을 가득 채울 수 있다. 옷도 달랐다.

수용소에서 나는 항상 치마를 입고 샌들을 신었다. 아버지는 험렁험렁한 몽족 바

지를 입었다. 나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태국에 있는 것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했다.

물론, 나는 학교에 가야 했다. 그래서 나는 신이 났지만 학교가 어떤 곳인지는 몰랐다. 학교에선 나를 1학년에 넣었다. 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그 시간이 정말 좋았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꿈같은 일이 되었다. 지금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이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몽족 아이들만큼 영어를 잘 한다. 나는 서로 사이가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끔씩 그들은 자기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우리를 ‘배에서 갓 내린 이주민’이라는 뜻의 ‘에프오비(FOBs: Fresh off the boat)’나 ‘태국 태생 몽족’이라는 뜻의 ‘엠티티(MTT: Mong Thai Thai)’라고 부른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신다, “여기는 폭력적이야.” 부모님들도 내가 아는 것을 알고 있다. 몇몇 몽족 소년들은 범죄조직에 있다. 나는 그들이 어리석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싸움이 있었다. 조직의 아이들은 자신들이 몽족 여자아이들을 보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들이 말썽만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 집은 우리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바깥 생활에서 분리된 사적인 공간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모님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여겨지는 한 나는 그들에게 순종할 것이다. 하지만 아니라면 나는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것이 미국 방식이다. 나는 미국 아이들 방식으로 살고 싶다.

부모님들이 바로 나에게 불만을 털어놓는다. 그들이 말한다. “팡아, 너는 몽족인데 미국에 너무 물들었어. 태국으로 돌아갈 때 너를 데리고 가겠다.”

나는 다소 무모하고 짓궂다. 종종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일들을 저지른다. 몽족 문화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기에 왔을 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미국화 된다고 생각한다. 오빠들과 언니들은 나보다 더 몽족 사람처럼 행동한다. 나보다 어린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은 내가 하는 방식처럼 행동한다.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들은 전통 구애(求愛) 놀이를 했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소

년 소녀들은 천으로 만든 공을 앞뒤로 서로 주고받는다. 여자 아이가 공을 떨어뜨리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의 옷을 하나 갖는다. 만일 남자아이가 그 여자아이를 마음에 들어 하면, 그들은 둘이서 산책을 나간다. 새해 바로 직후에 결혼식이 많이 행해진다.

우리는 지금도 가끔씩 이 놀이를 한다. 그러나 산책 부분은 빼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 내가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결혼했을 것이다. 엄마는 몇 살 때 결혼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단지 어렸었다는 것만 알고 있다. 그것이 몽족의 전통이다.

그리고 대가족 역시 몽족 전통이다. 대가족은 행운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신이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셨군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밭에서 일한다. 자라면 부모님을 도와야한다. 우리는 가족의 성을 따른다.

나는 형제 여섯과 자매 넷이 있다. 나는 일곱 번째다. 끝으로 둘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나도 그랬더라면 하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내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을 테니 말이다. 내가 열여덟 살이 되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나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이다. 우리 오빠나 언니들은 아무도 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나는 할 수도 있다. 형제 중 몇 명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다. 나는 마치고 싶다. 여기에는 일할 수 있는 밭이 없다. 몽족은 변화하려고 해야 한다.

큰 오빠는 공장에서 일한다. 다른 오빠는 가게에서 과일과 채소를 판다. 언니 두 명은 결혼을 했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몽족 사람들은 대체로 가난하다. 나는 좋은 미국인이 되고 싶다. 나는 더 성공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는 많이 낳지 않을 것이다.

깊이 들여다보기

수자다와의 인터뷰

인도에서 온 15세 소녀

인도는 아시아의 아대륙에 있으며 파키스탄, 중국의 티베트,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전에 버마로 알려진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내가 여기로 오기 6개월 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은 이웃들, 이것저것 파는 사람들, 거지들과 같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행렬이었다. 미국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오프라 윈프리 쇼(The Oprah Winfrey Show)’와--이런 세상에!--외국 채널 ‘스타 플러스 TV’에 나오는 ‘베이워치(Baywatch)’였다. 나는 이 문화가 무서웠다.

인도에서는 부모님과 오빠, 언니들이 우리를 가르쳤다. 어른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우리는 순종한다. 결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매결혼을 한다. 우리 부모님들도 중매로 결혼했다. 그리고 가끔씩 어머니는 어떤 일이 생길 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 내용은 이렇다. 결혼할 때가 되면, 중매인이 남자의 집으로 간다. 중매인이 묻는다. “이 남자아이가 곧 결혼을 할 건가요?”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 소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예를 들면 소년의 학력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그 소년이 어떤 아내를 바라는지도 알아낸다. 아마도 인도에서 교육을 받고 공부했으며, 예쁜 외모를 가진 여자를 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소녀의 집으로 간다. 소녀가 교육을 받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면, 소녀는 그 얘기를 한다. 어떤 여자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그냥 결혼을 할 뿐이다. 결혼은 소년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다. 소녀의 선택에 있지 않다.

거기에는 나에 대한 지참금도 있다. 그 말은 소녀의 가족이 소년의 가족에게 금, 선물, 우리나라의 돈인 루피를 줘야 한다는 뜻이다. 만일 소녀가 교육을 덜 받고 일을 할 것이 아니라면, 소녀의 가족은 돈을 더 줘야 한다. 소년 쪽에서도 소녀의 어머니에게 약간의 금을 준다.

고국 문제

미국에서 학교를 시작할 때 나는 다른 인도 학생들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말라얄람어와 내가 집에서 쓰는 힌디어를 사용하고 있었다.(이것은 내가 꿈에서 쓰는 말이다.) 그들과 얘기를 할 때면 조금은 인도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 몇 명은 고국 문제를 함께 가지고 온다. 예를 들면, 그들은 ‘카슈미르’라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 한 지역을 놓고 논쟁을 한다. 파키스탄에서 온 여자아이가 말했다, “카슈미르는 우리 꺼야, 인도는 그 땅을 가질 권리

가 없어.”

내가 말했다, “난 카슈미르의 주인이 아니야, 그 싸움에 끼고 싶지 않아. 우리는 미국에 있잖아. 서로 친구처럼 지내야해.”

친구처럼.

내가 과연 인도에 있는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될까? 나는 궁금해진다. 친구들은 나를 위해 책에 사인을 해주었다. 지금은 슬픈 생각이 들 때면 그 책을 열어서 친구들이 쓴 글을 읽는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라주는 이렇게 썼다, ‘사랑하는 수자다, 네가 떠나기 전인테 벌써 그러구나!’

인도에 대한 빠른 회상

인도에서 나의 하루는 다섯 시 반에 시작되었다. 나는 학교 버스를 여섯 시 반에 탔다. 학교는 영국 시스템에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과목이 힌디어 수업을 제외하고는 영어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는 점심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집에서 점심을 가져왔다.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국민 윤리다. 인도는 수천만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또한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근래의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웠다. 그는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했다. 그러나 그는 그 투쟁에 결코 폭력을 쓰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 단식으로 들어갔다.

간디는 또한 ‘불가촉천민’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투쟁했다. 인도의 모든 곳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카스트 계급으로 나뉘진다고 믿는다. 상류 카스트 사람들은 하류 카스트 사람들 즉 불가촉천민이 그들과 같이 앉거나, 얘기를 하거나, 함께 종교적인 숭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류 카스트 사람들은 심지어 상류 카스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할 수도 없다. 간디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국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간디의 사상을 이용했다.

치킨 카레

인도에서 우리는 할아버지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 삼촌 한 명도

거기에서 살았다. 축제 때가 되면, 할머니와 어머니는 ‘차나샤그’와 같은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요리에는 병아리 콩과 시금치, 밥과 아주 아주 매운 치킨 카레가 들어갔다.

집 안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전기기사 일을 마치고 집에 있었다. 삼촌과 할아버지도 집에 있었다. 어머니는 결혼 전에만 일을 했었다. 결혼 후에 어머니는 가사일 만 했다.

내가 어렸을 때, 특히 휴가 때면, 이런 말을 들었다, “우리는 미국으로 갈 거야.” 나는 그것이 우리의 계획인 것을 알았다. 단지 언제가 될지 모를 뿐이었다. 이모와 다른 삼촌이 내가 태어나던 해에 여기로 왔다. 그들은 바로 우리 가족 모두가 올 수 있도록 이민신청을 했다. 그들은 우리 모두를 위해 애썼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아이 둘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모와 이모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다.

새로운 시작

3년 전에, 그 때까지도 다른 삼촌 와서는 우리에게 말했다, “누군가 서류 때문에 전화를 할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미국에 간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외국으로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여권발급 사무소도 없었다.

아버지의 출생증명서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사진을 찍어야 했다. 그리고는 여권과 비자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가야했다.

오빠는 대학 1년을 이미 마친 상태였다. “이젠 미국에 갈 마음이 없어졌어요.” 오빠가 말했다.

“장래를 생각해야지. 거기서는 공부도 할 수 있고 더 나은 직장도 얻어 친구들도 도울 수 있어, 특히 존 말이다. 그 아이는 아빠가 없잖니” 아버지가 말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른다.

일단 서류를 갖게 되자,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인도 가수의 테이프가 있었다. 그것도 역시 팔아야 했다. 부모님은 돈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 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도왔다. 아버지는 약간의 연금이 있었는데 일 년 반 후면 받을 수 있었다. “그 때가 되면 돈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했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되었다.

“우선 텔리로 가는 데 기차로 3일이 걸려,” 엄마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아랍 에미리트에 있는 아부다비로 가는 비행기를 탈거야. 그게 대략 네 시간에서 여덟 시간이 걸려. 거기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거야. 그것은 17시간에서 19시간이 걸릴 거야. 너무 길긴 하지만 그 끝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 될 거야.”

우리 부모님의 꿈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여자 형제, 남자 형제,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그 자식들과 같이 산다. 우리 집은 지하실에 있다. 이모 가족은 위층에 산다. 북적대긴 하지만 좋다.

부모님이 일자리를 잡는 데는 3,4개월이 걸렸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여기 온 게 잘못된 아닐까요?” 어머니가 물었다.

아버지는 지금 주유소에서 일한다. 엄마는 인도 가게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엄마는 비닐에서 옷을 꺼내 개어서 선반에 놓는 일을 한다. 그러나 지난주에 주인이 가게 문을 닫았다. 집세가 올라가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지금까지 일을 구하지 못했다. 나는 엄마가 부업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오빠가 돈을 벌기 위해 잠시 학교를 그만 두었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나는 샵 라이트, 타코 벨, 피자헛에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지원서를 가지고 있다.

인도에 있을 때 나는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없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로 그 수가 약 10억 정도 된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사람이 일을 갖는 것은 아니다.

나는 미국에 있는 것이 행복하다. 내가 여기에 있게 해 준 미국인들에게 감사한다. 나는 독립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방식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선생님과 부모님께 예의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공부를 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꿈과 야망을 이루어야 한다.

깊이 들여다보기

메건과의 인터뷰

홍콩에서 온 16세 소녀

홍콩은 1997년 7월 1일까지 영국의 보호령 아래 있었다. 이때부터 홍콩은 중국의 특별 행정구가 되었다.

나는 관찰자이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어른들을 보게 된다. 나는 그들에게서 배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철학을 내 것으로 수정한다.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자유와 폭력

나의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은 홍콩과 자유를 얻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다. 외할머니가 말했다. “끔찍한 일이야,” 그리곤 아주 괴로워 보였다. 중국 정부는 그 사건을 ‘문화혁명’이라고 불렀다. 수백만의 도시 사람들이 강제로 시골로 이주되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평생을 살아온 곳을 떠나야 했어. 네 엄마는 그때 어린아이였지. 가족들은 흩어지고 먹을 음식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죽어갔지.”

문화혁명 후에 우리 부모님의 가족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떠났다. 두 가족 다 부유한 가정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이하였다. 어머니의 가족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로 이주해갔다. 아버지의 사촌은 호주로 갔다. 다른 친척은 태국으로 옮겨갔다. 우리 부모님들은 홍콩에서 만나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결혼했고 많은 직업을 가졌었다. 아버지는 요리사에 가수, 은행 일도 했다. 어머니는 청소일도 했었고, 미용사도 되었다가, 가재도구를 팔기도 했다.

내가 태어난 후로 부모님들은 걱정이 더 많아졌다. 엄마가 말했다. “홍콩은 위험해. 마약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야. 너를 보호해야겠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마침내 미국으로 갈 수 있었다.

나는 여섯 살이었다. 우리가 떠나던 날, 할머니가 말했다. “서둘러라. 메건. 아파트 주위를 세 번 돌아서 여기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을 해라.” 나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났다.

정신은 남아있다

사람들은 내가 할머니를 닮았다고 한다. 할머니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나도 따라 가곤 했다.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다. 내가 1년 동안 울고불고 했더니 부모님들은 나를 다시 할머니에게 돌려보내기로 하셨다.

우리 할머니는 친구들인 다른 젊은 할머니들 같지 않았다. 할머니는 말했다. “메간, 그 할머니들과 얘기를 많이 나눠라. 그러면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게다.” 할머니는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루는 할머니가 종이 한 장을 잡더니 불로 태웠다. 우리는 종이가 재가 되어 떨어져 쌓이는 것을 같이 지켜봤다. 그녀가 말했다. “종이는 다른 모양이 된 거야. 그러나 그 정신은 남아있어.”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그러나 어린 아이는 어른에게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냥 듣고 지켜봤다. 할머니는 꽃꽂이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 일은 홍콩에서 아주 중요하다. 할머니에게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그녀는 늘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바느질 하는 법, 스케치 하는 법, 피아노 치는 법. 나는 그녀가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우리 가족들은 대부분 천주교 신자이다. 몇몇은 불교 신자이다. 할머니는 신앙심이 깊다. 할머니가 말했다. “다른 종교는 믿으면 안돼, 무신론자로 안 된다.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그녀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격려 해주었다. “무엇을 하든지 너의 노력을 모두 기울여라. 그러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결과에 대한 생각은 없이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홍콩에 있는 사람들이 ‘천안문 대학살’이라고 부르던 것을 기억한다. 그 당시 우리학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수업을 중단했다. 우리는 강당에 모여 멀리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봤다. 학생 시위자들이 넓게 트인 광장에 있는 그 도시의 중앙 천안문에 있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민주주의를 원했다. 농부들은 일을 멈추고 시위대에 가담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역시 거기로 모여들었다. 시위자들이 내 형제와 자매들같이 느껴졌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어린 학생들은 이런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경험이 없어. 그들은 중국의 역사나 중국정부가 사실상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통제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어. 그들은 단지 시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들은 결과에 대한 생각은 없이 시위를 하고 있어.”

그 후에 비극이 찾아왔다. 중국정부가 사람들을 총으로 쏜 것이다. 나는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도 나는 수많은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천안문 광장을 보면서 나는 죽은 학생들이 영혼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민주주의 곧 우리나라에 찾아올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전환점

나는 등불이 많은 방에 있는 상상을 한다. 거기에는 너무 아름다워서 손을 댈 수도 없는 아름다운 꽃병이 있다. 그러나 거기에 ‘만지지 마시오.’라는 표시는 없다. 내가 꽃병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긴장이 된다.

질문은, 만져 봐도 될까?

만져봐도 된다. 그리고 나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를 진짜 두렵게 하는 것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음을 들으면, 놀라서 펄쩍 뛰는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상치 못한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나는 할머니를 위해 피아노를 쳤다. 그 음악이 나에게서 위로가 안 되었지만 할머니는 늘 웃곤 하셨다.

나는 또한 할아버지를 위해서 강해져야 했다. 할아버지는 담배를 피셨다. 내가 말했다.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시면 안돼요.”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담배를 끊었다. 나는 열 살 이었다. 여전히 어린아이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때가 나에게 전환점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데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나는 할아버

지를 위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매일 할아버지 눈은 눈물로 가득했던 것을 기억한다.

부모님이 말했다, “메간, 미국으로 돌아올 때야. 너는 여동생이 있고 새 남동생도 생겼어.”

해질 녘을 기다리기

그 때 나는 열한 살이었다. 지금은 열여섯 살이다. 중국 사람으로서, 홍콩에서 온 사람으로서, 나는 우리가 모두 현명하다는 고정관념에 빠진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처음에 나는 단지 바람 부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길 원했다. 나에게는 본받을 만한 모델이 없었다. 나는 또래 압력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믿는다. 나는 방안에 앉아 해질 녘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글귀들을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곤 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몰랐다. 사실, 나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기쁨 행운 클럽(*the Joy Luck Club*)이라는 비디오를 봤다. 눈물이 나왔다. 엄마와 딸의 관계가 감동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때때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나는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얼마나 우리가 서로 동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설령 우리가 다른 언어를 쓴다할지라도 서로의 장점으로 부터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 모든 내면을 보면, 우리는 같다.

승리

나는 다른 중국 십대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두 문화에 대해 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래서 나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당신과 얘기하고, 놀고, 텔레비전을 보는 데 일주일에 몇 시간을 보냅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집에서 배우는 것과 상충됩니까?’와 같은 질문을 이용한다.

이 모든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부모님은 지금 나와 미국의 생활 방식에 더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내가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를 믿고 있다. 지금 나는 미국 시민이다. 우리 모두,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 모두 다 미국시민이다. 할머니는 말하곤 했다. “메간, 중요한 것을 생각해라. 그건 미래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영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영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나는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어느 정도 두 문화 사이에 있다. 나는 나다. 나는 내가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이야기 8

다민족 국가

1790년, 독립선언 초안이 작성되고 미국혁명이 시작되어 14년 후에, 첫 연방 이민 관련 법규가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그 날 이후로, 이민법은 통과되고, 확장되고, 변화되고, 수정되었다. 그리고 그 날 이후로, 일부 미국인은 자유의 여신상이 든 환영의 횃불과 같이 이민자들을 반기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이민 반대자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오늘날의 미국은 거의 다섯 명 중 한 명의 아기가 미국 라틴 아메리카계 엄마에게서 태어난다. 수적으로 늘어가는 미국인들은 미국이 어느 하나의 인종만으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들의 과거는 여러 문화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뿌리에 대해서 거의 모르며, 많은 사람들이 아예 관심도 없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미국 땅에서 가장 오래된 조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체로키족, 나바호 인디언, 수우 인디언 등이다. 이와 같이 여러 민족들의 국가가 유럽인들이 첫 전초기지를 이 대륙에 세우기 이전부터 수세기 동안 이미 여기에 세워져 있었다. 처음부터 미국은 다민족 국가였다.

짧은 이야기

에리카 말도나도

뉴욕 브롱크스, 루즈벨트 고등학교

나의 민족

나의 민족은 나의 나라
아름다운 창조물
내일의 미래
더 나은 세대
푸에르토리코인, 흑인, 도미니카인, 쿠바인,
우리 다른 형제, 자매가
서로 합쳐져
다른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네.

과거에는 우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네.
지금 우리는 머리를 높이 들고,
당신의 눈 보기를 두려워하지 않네.
단어 하나로, 응시 하나로
우리를 나타내기를 두려워않네

우리는 당신의 얼굴에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 말을 하겠네
그러니, 너희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
편견을 버리라.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아,
“그 이민자들”이 우리의 이름이 아님을
말해주겠네.

우리는 더 강해졌으니, 자, 우리를 존중하고,
나의 민족에게 다가올 때는
바른 태도로 오시오!

칼빈

나는 뉴욕에서 태어났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부모님들은 스무 살 때 트리니다드 섬에서 뉴욕으로 오셨다. 그때가 1950년대 말 경이었다. 그들은 이탈리아인 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조상은 그전에 이탈리아에서 왔다.

우리 아버지의 부모님은 동인도(방글라데시)에서 왔다, 하지만 아버지는 체로키족,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페루인의 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모습에서 그런 혈통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땐 도움을 구한다. 나는 양심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레이안

나는 우리 가족의 역사를 사슴고기 렌즈콩 수프에 비교한다. 어머니는 이 수프를 만드는데, 그 맛이 기가 막히다. 대부분의 재료는 잘 알려진 것이지만 몇 가지 비결이 있다. 친할머니는 누가 아버지인지 확실히 모른다. 내가 생각할 때, 할머니의 어머니는 이혼하셨고, 결국 우리 할머니를 갖게 만든 남자와 바람이 났던 것 같다.

할머니는 얼굴이 아주 까무잡잡하다. 어떤 때는, 할머니와 삼촌 몇 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보인다. 나는 이것이 놀랍다. 나는 금발과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어디서 나온 건가?

여가 시간에 나는 사진들을 음악과 합친 비디오를 만든다. 올해 할머니 50주년

생신에 이것을 만들었다. 할머니의 소중한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일부는 미국 인디언, 러시아인, 독일인이 있었다.

아직까지도 나는 우리 가족 역사에 끊어진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 수께끼 같은 사람이다. 꼭 그 수프 같다.

렌튼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허리케인 앤드류의 위력은 나무를 뿌리째 뽑아 놓았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과 더불어 집까지도 빼앗아 갔다. 모든 사진들, 증조할머니의 수놓은 레이스 천, 할머니가 아끼는 접시 등등 모두 사라졌다. 지금은, 폭풍우가 불어 닥칠 때면 무섭다. 이런 것들이 뿌리하면 생각나는 것이다.

아마리리스

나는 독일인 어머니에 푸에르토리코인 아버지가 있는 미국인이다. 내가 더 어렸을 때, 백인이라기에 너무 검고, 푸에르토리코인 이라기에는 행동하거나, 말하고 먹는 것이 너무 백인 같아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

나는 종종 기분이 상하곤 했었다. 내가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신뢰하지 않아서 아니라 누군가 그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 인생의 이 시점에 생각해보면, 나는 혼혈인인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스페인인과 독일인이라는 두 세계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피터

나는 다섯 개의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아버지는 러시아인이자 오스트리아인이다. 어머니는 흑인이고 서인도계 중국인이다. 나는 미국 라틴 아메리카계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당혹스런 경우가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 인종이 아니라는 것을 몰라본다.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미국에서 태어나셨다. 나도 역시 여기서 태어났다. 내가 가진 그 모든 인종 배경 때문에, 그것이 내가 미국인으로서 나 자신을 보는 방법이다.

테드

하와이 언어 기술 교사

혈통에 관한 한 나는 이렇다 할 뿌리가 없다. 나는 중서부에 있는 독일 혈통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 독일계의 후손들 대부분은 그들의 뿌리를 잃어버리거나 지워버렸다. 내가 교사로 일하던 초기에, 아내와 나는 하와이로 이사 왔는데, 이곳에서 30년 넘게 가르치고 있다.

나는 언제나 백인 아웃사이더였다. 그러나 알로하 주의 아름다운 다문화 환경 속에 적응해왔다. 솔직히 말해 나는 모든 사람의 문화에 다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 주위의 문화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진정한 나만의 문화를 가져본 적이 없다.

알렉

나는 3대째 순혈통 미국인이다. 우리 가족에 대해 내가 아는 전부는 우리의 뿌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다른 몇 지역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내가 사는 곳이다. 미국은 내가 좋아하는 곳이다. 나는 아주 국수주의자다. 어쩔 수가 없다. 나는 정말 내가 어디서 왔는지 관심 없다. 오로지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다니엘

나는 미국 인디언이다. 할머니는 남부 애리조나의 시골 마을에서 오셨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하려고 고향 코치티를 떠났다. 그들은 사실상 처음에는 부족들의 땅이었던 시 관할 시민농장인 인디언 보호지역에서 살았다. 그 보호지역에는 일자리가 없었다. 그곳은 생각 했던 것과는 달랐다. 우리 종교는 어떻게 보면 반반이다. 위쪽 지역에 사는 사람 모두가 천주교 신자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많은 일반 인디언 의식들을 천주교와 섞여 있다. 스페인 문화 역시 섞여있다.

긴 여행을 하기 전에, 우리는 신께 복을 빌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다. 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번은 뉴욕 시로 여행을 갔다. 거기에서도 그 복이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거기는 정말 혼란스러웠고 이 곳과 같지 않았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말을 걸지도 않는다. 내 말은 코치티에서는 서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남자가 권위를 갖는다. 아주 간단하다. 남자들이 일을 한다. 집에 와서는 먼저 먹는다. 남자 아이들은 남자 어른과 같이 먹는다. 어른이 집에 오면 우리 의자를 내 드린다. 식사를 드리고 질문을 하지 않는다.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한다.

나는 앨버커키 근교에 침실이 세 개 있는 집에서 살았다. 그 집에는 변형한 서재와 거실, 식당, 식당 겸 부엌, 사무실 그리고 큰 뒤뜰이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레게 인터네셔널과 느린 헤비메탈 발라드로 그 음악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금 나는 졸업반이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아시아에 대해 배웠던 것이 기억난다. 나는 불교에 대해서도 꽤 많이 알고 있다. 지난번에 일본 관광객들이 이 마을에 왔었다. 우리와 그 사람들의 얼굴 구조가 비슷해서 놀랐다. 내가 배우면서 생각하게 된 것이지만 미국 인디언의 조상들이 수천 년 전에 아시아에서 살았던 것 같다. 세상이 육지로만 되었을 때, 조상들은 지금 알래스카로 걸어서 건넜고 그리고 나서 대륙의 나머지 부분으로 내려갔다.

깊이 들여다보기

열세 살 메노미니 소녀 재키와

메노미니 문화 교사이자 전부족장 존 텔러와의 인터뷰

이것은 가장 오래된 거주자와 가장 최근의 거주자로부터 받은 이야기이다.

재키:

나는 메노미니 사람이에요. 메노미니 사람들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지금은 마을에 있는 한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이곳은 위스콘신 주, 메노미니 족 보호 지역의 일부예요. 나는 부모님과 살아요. 형제 셋, 자매 셋 그리고 두 명의 이복 자매가 있어요.

여기 사는 친척도 있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할머니였는데 돌아가신지 얼마 안됐어요. 할머니는 내가 존경할 만한 좋은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내게

할머니 어렸을 때 얘기,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지금과는 얼마나 다른지 말씀하시곤 했어요. 할머니의 어린 시절에는 나무와 동물들이 어디에나 있었고 아름다운 울프강이 인접해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예전에 우리는 산딸기도 따고 요리도 하고 고기도 잡았어. 손으로 빨래도 했단다. 그때는 닌텐도나 타는 그네도 없었어. 놀 땐 하키와 비슷한 라크로스를 했어.”

지금도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해주시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생살 부족

처음에 울프 강 끝에 곰 한 마리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 곰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곰은 신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신이 그렇게 해 주었을까? 신은 말했다, “좋아,” 그는 곰을 사람으로 바꿔주었다,

사람이 된 곰은 계속 걸다가 황금 독수리를 봤다. 그가 말했다, 내려와서 나의 형이 되어 줄 수 있나요? 독수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계속 걸었고 학과 늑대를 만났다. 그들은 비버를 양녀로 삼았고 그녀는 최초의 여자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땅 위의 첫 메노미니가 되었다. 메노미니란 야생살 부족이라는 뜻이다.

깃털, 염주, 천막이 아닌

나는 여행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살러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외국에 어떤 나라들은 전쟁을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안전하길 원해요. 외국에 어떤 곳은 일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싶어 하지요.

나는 가장 최근에 미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들인 우리부족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미국 원주민이나 인디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고 싶어 했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가 육지에서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거기서 그는 자신이 인도에 있다고 생각했

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디언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나 그가 틀렸어요. 당신은 우리를 미국 원주민이나 인디언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족 이름인 메노미니로 불러준다면 더 좋겠어요.

우리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아마도 우리를 단순히 깃털과 염주와 천막으로 떠올릴 거예요. 그것도 틀린 거랍니다.

존 텔러:

나는 메노미니 학생들에게 더 큰 사회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역사, 우리의 노래, 우리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문화에서 우리의 존재는 태어나기 이전과 죽은 이후 그리고 그 사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전해 왔는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히 낡은 생각을 고수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그러움, 용기, 용맹 그리고 존경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들을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땅에서부터 모든 인종을 망라하는 우리 동포까지 그 모든 것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인종주의자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대신에 사람들의 성품으로 개인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만일 견고한 자기 정체성을 세워왔다면 세상 밖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심지어 우리 인디언 보호지역 안에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의지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미국인들처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룰 권리가 있습니다.

영혼 바위

채키:

당신이 우리를 방문하러 온다면,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해주고 영혼 바위를 시작으로 인디언 보호지역 여행을 하게 해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시곤 했어요. “채키, 옛날에 세 명의 전사가 있었다. 그들은 신에게 다른 선물을 달라고 부탁했어.”

“첫 번째 전사가 말했지, ‘나는 착한 아내와 가족을 갖고 싶어요.’,

“두 번째 전사가 말했다. ‘나는 사냥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전사가 말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소

원에 창조주는 그 마지막 전사를 영혼 바위로 바꿔버렸어.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영혼바위로 가서 담배를 거기에 놓고 기도를 하지.”

그때 할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그 바위가 흔들리면, 이 보호 지역에 순혈통 메노미니는 없게 될 거야.”

우리는 신앙심이 깊어요. 우리에게 빅 드럼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교회와 비슷한 거예요. 누구나 환영이지요. 우리는 노래를 불러요, 특히 매주 수요일에는 거기에 기도하러 가요. 우리는 미국에 있는 모든 부족들과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존 텔러:

우리는 나라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나는 부족장이었습니다. 부족장은 나라의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 연방이 인정한 557개 부족 중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각 나라는 문화적으로 뚜렷이 구별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집과 전설과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300개의 다른 인디언 언어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1924년에 처음으로 미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훨씬 이전에는, 미국 독립전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땅을 방어하는 인디언 전사들이 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강한 애국심입니다.

징글드레스 댄서/ 치어리더

재키:

매년 우리는 다른 모양의 춤이 행해지는 두 번의 주술의식을 해요. 나는 징글 드레스 무용수예요. 할머니는 아빠에게 내가 그 무용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영광스런 일이에요.

하지만 아시나요? 나는 또한 치어리더랍니다. 나는 배구팀에 있어요. 다른 열세 살짜리들과 똑같이 기초반 과정을 받아요. 국어, 과학, 사회, 수학, 컴퓨터, 음악, 체육. 아, 하나 더, 메노미니 어가 있지요. 나는 일종의 데이트를 하는데 부모님들도 대략 알고 있어요. 아빠는 말씀하시죠,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엄마는 말해요, “우리 부족 안에서 사람을 만나려고 해라, 만일 아니더라도, 남자 아이가 너에게 잘 대해주고, 우리 종교를 존중한다면 괜찮다.”

존 텔러:

우리에게 있어서 이민 문제는 보호지역 안팎의 삶을 종종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기회를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방정부는 이전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인디언들이 국내의 다른 사람과 섞여 살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에는 이곳을 떠나도록 돈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61년 연방정부는 메노미니 족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부족도 아니었고 보호지역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로비 활동을 벌인 끝에, 우리는 연방 상태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1971년입니다.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이 다시 보호지역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격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웁시다.

환영해요

재키:

나는 메노미니 족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나는 여자들 사이에 있기, 요리하기, 아기 돌보기, 옷 만들기를 좋아해요. 남자만이 우리 종교에서 파이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남자들은 드럼 옆에 앉을 수 있지만 여자는 그럴 수 없어요.

남자아이가 처음으로 사슴 사냥을 하면 그것을 잘라서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해요. 큰 잔치가 있는데 튀긴 빵과 고기, 야생 쌀과 맛있는 케이크가 나와요. 여자아이들도 사냥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개가 사냥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나는 미용술로 가고 싶어요. 어떤 때는 변호사가 되는 꿈도 꾸지요. 나는 울프 강을 걸어요. 사람들은 우리 근처에서 채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과, 물고기, 산림에 영향을 줄 거예요. 나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나는 보호지역을 돕고 우리 부족이 좋은 미래를 갖도록 돕고 싶어요.

가장 최근에 이민 온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차이점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닮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오늘날의 이민 9

학생 활동

가족불화

당신의 옆에 있는 세 사람에게 오늘날의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라. 이민자 수가 증가하게 해야 하는가, 감소하게 해야 하는가 아니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가? 일단 여기에서, 새로 온 사람들에게 어떤 제한이나 권리가 적용되어야 하는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떤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는가? 그리고 미국에서 불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정이 그렇다면 빨리 피하라. 곧 거대한 미합중국의 가족불화와 같은 언쟁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이 장에는 의견들과, 짧은 이야기, 설문조사와 질문들이 나와 있다. 대부분이 교사학교, 에딘버그, 텍사스, 모리스 중학교, 뉴욕 스테이튼의 학생들이 기여한 것이다. 워싱턴 배션 아일랜드의 배션 아일랜드 고등학교와 위스콘신 네오핏 메노미니 부족 학교의 학생들이 또한 다양한 설문지를 작성해주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비교해보라. 그리고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미국 시민권 테스트와 개인 인터뷰에 당신이 통과할 수 있는지 보라.

지금 이 정보를 덧붙여보라. 사상 최대의 다년간 연구에 따르면, 이민 가정의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모국어보다 영어를 더 선호하며 미국 아이들 보다 높은 학업 성취율과 낮은 중퇴율을 보였다. 그들은 또한 이 나라가 세상에서 살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고 믿는다.

1. 셸리아 더거, “설문조사는 이민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다. 뉴욕 타임즈(1998. 3. 22)

십대는 이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계곡에서 온 목소리

글래디 실바

교사 아카데미

나는 산후안 서클의 우리 이웃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민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산후안은 텍사스 최남단의 리오그란데 계곡에 있다. 이곳은 텍사스 멕시코 국경의 북부 8마일 지역으로, 멕시코 걸프에서 60마일 떨어져 있다. 산후안은 고속도로 281을 따라 파(Pharr)의 동부에 있다. 인구는 약 13,000 명이다.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은 농업, 수입/수출 그리고 관광이다. 온화한 기후와 긴 생장기는 감귤과 광목 생산에 도움을 준다. 쾌적한 가을과 겨울 날씨를 또한 북부의 추운 날씨를 피해 많은 오락 시설을 즐기려고 내려오는 많은 “겨울 텍사스인”의 관심을 끈다.

국경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과 교역을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가장 좋은 관광지 중의 하나는 산후안 신당이다. 그것은 현재 고속도로와 인접해있다. 대략 만 명의 관광객이 매주 순례 길에 오른다.

멕시코 이민 농부들은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영어를 모르고 종종 최저 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기본적인 설비도 없는 수준 이하의 주택에서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 생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생관은 긍정적이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요하며 대개가 미국 라틴 아메리카계의 유산을 가졌다. 그리고 가족과 사회를 매우 사랑한다. 그들은 미국의 문화조각에 노래와 춤, 시, 연극, 예술의 엄청난 부요함을 가져다주었다.

내가 들었던 많은 의견들 중에 몇 가지를 나열해 놓았다. 마지막은 나의 것이다.

나는 왜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바로 그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밭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제시카 리베라

나는 이민이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야니라 실바

나는 아무것도 없이 중앙아메리카에서 이민을 왔다. 지금은 집과 차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이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블랑카 발렌주엘라

우리 이웃의 대부분이 가정부로 불법 이민 여성들을 쓰고 있으며 그 여성들은 일을 아주 잘 한다. 따라서 해가 안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앤지 디아즈

나는 미국으로 오기 위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30~40명의 사람들이 화물 기차에 숨어 들어오다가 대개가 탈수 증세로 죽었다.

-알레잔드로 모레노

나는 이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여성들은 우리 정부로부터 육아 혜택을 얻기 위해 임신을 하고 넘어온다.

-클라우디아 산체스

이곳은 많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다. 그들이 여기로 이민을 오려는 열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인종의 용광로"로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문화 때문에 부자 나라가 되었다.

-후아니타 마르티네즈

나는 이민 와서 자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는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는 사람들을 돕는 쿠바와 콜롬비아 인 의사가 많다.

-글래디스 실비아

몇 개의 의견 더

다른 두 명의 교사 아카데미 1학년 학생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이것은 그 학생들이 들었던 것을 요약한 것이다:

이민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들이 법을 어긴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린드세이 휘튼

비록 그들은 직장과 집 둘 다 있어야 하지만 누구나 미국으로 오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들은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직장을 얻었을 때는,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매튜 보워

짧은 이야기

설문 조사 뒷이야기

이백 이십 일명의 사람들

129쪽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설문지가 있으며 오늘날의 이민과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다. 13개의 질문은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모리스 중학교 1학년 신문 반이 작성했다. 그들은 나이 10세 이상, 221명의 사람들에게 답을 작성하도록 부탁했다.

학생들은 심지어 한 단계를 앞서 갔다. 그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이야기도 말해주

었다. 아래에는 그들의 실제 삶이 담긴 짧은 이야기(좋아하는 요리법)가 몇 개 실려 있다. 그것은 한 학급 안의 인종 배경의 범위와 그 배경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티산 윌리엄스

내가 열 살 때, 할머니는 나 그리고 내 형제들 여섯 명과 어린 여동생을 입양하셨다. 나의 어머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고, 체로키 족이었다. 아버지는 푸에르토리코 사람이다.

나는 롤러 블레이드를 타기와 자전거 타기, 농구하기와 걷기를 좋아한다. 나는 또 쇼핑과 여행을 좋아한다. 나는 심심하게 앉아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이 친구인 척 하면서 뒤에서 홍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커서 소아과의 사나 변호사 아니면 사진 기자가 되고 싶다.

호위 킬레만

나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 나는 천주교인이다, 유대인이며, 이탈리아인, 폴란드인, 그리고 조금 아일랜드 피가 섞여 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지티와 같은 이탈리아 음식이다.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은 *엑스 파일(X-Files)*, *슬라이더스(Sliders)* 그리고 *밀레니엄(Millennium)*이다. 나는 '닌텐도 64'를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볼링이다.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에버리지 90이었다.

킴벌리 지저스

나는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수우족 인디언, 노르웨이인 그리고 아일랜드 계 사람이다. 증조부모님은 베스따무(Bestamor)와 베스따파(Bestafar)로 불렸는데, 노르웨이 말로 할머니와 할아버지라는 뜻이다. 의붓아버지 쪽에는 노노(Nono)와 노나(Nona)가 있는데 이탈리아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뜻이다.

나는 내가 가진 유산이 자랑스럽다. 나는 피자과 아이스크림, 피클 그리고 대체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나 멸치는 싫다). 나는 샐러드를 좋아한다. 나는 유머러스한 사람이다.

질리안 라우브

부모님 두 분 모두 반은 아일랜드 인이고 반은 독일인이다. 나는 정간호사인 어머니와 신문 발행인인 아버지와 산다. 그리고 남동생도 함께 산다. 내가 장남인 것과 누군가 나를 우러러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즐겁다.

한 가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거나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놀릴 때다. 나는 개성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 생각이다.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켈럼 워

나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스리랑카에서 태어났다. 나의 종교는 불교이다. 네 자녀 중에 네 번째다.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스타워즈의 왕 팬이다.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너를 꽤 주겠어.”라고 말하는 게 싫다. 나는 대학에 가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프로그래머나 루카스 아트의 게임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미구엘 에스코베도

나는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났고 여자 형제 두 명이 있다. 우리는 천주교인이다. 나는 두 가지 언어를 할 줄 안다. 앞으로 나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배울 계획이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스쿼시와 마약 그리고 잘난 척 하는 사람이다. 커서 화학자나 변호사 아니면 해저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음식은 멕시코 요리 엔칠라다와 스페인식 매콤한 닭요리다.

알리 드메오

이것은 우리 독일인 고조할아버지 요한 엠 캠프러(1830-1915)의 사진과 아일랜드인 고조할아버지 윌리엄 씨 카세이(1840-1923)의 사진이다. 나는 이탈리아인, 프랑스인, 영국인 피도 갖고 있다.

내 사촌은 운전하고 있는 차도로 와서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던 임신한 아이티 여자를 입양했다. 지금 아기는 다섯 살이고 그 여자는 거의 대학을 마쳤다. 그들은 지금 우리 가족이 되었다.

달콤한 유산: 모리스 중학교에서 보내온 요리법

쿠키 두 봉지 만드는 법

스테파니 마르셀로

나는 미국인이자 이탈리아인이며 독일인이다. 나는 자랑스러운 천주교 신자이다. 나는 여동생과 엄마, 아빠가 있다. 나는 여가 시간에 즐기는 것은 아주 많은데 특히 스포츠를 좋아한다. 나는 말하기 재능이 있다. 아주 탁월하다. 아니,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한 번에 몇 시간이고 말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두 봉지 분량을 위한 재료, 가족 수나 쿠키의 크기에 따라 수십 개가 될 수 있음

달걀 13개

소금 1ts

밀가루 3과 1/2 파운드

설탕 1 파운드(1컵)

바닐라 1ts

베이킹파우더 13ts

만드는 방법:

오븐을 화씨 325 도로 미리 가열한다.

1. 큰 그릇에 모든 재료를 넣고 섞는다.
2. 반죽 소량을 떼어내 동그랗게 빚어 얇고 긴 조각으로 만든다. 그리고 나서 두 끝

을 같이 쪄낸다.

3. 판에 쿠키를 올려놓고 오븐에 넣는다.

4. 쿠키가 밝은 금갈색이 될 때까지 굽는다.

고구마 파이 속 만드는 법

해롤드 돌리슨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엄마는 아루바에서 왔고 아버지는 그레나다에서 오셨다. 나는 그레나다에 가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아루바에는 한 번 갔었다. 그곳은 무덥고 습하다. 거기서 나는 바다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 가족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 나를 보살펴주고 옹고 그림을 가르쳐준다. 나는 언젠가 대학에 가고 사업을 하고 싶다.

재료:

으깬 고구마 가득 3 컵

(고구마 5개 정도 삶아 으깬다.)

설탕 1+ 1/2 C

바닐라 1ts

계피가루 1/2ts

버터 6Ts

넛맥 1/2ts

달걀 5개

무가당 연유 몇 테이블스푼 정도

만드는 방법:

재료들을 섞어 파이 그릇에 담는다. 갈색이 될 때까지 화씨 400도에서 굽는다.

피지바 만드는 법

록산 모리슨

나는 원래 토바고라는 작은 카리브해 지역의 섬에서 왔다. 나는 3년 전 내가 아홉 살 되던 해 8월 미국으로 이사 왔다. 지금 내 키는 5피트 3인치이고 몸무게는 95 파운드이다. 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다. 나는 갈색 피부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고, 중간 정도 길이의 검정 머리를 하고 있다. 나는 지성이 아닌 신체적인 외모로 평가되는 것이 싫다. 나는 장래에 언론이나 미용업 또는 의학 분야에서의 성공하고 싶다.

재료:

좋아하는 초콜릿 2 온스

소금 1/2 ts

쇼트닝 1/4 C

베이킹파우더 1ts

달걀 푼 것 3개

우유 1/2 C

설탕 1C

구운 땅콩 1C

체로 내린 밀가루 1C

만드는 방법:

초콜릿을 녹여 쇼트닝 위에 붓는다. 잘 섞는다. 달걀을 걸쭉해져 레몬 빛같이 날 때 까지 잘 섞는다. 설탕을 달걀에 서서히 넣는다. 설탕을 조금씩 넣을 때 마다 잘 휘젓는다.

초콜릿과 달걀 믹스를 합치고 밀가루를 약간 넣는다. 남은 밀가루와 소금, 베이킹파우더를 함께 체로 곱게 내린다. 우유 약간과 마른 재료를 밀반죽에 넣는다.

잘 섞은 후에 나머지를 넣는다. 잘게 썬 땅콩을 넣는다.

밀반죽을 두개의 기름 바른 가로 세로의 길이가 8인치인 오븐용 접시에 넓게 펴 넣는다. 오븐용 접시는 전에 기름종이를 깔아 둔다. 중간 온도(화씨325도)의 오븐에 20분 동안 굽는다. 1인치나 2인치 크기로 32개가 나오도록 네모 모양으로 자른다. 특히 설탕을 고루 뿌려 얼린 후 땅콩을 뿌려서 내면 더 맛있다.

바나나 푸딩 만드는 법

파비엘레 클라라 스미스

우리 아버지 쪽은 대부분 온두라스에서 왔다. 아버지는 다섯 명의 자식 중에 막내이고 유일하게 미국에서 태어났다. 엄마 쪽의 많은 사람들이 바베이도스에서 왔다. 내 친척들은 미국 전역과 카이만 제도와 온두라스에 살고 있다. 나는 키가 작고 목소리가 크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싫다. 나는 사람들이 귀에다 속삭이는 것이 싫다. 마치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열두 살이고 백양궁 자리 태생이다. (나는 별점과 사람들의 생일에 관심이 아주 많다.) 나는 다른 행성의 생명체와 흡혈귀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재료:

가당 연유 1캔

바닐라 웨이퍼(살짝 구운 과자) 1박스

바닐라 푸딩 1박스

휘핑크림 2 상자

바나나 한 손

레몬 주스 4 + 1/2

만드는 방법:

가당연유와 바닐라 푸딩과 휘핑크림을 섞는다. 혼합재료를 따로 둔다. 바나나를 얇게 썰어 그릇에 둔다. 레몬주스를 바나나 위에 붓고 따로 둔다. 양철 구이 냄비에 푸딩과 바닐라 웨이퍼, 바나나를 차례대로 넣는다. 휘핑크림을 제일 위에 얹는다. 먹기 전에 푸딩을 한 시간 동안 냉장고에서 식힌다.

모리스 중학교의 지역 및 국가 이민 설문조사

자가 설문조사

다른 종이에 당신의 응답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끝나면 130쪽에 있는 응답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질문지 작성자의 나이: __10-15 __16-19 __20-29 __30-39 __40-49 __50-59
60-69 __70-79 __80-89 __90 이상
질문지 작성자의 성별: __남 __여

- | | |
|---|----------|
| 1. 이민자들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 1. 찬성/반대 |
| 2. 이민자들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 입국을 허용해선 안 된다. | 2. 찬성/반대 |
| 3. 이민자들이 미국시민과 결혼한 경우, 시민이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 3. 찬성/반대 |
| 4. 이민자들이 근면한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 예/아니오 |
| 5. 이민자를 한 사람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 5. 예/아니오 |
| 6. 무료 공교육 받을 자격이 이민자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 6. 찬성/반대 |
| 7. 이민자들은 시민이 될 자격을 얻기 위해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7. 찬성/반대 |

8. 이민자들은 국민 복지 체제 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8. 찬성/반대
9. 이민자들은 미국에 많은 공헌을 했다. 9. 찬성/반대
10. 정치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입국허가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 10. 찬성/반대
11.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잡기 위한 일 년이 주어지고 일자리를 잡지 못한 경우에는 강제로 출국하도록 해야 한다. 11. 찬성/반대
12. 당신은 이민자 입니까? 12. 예/아니오
13. 당신은 이민자 친구가 있습니까? 13. 예/아니오

이민 설문조사 결과

해안지방이나 중부에 살고 있는 364명의 사람들이 129페이지의 설문조사를 작성했다:

모리스 중학교와 뉴욕 스테이트 아일랜드 다른 10대 학생들(10~15세): 49
스테이트 아일랜드 성인(20세 이상): 172

워싱턴 배션 아일랜드 배션 아일랜드 고등학교 학생(10~19세): 69
배션 아일랜드 성인(20세 이상): 12

위스콘신 네오핏 메노미니 보호지역 부족학교 메노미니 학생들(10~15세): 62

모든 사람이 13개의 질문 모두에 응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아래 숫자의 합계가 언제나 364는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동했고,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배션 아일랜드 십대 아이가 쓴 글이다. “이 질문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흑백 질문들이 대부분이에요. 두개 다 답이거나 두개 다 답이 아니라는 것이 내가 응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다른 많은 배합으로 분석될 수 있다. 시작부분이다:

1.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찬성: 159 반대: 191
2. (심각한 질병) 찬성: 186 반대: 163
3. (결혼) 찬성: 200 반대: 154
4. (근면한 노동자) 찬성: 261 반대: 47
5. (한 사람 안다) 예: 245 아니오: 98
6. (무료 교육) 찬성: 274 반대: 79
7. (유창한 영어) 찬성: 270 반대: 75
8. (복지) 찬성: 165 반대: 165
9. (공헌) 찬성: 233 반대: 83
10. (입국허가증) 찬성: 132 반대: 145
11. (1년) 찬성: 160 반대: 155
12. (이민자) 예: 36 아니오: 280
13. (친구) 예: 150 아니오: 153

나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 대답이 다른 지 보기위해 질문 세 개를 골랐다. 그것들은 각각 1번, 8번, 11번이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남자	여자
찬성	81	75
반대	71	113

20세 이하, 남자와 여자

찬성	67
반대	102

20세 이상, 남자와 여자

찬성	92
----	----

반대 89

8. (복지)

	남자	여자
찬성	75	91
반대	79	86

20세 이하, 남자와 여자

찬성	92
반대	77

20세 이상, 남자와 여자

찬성	74
반대	88

11. (1년)

	남자	여자
찬성	99	69
반대	72	85

20세 이하, 남자와 여자

찬성	67
반대	79

20세 이상, 남자와 여자

찬성	93
반대	76

시민권 테스트

오십? 이십 육? 십 삼? 십?

미국 시민이 되기 전에, 해당 사람은 미국 역사에 대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지원자는 100개의 질문이 있는 시험지가 주어진다. 그 중 10개를 골랐다. 다른 종이에 당신의 대답을 적어보라. 그리고 133페이지에 있는 정답과 비교해보라. 각 질문의 정답은 1점이 주어진다.

1. 미국 국기에는 줄이 몇 개입니까?
2. 미국 대통령을 누가 선출합니까?
3. 헌법에 대한 변경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4. 미국 정부의 3개부서는 무엇입니까?
5. 현재 대법원의 대법원장은 누구입니까?
6. 권리장전이란 무엇입니까?
7. 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요구 조건들 중에 하나를 쓰십시오.
8. 대통령을 자문하는 특별 그룹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9. 국회의원은 몇 번 재선 가능합니까?
10. 만일 대통령과 부통령이 둘 다 죽는다면,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시민권 테스트 정답

1. 13
2. 선거인단
3. 개정
4. 입법, 행정, 사법
5. 윌리엄 르헨퀴스트(William Rhenquist : 이 책 출판 당시)
6. 헌법의 첫 10개 개정안
7. 귀화하지 않은 시민이어야 한다. 대통령 수행 시 나이가 최소 35세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최소한 14년 살아야 한다.

8. 내각

9. 횡수에 제한 없다.(책 출판 당시)

10. 하원 의장

64명의 워싱턴 배션 아일랜드 배션 아일랜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시험을 봤다.
다음은 그 학생들의 점수와 설명이다.

0점: 4명

1점: 12명

2점: 14명

3점: 10명

4점: 9명

5점: 6명

6점: 5명

7점: 3명

8점: 1명

9점: 0명

10점: 0명

세 명의 학생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모두 죽었을 경우 영부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답했다.

두 명의 학생이 대통령을 자문하는 그룹을 “예스 맨”이라고 썼다. (재치에 1점?)

시민권 질문과 대답

으악!?

미국 시민이 되기 전에, 신청자는 이민귀화국(INS) 관리가 수행하는 이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신청자들은 너무 개인적이거나 당황스럽다고 생각되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모든 질문에 응답해야 한다. 당신이 이민자라고 상상하며 이 질문들을 읽어보기 바란다.

귀화 인터뷰

귀화국 직원: 오른 손을 드세요.

신청자:(선 채로, 오른 손을 든다)

귀화국 직원: 당신이 할 증언들이 진실이며, 완전한 진실이며,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청자: 예

귀화국 직원:

앞으십시오. 당신은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경찰과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조직의 일원입니까?

당신은 공산주의자입니까?

당신은 공산주의 사상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정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작년에 연방 소득세를 냈습니까?

미국 육군이나 해군, 공군에서 탈영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미국의 헌법과 정부의 형태를 믿습니까?

당신은 민간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국가적인 중요한 일을 수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당신은 습관적으로 술을 마십니까?

당신은 일부다처제를 따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매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오도록 도운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마약을 팔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도박으로 생계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까?

영어를 쓸 수 있습니까? 영어로 한 문장을 써 보세요: (귀화국 직원이 쓸 문장을 불러줄 것입니다.)

귀화국 직원: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교사지침서

모의 이민

10년 전에 나는 *New Kids on the Block/New kids in Town* 이라는 책에서 최근 이민자들에 대해서 썼다. 그 이후로, 교사들과 도서관 사서들은 어떻게 이 자료를 교실 활동에 포함시켰는지 말해주었다. 뉴욕 브룩클린 맥킨리 중학교의 독서 교사 마샤 카플란은 학생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 토의한 후에 서로가 더 가까워졌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뻐했다.

나는 당신이 ‘자유의 색(*The Colors of Freedom*)’을 틈틈이 읽으며 똑같이 값진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두 권의 책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책은 열한 명의 십대 이민자들의 구술 역사를 모은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것 훨씬 이상이다. 독자들로 하여금 이민자 경험을 ‘우리과 그들’로 보는 대신에, ‘자유의 색’은 모든 독자들을 생생한 현장으로 이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뿌리에 대한 거의 보편적인 호기심에 접근한다. ‘나는 누구인가?’ 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당신이 이 멋진 모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기 몇 가지 실생활 프로젝트와 모의 연습을 제안한다.

1. 이민 경험과 관련된 장소를 하나 고르라. 예를 들면, 정부 이민국 사무소, 이민

자가 경영하는 소규모 사업체가 있다. 그 곳에 가서 당신이 본 것을 받아 적고, 사진을 찍고 이야기들을 정리해보라. 그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 보라.

2. 134 페이지에 있는 이민국 인터뷰 질문과 대답으로 역할극을 해보라. 그 질문들을 대답할 때 당신의 느낌이 어땠는지 논의해보라. 질문들 중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질문인가? 이 인터뷰가 필요한가?

3. 당신의 조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을 인터뷰하라.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넣어보라. 예를 들면, 가족들이 좋아하는 요리법, 가계도, 당신의 조상의 나라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있을 것이다.

4. 이민자와의 인터뷰를 비디오 촬영하라. 가능하다면, 인터뷰 대상이 같은 반 친구이면 좋다. 그 친구의 모국 생활,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 지금까지 이 나라에 대한 인상은 무엇인지 알아보라. 지도와 사진, 도착 당시의 가지고 있던 것이면 어떤 것이든지 다양한 시각 자료를 포함시키라.

5. 당신이 영화를 만든다고 가정하여 ‘깊이 들여다보기’들 중에 재미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스토리 보드로 만들어보라.

6. 이민과 이민자 경험과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읽고 발췌해서 토론하거나 ‘깊이 들여다보기’에 나온 이민자들의 출생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해보라.

7. 129페이지의 이민 설문지를 가지고 친구나 이웃이 대답하도록 해보라. 그 결과와 책에 나온 사람들과 그들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토론해보라.

8.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의 역사에 대해 공무원을 인터뷰해보라.

9. 학급을 두 팀으로 나누라. ‘깊이 들여다보기’ 부분에 나온 모든 나라들의 위치

를 지도나 지구본에서 어느 팀이 더 빨리 찾아내는지 보라.

10. 학교에서 이민자 학생을 위한 멘토로 봉사해보라. 그 학생이 가진 의문들을 대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라. 숙제나, 학점, 식당, 상담자, 학교 팀, 학부모회 등에 대한 복잡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라.

11. 다음 질문들에 대답해보라. 당신의 대답을 나누고 토론해보라.

질문. 당신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여행가방 하나 만 가져가야 한다면, 그 안에 무엇을 담겠는가?

질문.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이 최근에 이민 온 십대들을 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 당신은 이민 온 사람들과 고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질문. 미국인들의 문화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시 되는가? 공휴일과 전통 몇 가지를 말해보라.

질문.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라는 제목의 수필들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이라면 어떻게 쓰겠는가?

질문. 이 나라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방법으로 이민자들에게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

For more Information

Books

Ashabranner, Brent K. Photographs by Paul Conklin. *Our Beckoning Borders: Illegal Immigration to America*. New York: Cobblehill Books, 1996.

Bartoletti, Susan Campbell. *Growing up in Coal County*. Boston: Houghton Mifflin, 1996.

Berrol, Selma Cantor. *Growing up American: Immigrant Children in America, Then and Now*, New York: Twayne Publishers/Prentice Hall International, 1995.

Fadiman, Anne. *The Spirit Catches You and You Fall Down*. New York: Farrar, Straus & Firoux, 1997.

Greenwald, Sheila. *Rosy Cole Discovers America!* Boston: Joy Street Books, 1992.

Herold, Maggie Rugg. Illustrated by Catherine Stock. *A Very Important Day*. New York: Morrow Junior Books, 1995.

Hunter, Katoya. *The Diary of Latoya Hunter: My First Year in Junior High*. New York: Crown, 1992.

Kosof, Anna. *Living in Two Worlds: The Immigrant Children's Experience*. New York: Twenty-first Century Books, 1996.

Levine, Ellen. Illustrated by Wayne Parmenter. *If Your Name Was Changed at Ellis Island*. New York: Scholastic, 1993.

Lewis, Loida Nicolas, and Len Madlansacay. *How to Get a Green Card: Legal Ways to Stay in the U.S.A.* Berkeley, CA: Nolo Press, 1993.

Olsen, Laurie. *Made in America: Immigrant Students in Our Public Schools*. New York: New Press, 1997.

Perez, Ramon ("Tianguis"). Translated by Dick J. Reavis. *Diario de un Mojado/Dairy of an Undocumented Immigrant*. Houston: Arte Publico Press, 1991.

Shaik, Fatima. *Melitte*. New York: Dial Books for Young Readers, 1997.

Shinto, Jeanne. *Huddle Fever: Living in the Immigrant City*. New York: Knopf, 1995.

Simone, Roberta. *The Immigrant Experience in America Fiction: An Annotated Bibliography*. Netuchen, N.J.: Scarecrow Press, 1995.

Watson, Mary. *The Butterfly Seeds*. New York: Tambourine Books, 1995.

Video

Avalon, written and directed by Barry Levinson, Tri-Star Pictures Productuin. Burbank, CA: RC/Columbia, 1991.

High School of American Dreams, produced by Freke Vuijst and Tana Ross,

A Green Room Production. New York: Filmmakers Library, 1994.

Mississippi Masala, produced by Michael Nozik and Mira Nair. Directed by Mira Nair. Burbank, CA: Columbia Tristar, 1992.

My Antonia, Based on novel by Willa Cather. Produced by Victoria Riskin, directed by Joshep Sargent. Hollywood, CA: Paramount, 1995

Out of Ireland: The Story of Irish Immigration to America. Produced by Paul Wagner and Ellen Casey Wagner, directed by Paul Wagner. Charlottesville, VA: PBS Video, 1995.

Websites

More and more groups are developing genealogical society websites to help people track down their roots. Here are some sample addresses to get you started:

Allen County Public Library (national genealogical collections):

<http://www.acpl.lib.in.us>

Ancestry: <http://www.ancestry.com>

Hispanic Genealogical Society: <http://webcom.com/hgsny>

Irish History Roundtable: <http://www.irishnyhistory.com>

Italian Genealogical Group: <http://italiangen.org>

Jewish Genealogical Society: <http://members.aol.com/jgsny/main.htm>

Lineages: <http://www.lineagesnet.com>

Library of Congress: <http://www.loc>.

Polish Genealogical Society: <Http://feefhs.org>

감사의 글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세대 이전에 이민이라는 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책은 존재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분들이 우리 모두를 미국인이 되게 하기까지 이 모험을 시작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나는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대가족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스탠 맥, 그는 내가 수집한 이야기들을 바꾸어 얘기할 때마다 들어주고, 이 페이지들을 디자인하는데 아주 유익한 지도를 해주었다. 나의 자매들, 바바라와 캐롤린, 그들은 삶과 죽음, 가족 모임에 대한 추억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다. 그리고 코치, 어니, 프리다, 글로리아, 케니, 케리, 페기, 펄, 피터, 스테파니와 나의 많은 친척들께 감사드린다. 그들은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주로 중서부에 많이 모여 산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내 친구들의 가족에게 감사드린다. 린다 브뢰셀, 필리스 케이들, 웬디 캐플랜, 루시 세팔루, 제인 골드버그, 헤이엇과 테드 잣프리트, 케이 프래니, 캐롤 메이애도, 로즈마리와 마빈 마조르, 산산 턴, 그리고 지금은 해체된 세계 주 목요일 여성 작가 모임, 특히 제인 오레일리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안드레아 보로프 에건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의 보조 리사, 스템프, 캐시 이벨에게 역시 감사를 전한다.)

아래에 나열한 사람들은 그들의 집과 학교, 도서관, 사무실로 나를 초대했다. 그들은 내가 학생들과 말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고 특정한 개인들과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었다. 추천받은 사람들 모두가 아주 좋은 사례들이었다. 미디어 전문가 게일 바라코- 뉴욕 그로튼 그로튼 중/고등학교; 아이리스 바움 교장 선생님과 독서 교사 마샤 카플란 - 뉴욕 브룩클린 맥킨리 중학교; 영어 교사 들로리스 브라운, 미디어 전문가 소냐 게이즈마 - 뉴욕 브롱크스 루즈벨트 고등학교; 보스세스, 홀리 카자리노프 - 뉴욕 이타카; 미디어 전문가 도나 처마스 - 뉴욕 패초그 패초그 고등학교; 압델 자밀, 마르완 칼레드 - 뉴욕 브룩클린 베이 리지 이슬람 학회; ESL 교사 카티 파렐과 캐서린 삼순 - 뉴욕주 뉴욕시 리버티 고등학교; 미디어 전문가

자넷 켈판드와 시빌 오스터 - 뉴욕 로렌스 로렌스 중학교; 교사이자 대합고문 줄리아 제페 - 워싱턴 배션 아일랜드 배션 아일랜드 고등학교; 미디어 전문가 카린 콜브레 - 뉴욕주 뉴욕시 머레이 버그트라움 고등학교; 언론 교사 존 크라우스 - 뉴욕주 뉴욕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고등학교; 미디어 전문가 하리에트 루드닉과 ESL 교사 산드라 번박 - 뉴욕 용커스 루즈벨트 고등학교; ESL교사 헤더 루젤 - 뉴욕 로커스트 벨리 로커스트 벨리 중고등학교; 미디어 전문가 제인 슈메이커 - 위스콘신 세보이건 노쓰 고등학교; 미디어 전문가 아다 실버그와 알린 리오 - 뉴욕 로렌스 페닌슐러 공립 도서관; 도서관학 교수(디트로이트 컨벤션 1997년 11월 영어교사협회) 일레인 스테판과 진 브라운 - 미시건, 대학 센터, 새기나 벨리 주립 대학; 앤 발사마키스 오리건 포트랜드; 교장 폴 왈쉬와 (억코네로 부인, 부모) - 뉴욕 스테이튼 섬 윌리엄 에이 모리스 아이에스 61 중학교; 미디어 전문가 알렌 웨버 모랄레스 - 뉴욕 브룩클린 마린 파크 중학교; 미디어 전문가 보니 워즈노브스키 - 뉴욕 캔더 캔더 중고등학교.

여기에 에르미니아 클로디오의 중1 신문반의 모든 학생들과 그리고 프로젝트는 앞 페이지에 실리지 않았지만 페트리샤 파워의 중3과 고1학생들을 나열할 지면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나의 훌륭한 편집자 러셀 프림 3세에게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책을 만들게 해 달라고 설득을 했다. 그러나 도움을 준 모든 이들을 담기에는 여전히 페이지 수가 충분하지 않다. 나의 영원한 감사를 여러분 모두에게 보낸다.

자넷 보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자넷 보드는 열세 살 때 미국 너머에도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가족과 영국에서 2년 반 동안 살았다. 그리고 20대에 그녀는 2년 동안 멕시코에 있는 학교에서 가르쳤고 그 외에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일을 했다.

그녀는 중국의 만리장성을 걸었고, 이집트의 나일강 위의 소형범선을 타고 항해했으며, 페루의 잉카 세계를 탐험하고, 호주의 붉은 사막에서 호주 원주민들과 얘기를 나눴다. 그녀는 미국의 해안지방들과 중부 여덟 개 주에 살았었다. 보드는 이민

의 문제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녀는 우리나라를 속속들이 주관적으로
나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

*자유의 색: 이민자들 이야기(The Colors of Freedom: Immigrant Stories)*는 그
녀의 열네 번째 청소년 논픽션이다. 그녀는 현재 뉴욕 시티에 살고 있다. 그리고 아
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행을 하려고 짐을 꾸리고 있을 것 같다.

